

방송인 김병조 씨
"음성공양 24년, 불교방송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1월 2일) · 주간

제969호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연등회 발우공양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연등회와 발우공양, 사찰 권역 등 한국불교의 전통 유 · 무형 유산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1월 25일 "연등회와 발우공양을 비롯해 한양도성, 용산 미군기지 등 총 8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건의 아이템을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3분야로 나눠 등재를 추진 중이다.

연등회와 발우공양은 인류무형유산 분야에 포함됐으며, 세계문화유산 분야에 △풍납 ·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 중심의 한성백제유적 △동관왕묘 중심의 전국 소재 관우 관련 신앙공간 △덕수궁 등 대한제국 시기 정동 근대유산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기록유산에는 △동여도 등 한국 고지도 △KBS 이산가족찾기 관련 기록물을 넣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문화재청도 연등회를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 목록에 올린 바 있고 조계종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불교의 식사 의례인 발우공양은 평등, 절제, 공동체, 생명존중사상을 담고 있어 오늘날 전인류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인 청빈, 소박함, 친환경 요소를 갖췄다는 점에서 인류무형유산의 자격을 갖췄다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한 연등회〈사진 왼쪽〉와 발우공양〈사진 오른쪽〉. 문화재청도 한국 전통산사 7곳을 세계문화유산 잠정 등재 목록에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 발표… 한양도성 등 총 8건 진행
문화재청 '한국 전통산사' 잠정등재 목록으로 신청
"한국불교문화 알리는 기회 국민적 역량 모아야"

이에 대해 오문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주무관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각 1억원씩 예산이 배정됐으며 장기적인 동력을 위해 자문을 지속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특히 연등회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대형 전통축제인만큼 등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한국의 전통산사'도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혜은)는 11월 26일 제4차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산사'와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을 선정했다.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총 7곳이 이름을 올린 '한국의 전통산사'는 등재 신청을 위해 2년 전부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구성돼 전통사찰 50곳의 사찰을 선별 · 답사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 이유로 "7개 사찰이 조선시대 이전 창건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화엄, 법상, 선종 등 다양한 불교사적 역사를 가졌다"며 "선교융합과 예불, 강학, 공동생활이 복합돼 불전, 강당, 승방이 공존하는종합 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측면으로도 "조선시대 국가적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의 신앙적 전통을 유지 · 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한국의 전통산사' 등 해당 유산이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전통사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만큼 종단에서도 연구 및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 전통문화 유산들이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민·정련·대원·지성·성파·성우 스님 대종사 품수

조계종 원로회의 29일 결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44차 원로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세민, 정련, 대원, 지성, 성파, 성우스님 등 6명의 현직 원로의원의 대종사 법계 품수심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 원로의원 스님들은 현행 법계법에 따라 대종사 법계 품수를 위해서는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각 단계에서 어느 부분을 심의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종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대종사 법계는 승납이 40년 이상된 비구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법계위원회가 법계산림을 개설하면 종정 진제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인준을 해준 뜻은 불교중흥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원력과 공심으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지역포교위한 국민힐링 투어 시작

포교원, 12월 5일 명상과 결합한 투어 개최

조계종이 명상과 불교문화를 결합한 포교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국민행복 힐링투어를 12월 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국민행복 힐링투어는 명상을 주제로 지역본사에서 진행된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사설 명상센터나, 협회 차원에서 명상에 대한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왔다.

먼저 공주 마곡사 권역인 대전세종충남권 행사에서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사무량심 명상법'과 마가 스님의 '행복명상'이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포교원은 "대전에서 진행되는 힐링투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국투어로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포교의 장으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시아 지역 불교문화재 보존 어떻게

12월 6일, 문화재청 전문가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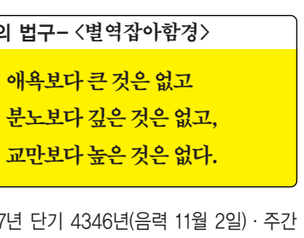
문화재청이 아시아 불교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제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의 불교문화유산, 그 불국토를 보존하다(Asian Buddhist Heritage: Conserving the Sacred)'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아시아 지역의 불교문화유산 보존의 문제점과 보존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할 이날 포럼에서는 로랜드 실바 박사를 비롯한 해외 학자 11명과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림 스님 등 국내학자 3명이 참석해 아시아 지역 불교문화재 보존을 논의한다.

문화재청은 2012년 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ICCROM)과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기금을 지원해 아시아 지역 문화재 보존복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기금사업의 일환이다.

노덕현 기자



광흥사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안동 광흥사서 국보급 고서 발견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 원소장지로 널리 알려진 안동 광흥사에서 국보급 문서 200여 점이 발견됐다.

안동 광흥사(주지 범종)는 최근 명부전 시왕상 복장에서 고려 말과 조선초에 간행된 고서 200여 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고문서에는 1213년 간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종경촬요〉와 1387년 고려 말기에 간행된 〈대혜보각선사서〉(서장)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월인석보〉와 〈선종영가집언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어 한글의 변천사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광흥사와 조계종 문화부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11월 28일 시왕상 복장물을 불교중앙박물관에 이관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불교 꿈, 세계불교 터전 마련"

동국대 불교대 '비전 2020선포'

동국대 불교대학이 108주년인 2014년을 앞두고 비전2020을 선포하고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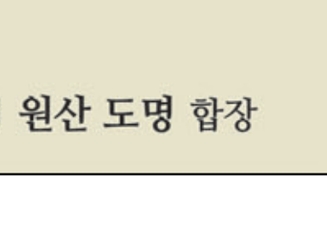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소속의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불교경영 최고지위과정, 석림회 등 관련 동문이 대거 참석해 하루동안 10억 여원을 모연했다.

이날 모인 불교대학 동문들은 교가를 제창하며 2020년을 목표로 '동국불교센터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서원했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969호 INDEX

시방세계 5
조계종 봉사단 필리핀 재해 구호 현장



종합 2·3
화마 휩쓴 낙산사 복원 3천일 회향
제16회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성료
봉은사 운영 백서 발간 의미
실천승가회, 시국선언 발표

신행 6
불교 사회적 기업, 포럼 발족

함께가요 강의실 8
수불 스님 日하나조노대 특강

학술 9
한국불교학회 근대학자 조명한다

문화 20
보로부두르 3D 다큐로 만난다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개편



화엄의 세계

그 구법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지냅니다.

■ 회 비 영 가 동 참 비 : 1위당 이만원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 문의처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381-1288

■ 교통편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8:00~09:00)
울산지역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5) → 무거R(08:15) → 통도사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 용 차 경부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 입 재 2013.12.03 (화)
· 회 향 2013.12.31 (화)
· 장 소 통도사 설법전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사회적 대화 위해 종교가 힘 합쳐야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회적 대화' 토론회

사회 갈등 요소를 어떻게 대화로 풀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문제의 불교적 해법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승권 前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화쟁위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백 前 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은 가히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갈등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고 조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싸움을 말려야 할 정부가 가장 큰 싸움꾼이 된 시대에 누가 싸움을 말릴 수 있는가'에서 사회적 대화의 종교의 역할은 시작된다"고 전제했다.

백 前 국장은 중재 세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힘'을 가진 세력이 바로 '제도권 종교'라고 주장했다.

백 前 국장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고 난 다음 이를 현실로 만드는 문제도 제도권 종교의 몫"이라면서 "하지만 안타깝게 제도권 종교의 힘은 아직 갈등 문제를 완전히 풀어낼 만큼 모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前 국장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교의 힘과 뜻이 모아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화쟁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향후 제도권 종교가 사회적 대화를 가장 중심된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 설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근 전 북대 교수는 '정부 및 외국 사례로 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 사례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내놨으며, 정주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은 '사회적 대화에서의 종교계 역할'을 주제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1월 27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화마 할퀸 낙산사, 佛心으로 복원

2005년 4월. 화마로 인해 양양 낙산사는 폐허가 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8년 7개월에 걸친 긴 세월동안 회주 정념 스님과 주지 무문 스님 등이 주축이 돼 불사복원에 온 정성을 쏟았다.

대웅전인 원통보전은 웅장한 팔작지붕을 되찾았고, 뜨거운 화염에 녹아내린 보물 479호 동종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찰 초입의 홍예문과 7층 사리탑이 새로 들어서는 등 3천일 동안 3차에 걸쳐 복원이 마무리 됐다. 이와 더불어 화재예방시스템도 완벽히 갖춰졌다.

불이 날 경우에 대비해 소화설비 21대가 곳곳에 설치됐고 80여 대의 CCTV와 열 감지 카메라가 24시간 사찰을 지키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낙산사가 3천일 회향을 맞아 11월 24일 복원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타전에 관음보살상이 점안됐고, 사리탑도 공개됐다.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재현해 사리를 모신 것이 특징이다.

낙산사는 3천일 회향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아직도 불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의상기념관 옆에 모셔진 동해용왕 사적비의 좌대를 재현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낙성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무문 스님은 3천일 불사 경과도 전했다. 무문 스님은 "원통보전, 범종루, 홍예문, 연하당, 심검당, 선열당, 취숙헌, 해우소 3동, 해수관음상 주변 108법륜석, 빈일루, 응향각, 정취전, 설선당, 고향실, 근행당, 의상대, 지장전, 지장보살상, 도명존자상, 무독귀왕상, 무료국수공양, 380톤 소방탱크 2동, 관세음보살상 개금, 홍련암 법당 종불사, 의상조사 진영, 1,500 관세음보살상과 32응신상 개금 불사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11월 24일 열린 낙산사 복원불사 회향 법회에서 회주 정념 스님이 신도대중들의 환호에 응답하고 있다.

11월 24일 낙산사 3천일 복원불사 회향 법회
원통보전, 동종 등 20여개 전각 원래 모습으로
10년간 복원과정 책으로 묶어 3만권 법보시

낙산사 복원은 외부 불사 복원외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내형 복원에도 진력했다. 포교당 무산사 신축,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어린이도서관,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양양군민들이 낙산사의 후원으로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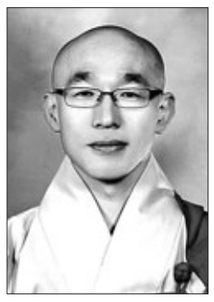
회주 정념 스님도 "사적비 작성, 사리탑의 준공, 건칠관세음보살 개금, 보타전 1500 관음 개금, 지장전 명부시왕 점안, 홍련암 종불사를 끝으로 낙산사와 홍련암 3천일 복원 불사의 대단원을 마친다"며 "10년 복원불사를 회향하고 영욕의 시간을 뒤로하고 낙산사를 떠난다"고 그간의 소회와 고별사를 함께 했다. 한편 정념 스님은 지난 10년간의 낙산사 복원과정을 정리해 책 한 권으로 묶었다. 제목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이다. 정념 스님은 3만 권을 제작해 복원불사에 도움을 준 전국의 불자와 국민들에게 법보시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꿈이 시작되는 휴식문화공간으로 거듭"

복원불사 3천일 회향한 주지 무문 스님

방재 시스템 대폭 강화
지역민 위한 사업도 진력



"시원하기 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의외의 답변이었다. 3천일 동안 이어진 낙산사 복원을 마무리한 주지 무문 스님에게 소회를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어떤 점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든지 지나고 나면 심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복원 불사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픈 부모의 심정처럼 무엇을 해도 모자란 느낌이었다. 불사 재료, 방법, 과정에 정성을 다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아있는 돌과 주변 나무를 허투루 보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다. 원통보전의 축대가 그렇고 빈일루도 마찬가지다. 낙산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고증자료를 참고해 홍련암 가는 길을 새로 조성했고 도량에 이야기를 부여해 '꿈이 시작되는 길, 꿈이 이뤄지는 길, 설레임의 길' 등을 마련해 복합 휴식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또한 100년이 지나도 전통과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해서 석축 하나를 다룰 때도 정과 망치를 이용하는 등 일일이 수작업을 고집했다. 그때마다 인부들은 곤혹스러워했고 시간도 세 배 이상 걸렸다 하지만 복원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전국 각지서 낙산사의 원만 복원을 바라며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도들과 스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낙산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해 하는 스님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다.

"회주 정념 스님은 이를 계기로 낙산사가 지역사회를 보듬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복지관 설립은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정말 많은 지역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무료로 국수공양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길위에서 마주치는 이들이 신도 말고 없었지만, 이제는 부쩍 모르는 사람도 다가와 스님에게 인사한다. 대개 지난 번 경로잔치가 즐거웠다던가 하는 등의 진심어린 고마움이 담긴 인사다.

"새로운 전법도량으로 태어난 낙산사는 지난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예방설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원통보전 측, 후면에는 9미터 50센티 길이의 수막설비를 설치함은 물론 방수총 25개, 380톤급의 물탱크도 두 개나 갖춰 웬만한 화재에도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배현진 기자

"대화·교류로 상생 터전 만들자"

제16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中 하이난서 개최

한·중·일 불교계가 한 목소리로 종교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전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길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 일본 불교계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제1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했다.

3개국 불교지도자 300명이 참석한 이번 교류대회에서는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열렸다. 첫 교류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지만 '응용불교'를 통해 사회문제를 치유하려는 시도는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장 서광 스님은 "자연재해로 인해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희생자에 대한 종교적 위로를 통해 유족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명상을 연계한 심리치료를 통해 스트레스 장애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자연재해 생존자들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들어 서구사회에서 불교의 마음챙김과 고성제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불교의 생활전통과 생사관, 자리이타관의 회복은 자연재해 생존자들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세계평화기원문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실천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야할 길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에 참석한 불교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인류는,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를 중단하고, 모든 종교는 대화와 교류로 서로를 인정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대표단은 11월 24일 일제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가 묻힌 천인갱을 방문해 고인들을 위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표 스님들은 하이난성 산야시 조선촌(현 난딩촌, 南丁村)에 세워져 있는 추모비 앞에서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에서는 '조선보국대'라는 명분으로 해남도에 끌려와 사망한 故 한기석 씨의 유가족인 부인 이강희(93), 아들 한광수(73) 옹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한편, 3국 불교대표단은 108m 높이의 남산사 해수관음상 등을 참배하고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중일 기자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겸직은 종헌 위배"

도정스님 법규위에 심판청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이 11월 25일 조계종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이 종헌 위배라는 심판청구를 법규위원회에 청구했다.

도정 스님은 조계종법규위원장에게 보낸 심판청구서를 통해 "종헌 제52조 4항에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총무원장이 본사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엄연한 종헌·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현명한 판결로 종헌·종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종도들의 혼란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봉행

제2대 총무원장 원경당 삼주스님 취임 및
초대 총무원장 호월당 화엄스님 이임식

귀의삼보하옵고,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 통일부장관 초청 [2013년 제1회 전국호국불교통일기원대법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제2대 총무원장 원경당 삼주스님의 취임식과 초대 총무원장 호월당 화엄스님의 이임식을 강호의 제방 원로, 대덕 큰스님과 지역기관장,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이취임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수희 동참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 주시길 청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 중구 영주동 743-80 코모도호텔 1층 대연회장 그랜드볼룸 (051-466-9101)
■ 문 의 : 총무원 041)566-2277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

“사찰 운영 투명화, 불교 발전의 밑거름”

봉은사 운영백서 발간…2007년부터 현황 담아

봉은사가 사찰에서 이례적으로 운영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운영백서에는 △수행 △기도 · 법회 △포교 △교육 △종무행정 △불사 △신도회 △불교문화행사 △사회공헌 △템플스테이 △재정 등 중장기 계획의 성과와 현황, 향후 계획 등이 담겼다.

봉은사 중창위한 기도 정진 효과

먼저 봉은사는 백서 첫장에 봉은사 수행공동체 복원에 대해 설명했다. 봉은사 측은 “봉은사 변화의 핵심가치는 ‘수행’ 이었다”며 “주지스님을 포함한 모든 대중 스님들이 조석예불, 울력, 법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매일 실천해나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봉은사 측은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봉은사 천일기도는 前 주지 명진 스님의 발원으로 2006년 12월 5일 동안거 결제와 함께 시작돼 2009년 8월 30일 회향됐다. 봉은사는 천일기도에 맞춰 중창불사 계획을 세워 차근히 진행해왔다. △전통사찰 가람정비 △신도조직 활동강화 △해외포교 전진도량 건설 △이웃과함께하는 대사회활동 △도심포교 프로그램 실시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종무행정 공개와 전산화를 통한 현대화 작업도 함께 실시했다.

이에 이어 진화 스님은 주지로 취임하며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를 위한 천수다라니 독송 3년 대정진’을 진행했다. 진화 스님은 2011년 9월 3년 6개월의 기간을 목표로 천수다라니기도에 입재했다. 현재 천수다라니기도 총동참자는 4763명으로 연인원은 55950명에 달한다.

직장인 라이프 맞춘 일요법회 활성화

봉은사의 변화 중 하나는 일요법회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2007년부터 봉은사는 ‘선종 수사찰’ 이름에 맞게 수행 중심의 법석을 마련했다.특히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선교율대법회는 일요법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선교율법회에는 고우, 무비 스님 등이 직접 법사로 나서기도 했다. 2007년~2009년 평균인원이 1000명 이내였던 봉은사 일요법회는 선교율법회 실시 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

봉은사는 이번 운영백서에서 매회 일요법회 참석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싣기도 했다.

봉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요법회의 남녀 비율은 3:7로 여성신도의 비율이 높았다. 또 30~40대 비율은 줄고 50~60대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일요법회 시행에도 주된 참여층은 주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봉은사가 최근 발간한 2007~13년 운영백서

중창기도·불사 현황 및 과제 제시
기도비·신도증감 현실 외부 공개
운영 노하우, 비전 등 함께 담아
사찰 사업연속성 높이는데 큰 기여

재정공개 예산 증가…주지교체기 감소

봉은사는 재정부분에서 2006년부터 전체 세입 현황을 소상히 공개했다. 2006년 봉은사 전체 세입예산은 총 119억 8000만원이었는데 특별수입 등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실제 수입액은 77억 5100만원이었다. 2012년에는 실제 수입액이 131억 1300만원으로 약 69.1%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6.1% 증가, 2008년 12.2% 증가, 2009년 11.6% 증가, 2010년 1.6% 감소(주지 교체 갈등), 2011년 9% 증가, 2012년 8.5% 증가를 기록했다.

봉은사 측은 “이러한 재정 증가는 봉은사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재정기여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봉은사 재정이 안정되려면 주지 스님 교체기에 갈등과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백서 발간으로 사업 연속성 기대

운영백서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봉은사의 대소사 현황과 계획을 담아 사업연속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서 사찰운영에 대해 공개한 경우가 드문 이유는 신도 및 세입 증감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찰운영 투명화가 신도신뢰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사찰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 봉은사 1200년 역사에서 7년이란 세월은 한 바가지의 물에 불과하지만 그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순간의 찰나에서 영겁을 보기 위해 이 백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실천불교승가회 소속 20여 스님은 11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부기관 선거 개입, 現정부 참회하라”

조계종 실천승가회, 28일 조계사서 시국선언 발표

‘민주 수호’ 1012명 서명
“국정원 엄중 수사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범”

“수행자로서 제방 도량에서 정진해야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오롯이 지켜지며 국민 대통합을 통해 한국사회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히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1천여 조계종 스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11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 앞서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종교인도 잘못이 있으면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불법 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전국 교구본사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 1012명이 연명으로 동참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민의를 왜곡하는 사건 등을 보며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후퇴하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한다”고 개탄했다.

스님들은 “현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선거운동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참회할 것 △불법선거 개입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 △이념을 조장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활동가 모인 ‘협동조합’ 출범

불교계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지적 콘텐츠를 양산하는 ‘지지(智止) 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지식협동조합 ‘지지’(이사장 김경호)는 11월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창립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지지협동조합은 프로젝트형 정책생산, 사회적 조직 창업, 사업기획 및 전략수립 컨설팅, 대외프로포절(제안) 개발, 프로젝트 관리 · 운영 서비스, 기념 · 개인출판 기획, 편집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지협동조합은 창립 후 첫 프로젝트로 ‘종단개혁 20년 타운미팅(대중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미팅은 준비모임 1회, 타운미팅 1~3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주제테이블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 대중의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중일 기자

묻혔던 역사 僧將·僧役 재조명하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호국불교 자료집 발간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는 승장(僧將)과 승역(僧役)에 관련한 사료를 집대성한 자료집일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11월 29일 ‘호국불교 자료집1(승장 편)’ 수정 · 보완본과 ‘호국불교 자료집 2(승역 편)’을 발간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2년 조선시대를 작업대상 시기로 선정하고 휴정(休靜), 유정(惟政), 영규(靈圭), 처영(處英), 각성(覺性) 등 사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승장(僧將), 승통(僧統), 총섭(摠攝)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관찬사료들과 사지류, 문집류 등에서 발견되는 승장관련 자료들을 묶어 ‘자료집 1(승장 편)’을 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수정 · 보완본은 2012년 발간 후 1년 동안 발굴한 자료를 수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자료집이다.

실제 연구소는 연구과정에서 기존의 유명 승장 외에 법정, 학선, 준변 스님 등을 새로 찾았고, 임진왜란 당시 영규 스님과 함께 순국했던 스님들의 명단도 발굴했다.

이와 함께 발간되는 ‘자료집 2(승역 편)’은 승역(僧役)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자료집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군역, 역역, 잡역의 항목으로 나눠 수록했다.

연구소는 “임진왜란 당시 자발적으로 편성된 승군은 전투와 후방지역에서 뚜렷한 활약을 했다”며 “이러한 승군의 활동에 대해 국가 방위 차원에서 유용하다 인식됐고, 전란 후에 승역은 상례화 되고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향후 호국불교의 주요 주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한국호국불교자료집’ 발간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승역 중 승잡역에 대한 내용은 내년 간행할 3집에 수록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자료집 발간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호국불교자료집1,2’. 승장편과 승역편으로 나눠 구성됐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자료집 발간에 맞춰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12월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선 후기 승군제도와 승역연구’를 주제로 열린다.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를 주제로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조선후기의 승역’을 주제로 윤용출 부산대 교수가, ‘조선후기의 의승방번전의 징수와 승군’을 주제로 오경후 동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적 신뢰 위해 조계종 직선제 필요”

법응 스님, 재가연대 토론회서

“조계종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위해서 직선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직선제는 산중공의제에 접근 내지 치환, 종단 청정성 회복의 계기, 전 종도의 참여 가능, 다수 대중의 의견 반영, 계파 및 금권선거 예방, 당선자의 권위 확보, 사회적 신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법응 스님은 조계종 선거제도의 변화를 위해 대중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선거법의 변화를 위해 직선제를 제안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주최하고 교단자정센터가 주관하는 ‘불교의 현대화’ 제2차 심포지엄 ‘계율의 현대화–대중공사와 조계종 선거법’이 11월 28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법응 스님은 “현 선거제도가 종단계파, 권력구조, 문중 그리고 선거의 세속적인 부정 요소 개입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며 추대제 승려 만장알치제 직선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스님은 이 중에서도 한시적 직선제를 제안하며 “이는 직접민주주의 형식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산중공의에 가장 부합하며, 가능한 다수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혜숙 기자**

(사)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동참 감사의 인사말씀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설법하고 있는 석월인 종정 스님

귀의삼보하옵고
입동지절에 종도여러분들의 사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에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위문품과 함께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사기진작을 복돋아 주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신 종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위문법회를 봉행하오니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여 호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연무사 현조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25일

종 정 석 월 인 화남, 총무원장 법 수 합장

- 동참 종도스님 -

◎ 종정 월인 대종사 ◎ 원로원장 혜공 대종사 ◎ 원로의원 동하 대종사
◎ 원로의원 운성 대종사 ◎ (전)월인 문도장 법산 스님
◎ 종회의장 혜륜 ◎ 총무원장 법수 ◎ 포교원장 도안 ◎ 총무부장 도일
◎ 서울종무원장 정행 ◎ 부산종무원장 봉선 ◎ 대전종무원장 법지
◎ 울산종무원장 도성 ◎ 대구, 경북종무원장 지운 ◎ 경남종무원장 월곡
◎ 강원종무원장 부루나
◎ 성주암 주지 법등 ◎ 무량사 주지 고시근 법산 ◎ 일원사 주지 보련
◎ 고성 서래암 주지 법해 ◎ 재무원장 무착 ◎ 몽불사 주지 법관
◎ 문수사 주지 문수 ◎ 진불암 주지 무구 ◎ 보타암 주지 법전
◎ 용암사 주지 선궁 ◎ 총무원재직 무찰 ◎ 전혁란(구미) ◎ 정광 ◎ 혜전
◎ 보명 ◎ 범성 ◎ 묘전 ◎ 묘운 ◎ 묘주 ◎ 운정사 주지 도성 ◎ 도광
◎ 선조 ◎ 선견 ◎ 선웅 ◎ 혜언 ◎ 도안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 2동 177-15
전화 : (051)556-0278, (051)552-8554 전송 : (051)556-8551

일 주 문



영화사 필리핀 구호기금 전달

서울 영화사 회주 월주 스님은 11월 26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필리핀 태풍재난 구호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신흥사 자비나눔 대법회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12월 13일 오후 6시 속초 마레몬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자비나눔대법회를 개최한다. (033)636-7044



나눔결사 주지 진산식

서울 도선사 제10대 주지로 부임한 송산 도서 스님은 12월 3 일 '저소득층 돕기 나눔결사' 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다.

"붓다 고행상 닮는 것이 수행"

청전 스님, 11월 24일 상도선원 법회서

달라이라마는 붓다 고행상 모셔
깨달음보다 구도 과정이 중요해
인도 다람살라서 '26년' 째 정진



"절에 가면 흔히 모셔져있는 금동불은 붓다가 된 이후의 영광스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그런 분이 아니고 붓다가 되기 이전의 고행상입니다. 붓다 되기 이전을 닮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제자 청전 스님이 11월 24일 서울 상도선원에서 초청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는 수행자로서 지녀야할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청전 스님은 "수행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훌륭한 스님들과 부처님은 고행과 가난을 바탕으로 공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행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필요하다고 갖추기 시작하면 우주도 부족한 게 사람이다. 이런 탐진치를 정화하는 것이 수행이며 이는 꾸준히 매일 반복해 나가야 한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쉼없이 정진해나가길 바란다"고 청중들을 격려했다.

또한 "수행자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육신이란 인연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수가 없다. 히말라야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빈약한 음식으로 수행정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당뇨나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다. 계속해서 "덜먹고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 수행"이라며 수행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1시간여 이어진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은 약 100여명. 발 디딜 틈 없이 법당을 채운 사람들은 일어서서 스님 말을 경청하기도 했다. 법문 후에는 참석자들과 청전 스님간 질의 응답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수행을 위한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이 다수였다.

성심성의껏 답을 해나간 청전 스님은 "부처님 법을 꾸준히 실천해나가려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환희심이 크게 난다"며 "근래에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한 건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청중들은 스님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인 성각(52)씨 또한 "오늘 법문을 통해 수행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청전 스님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편 청전 스님은 "그동안 비구로 살아오며 공부를 이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여러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다"며 "생사문제를 해결코자 떠났던 순례길이 그대로 삶이 되어 영혼을 맑혔다. 맑디 맑은 스님들과 함께하다보니 제가 참 행복한 스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면 스승 달라이 라마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에서 순수하게 공부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담담히 덧붙였다.

청전 스님은 히말라야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라는 책을 최근 발간, 지난달 말 방한했다.

스님은 1972년 유신 선포 때 대학을 그만두고 성직자의 길을 걷다 구산 스님과의 만남 이후로 송광사로 출가했다. 그 후 참선수행을 하다 수행과정 중의 의문을 풀기 위해 순례길에 올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정착, 26년째 달라이 라마 제자로서 공부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전순표 세스코 회장, 동국대에 3억원 기부



세계적 방제기업인 세스코 전순표 회장이 모교인 동국대에 바이오도서관을 조성해달라며 3억원을 기부했다. 전순표 회장은 11월 27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한 후 3억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안직수 기자, 12월 14일 〈세입클로버〉 출판기념회



안직수 불교신문 차장은 12월 14일 오후 2시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행복을 위한 고민을 담은 〈세잎클로버-기성세대를 위한 질문 30가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11월 28일에는 교계 선배들과 조촐한 축하모임을 가졌다.

"장학금 증자 위해 법인화 계획"

12월 7일, 김흥국장학재단 제14회 장학금 전달식



"벌써 14년이 되었네요. 홍보도 잘 안했는데 어떻게 알고 천원, 이천원씩 보태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12월 7일에 열리는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이 어느덧 14회를 맞았다. 김흥국 씨〈사진〉는 올해 화계 초등학교 6학년생인 조민호 군 외 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원로가수 이갑돈 씨에게도 지원금 100만원이 전달된다.

"낙산사 홍련암에 가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고 입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넉넉해진 지금 회향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리라 고요."

후원해 준 어린이가 어떻게 컸는지 궁금하지 않냐는 질문에 "물론 궁금하죠. 그렇지만 아이들 자존심 상할까봐 섣불리 나서질 못한다"고 대답하던 그는 "그래도 누가 압니까. 나중에 곡주 만드는 사장님이 돼서 나타나 '앞으로 김흥국씨 술은 제가 책임지겠다' 고 말하는 날이 올런지요" 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평소 애주가로 소문난 그다운 농이었다.

"한번쯤은 그동안 후원한 아이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보고도 싶지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괜히 제가 상을 내는 것 같거든요. 장학금을 전달할 때 아이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나한테 편지 쓸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는 아저씨를 잊어버리는 거다. 열심히 공부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면 족하다' 고요"

그간 불자로서 봉사활동은 물론 각종 재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기탁하며 자비행을 펼쳐온 그는 장학금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재단의 법인화를 계획 중에 있다.

김흥국장학재단은 2000년 1월 설립, 135명을 후원해왔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03-21-0319328 **배현진 기자**

조계사 입구에 현대적 사천왕상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11월 26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100여 대중과 함께 사천왕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사천왕상은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인레스 조각을 이어 붙이는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사천왕상 조성에는 3년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덕현 기자**

〈인사〉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임명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 강순형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이 최근 임명한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강순형 소장은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국립중앙박묵관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경독송회 티베트 청소년 돕기

사단법인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는 11월 14일 아름다운 동행에 티베트 난민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전 세계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수행 단체다. 포교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 배포, 순국선열 추모법회를 꾸준히 봉행하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 지부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73년 설립된 이후 18년째 매년 1000만원씩 불우이웃 성금 돕기에 동참하고 있다.

청우불교원의 자비나눔 기금 전달은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기부금은 회원들이 금강정사에서 메주, 된장, 참기름 등 전통음식을 생산하고 옷가게 등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토대로 마련했다.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승가종 논산훈련소 위문법회

(사)대한불교승가종(종정 월인)은 11월 2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거나 힘들때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며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승가종은 이날 호국연무사 주지 현조 법사에게 위문품 및 법당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2월 27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똘레사 군수에게 구호물품 전달하고 있다. 이 구호물품은 똘레사와 기안 지역 주민 8000가구에게 전해졌다.


하늘에서 본 타클로반의 피해 모습.


기안 지역의 피해를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둘러보고 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현지 희생 주민을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아픔, 한국불교 자비로 보듬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 19~24일 현지 구호활동

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할퀴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이동하는 거리의 모든 가옥과 시설물들이 태풍으로 인해 모두 파손됐다. 현지인들은 토스트 네 쪽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고,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lease, help us (우리를 도와 주세요)', 'We need food(식량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피해를 짐작하게 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구성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혜만)은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구호지역으로 타클로반시 남쪽 똘레사와 사마르섬 동남쪽에 위치한 기완 지역을 선정했다. 대부분의 개발NGO와 미디어들이 타클로반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피해지역을 찾아 현지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똘레사는 타클로반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4000가구 1만 700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긴급구호봉사단이 찾은 똘레사 내 대부분의 집들은 간신히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태풍에 이어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틈틈이 흙 속에 묻힌 집기들을 챙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였다.

주민 이멜다 노비오(52세) 씨는 "식량과 물이 부족하다.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쉴 곳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슬픔에 봉사대는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했다.

타크로반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마르섬 기안지역도 상황은 심각했다. 1만3500가구 4만7087명이 생활하는 기안은 타클로반 못지않게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망자 101명에 부상자도 3417명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 역시 거리상의 이유로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국경없는의사회, 옥스팜 등 국제적인 규모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듀비트 (45세) 씨는 "하이옌으로 모든게 파괴됐다"며 "각국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먼저, 긴급구호봉사단은 똘레사 내 지역 조직인 바랑가이(한국 행정조직 면 개념)를 통해 돈나브리히다, 텔레그라포, 포브라시온 등 총 9곳에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구호품은 바랑가이를 통해 똘로사 내 4000가구 1만7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분배됐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긴급구호키트에 포함된 품목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품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대 단장 혜만스님도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물품 전달에 함께 했다.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해 일손을 거들었다.

긴급구호봉사단 구호물품은 현지 상황에 맞춰 구성됐다. 긴급구호 단계에서 복구로 접어들고 있어 쌀과 라면, 통조림, 간장과 면수건, 생리대, 양동이 등으로 구호키트가 구성됐다. 또한 대부분의 NGO가 지원한 구호키트들은 3~5일 분량이었지만 조계종의 구호키트들은 10일 분으로서 주민들이 복구 시까지 일시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필요한 물품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구입해 피해지역으로 공수했다.

어윈 오카나 똘로사군 군수는 "똘레사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 불교계에 거듭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봉사단은 똘레사와 마찬가지로 기안에 4000가구를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기안 지역 구호물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입고돼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분배됐다.

신 곤잘레스 기안 군수는 "한국에서 이곳까지 방문

똘레사, 가온에 2억 원 지원
긴급구호 · 복구위한 물품 전달
국내 NGO 중 가장 먼저 구호 실시
韓불교 구호 역량 확인 '쾌거'

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이 지원한 식량과 구호품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와 NGO의 도움에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나은 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호 물품은 똘레사와 기완 두 지역 8000가구, 약 3만 4천여 명에게 고루 전달됐으며, 지원 지역을 돌며 지낸 천도재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컸다.

구호 단장 혜만 스님(조계종 사회국장)은 "종단의 발 빠른 대처로 재난 지역에 긴급 구호를 할 수 있었다"면서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지역을 발굴하고 국내 NGO로는 최초로 긴급구호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기적 대응이 있을 수 있던 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의 협력과 현지 출신 활동가인 강슬기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활동가이자 아버지가 필리핀인인 강 씨는 봉사단에서 현지인 인터뷰와 구호물품 구입 등의 역할을 맡았다.

강 씨는 "사마르섬은 아버지의 고향이고 타클로반은 아버지가 공부를 했던 곳"이라면서 "아버지의 고향을 도울 수 있어 기쁘면서도 태풍의 할퀸 자리에서 신음하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슬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필리핀 긴급구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교적 아이템을 가진 구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제 역시 남았다.

김도훈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장은 "조계종 긴급구호 능력은 확인했다. 그간 자원은 충분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매뉴얼만 개선한다면 세계 유수의 국제구호 NGO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들어온 대만 자제공덕회의 경우 단순 지원이 아닌 복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의 복구사업은 현지인들을 인력으로 고용해 임금을 주는 '캐쉬 포 워크(Cash for Work)' 방식이다. 이는 현지인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현물 경제를 순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불교도 순환적이면서 불교적인 구호 아이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공동취재단

"하루 빨리 재해를 극복할 수 있기를"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장 혜만 스님



"구호물품을 지원받고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단에서 신속하게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봉사대를 파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장 혜만 스님 〈사진〉은 필리핀 구호활동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필리핀 긴급구호의 방식을 의료지원이나 복구지원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혜만 스님은 "종단의 구호활동이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며 "사전 조사를 통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식량과 물, 생필품 등이라는 점에 주목해 물품 지원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의 구호활동이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필리핀 피해 지원을 위해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혜만 스님은 "긴급구호봉사대의 구호활동을 계기로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불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최고 마애삼존불이 모셔진 천태산 천태사에서 기도하며 영감(靈感)을 받아 제작된 영험한 ***지장보살 황금도자기!***

법성스님 330位 지장황금도자기


높이 35cm 둘레 80cm

지장보살 황금도자기란?

손수 빚은 백자에 진사를 입히고 330분의 지장보살님을 순금으로 전사한 황금도자기입니다. 법성스님께서는 원효대사께서 창건한 천년고찰 천태산 천태사 무량수궁 마애삼존불에서 기도 중 영감(靈感)을 받아 점안한 도자기입니다. 진우대사님께서 증명한 법기로 가정에 모셔두면 330분의 지장보살님께서 위기에서 구해주고 어려울 때 지혜를 주어 절묘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영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 마다 가로막는 느낌과 매사 잘 안 풀리는 경우 동향에 모셔둠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 지고 집에 우환이 겹치면 북향에 모셔둠
*자녀들 중에서 혼사가 늦어지는 경우 이름을 적어 넣어 서향에 모셔둠
*취업, 승진시험 등 공부를 하는 집안에는 지장도자기를 서향에 모셔둠
*부모형제 자식 중 건강이 않 좋은 분 이름을 적어 넣어 남향에 모셔둠
*부부지간 사이가 않좋은 분은 대주의 이름을 적어 넣어 동향에 모셔둠
*자녀들 중 갑자기 삐뚤어진 행동과 성격이 변하는 경우 서향에 모셔둠
*사찰에 49재, 천도재, 원불, 위패, 납골함을 모신 분은 북향에 모셔둠

보시가 108만원 | 주문전화 055)372-5517 | *보시금은 노인복지원 건립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여성불자 긍지 살려 정법 펼칠 것”

불교여성개발원 13주년 제6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기념식



제6차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된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여성불자 108인의 긍지를 살려 교류 협력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13주년을 맞아 제6차 여성불자108인을 선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했다.

자승 스님은 영상을 통해 치사를 전하며 “여성불자 108인 사업이 이제 6차에 이르러 600여명의 여성불교 지도자가 발굴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렇게 발굴된 여성 지도자들이 ‘교단 내에서나 대사회적으로 어떤 임무를 가져갈 것인가’ 다”라며 “힘을 모아 불교계나 이 세상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나누는 모범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연 원장은 “6차 여성불자 108인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열정을 더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더 큰 뜻과 함께 서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지원스님을 대신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송묵스님은 “6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된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종단을 외호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신실한 우바이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명우 스님은 축사에서 “초창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을 설립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어 반갑다”며 “이는 여성 불자 108이 불교여성개발원 활동에 구심이 되고 있는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분들이 힘을 합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자신이 지닌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2003년부터 불교계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격년제로 여성 불자 108인을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여성불자 마틴 프로스트(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요가강사, 前 파리칠대학 한국어과 교수)를 포함시켜 109인을 선정했다.

마틴 프로스트 씨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요가를 시작하면서 동양문화를 접하게 됐다. 이후 일본어와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며 “‘참 나’를 찾기 위해 수행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불교적 가르침이 너무 와 닿고 좋다. 108인에 선정 된 것이 뜻깊고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외에 선정된 6차 여성 불자108인은 방송, 정치행정, 법률, 보건의료, 경제, 언론출판, 문화예술, 교계단체, 사회단체, 복지, 자원봉사, 교육연구, 포교신행 13개 분야에서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박강자 금호미술관 관장, 탤런트 김영애, 문보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한말선 화계사신도회장 등이 선정됐다. **이나은 기자**

▮제6차 여성불자 108인 명단

경 제 : 김영숙, 류병선, 배순자, 신정임, 심의분, 우계희, 이명순, 이영미, 이은순, 정은희, 최난영, 최우성
교계단체 : 구완자, 김무성, 김선임, 양외금, 이화
교육연구 : 강명희, 김선옥, 김원숙, 남동현, 마틴프로스트, 민태영, 박랑규, 박명희, 박정희, 박충선, 서은숙, 신재영, 윤정선, 이재연, 정대련, 정지숙, 조성희, 조정육, 황명자,
문화예술 : 금동원, 김기리, 김대원화, 김복희, 김순철, 김양희, 민선희, 박강자, 양은순, 이명숙, 이수진, 이연수, 이주희, 전수향, 정희숙, 조정숙, 채상희, 최복숙,
방 송 : 김영애, 주찬옥
보건의료 : 여영순, 이순용, 임정애
복 지 : 이현숙, 조경숙
사회단체 : 권견화, 김연화, 김점란, 송문희
언론출판 : 배정화, 이근주, 형난옥
자원봉사 : 박경임, 유진희, 유은주, 이숙자, 임연선, 임지연, 최진순
정치행정 : 김수자, 김현, 류지영, 이숙연, 이창순
포교신행 : 강영자, 강점숙, 김경미, 김순애, 김영미, 김춘희, 김태현, 노영아, 박갑자, 박종균, 박주영, 서정례, 손희숙, 신숙례, 심연홍, 윤맹순, 이규칠, 이무련, 이복희, 이은숙, 이주연, 임선자, 정봉애, 정청현, 하지원, 한말선, 허정선, 황인숙

“불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확산하자”

11월 26일 소셜벤쳐 등 41개 기업 참여, 포럼 구성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운영위원장 김규범)는 11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불교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리스타트업’ 대회를 열고 사회적기업의 제2도약을 위한 네트워크포럼을 발족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
11월 26일 ‘리스타트업’ 대회 개최
불교사회적경제네트워크 포럼 구성
사회적기업 41개 참여, 확산 나서

불교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불교의 대사회적 역량 강화에 사찰과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운영위원장 김규범)는 11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불교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리스타트업’ 대회를 열고 사회적기업의 제2도약을 위한 네트워크포럼을 발족했다.

불교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포럼은 예비사회적기업 19곳, 사회적기업 16곳을 비롯해 소셜벤처, 마을기업 등으로 △서울 · 경기 17곳 △강원 · 충청 8곳 △대구 · 경북 7곳 △부산 · 경남 5곳 △광주 · 전남 2곳 △전북 2곳 등 총 41개 기업이 참여했다.

불교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포럼은 2011부터 3년간 진행해온 불교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불교사회적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41개 기업과 연계하기 위한 10명의 지도위원도 위촉됐다.

네트워크포럼 지도위원장에는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위촉됐으며,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강화 법왕사 주지 계성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 지도위원이 선정됐다. 이들 지도위원들은 불교사회적 기업과 소속사찰을 비롯한 전국사찰의 연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협조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불교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네트워크포럼 대표로 위촉된 김선배 사회적기업 그린텍 대표는 “네트워크 형성으로 판로 연계를 통한 불교계 경제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중앙신도회와 각 교구본사, 지역사찰, 협동조합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도위원장 정우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의 길은 전법과 포교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 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하며 “서로 상생하는 불교만의 특화된 경제 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불교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새로운 포교를 개척하는 불사”라고 의미를 강조했으며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지속가능한 우량기업을 불교계가 배출해야 한다. 불교계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붐업 콘테스트’ 시상식도 진행됐다. 금상에는 사찰음식 콘텐츠로 기업활동을 펼치는 김현진 (주)마지 대표가, 은상에는 전통문화제품 제조 콘텐츠로 활동하는 김유숙 미지 대표가 선정됐다. 동상은 연화향 엄마놀이터 대표(복지)와 최기창 코리안템플스테이닷컴 대표(템플스테이), 김진여심 해피마중물 대표(전통문화)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세계에 알릴 문화상품 발굴

문화사업단,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내년 1월 25일 접수마감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우수성을 전할 수 있는 불교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경쟁력 있는 불교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 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특히 기존 공모전이 단일 주제 일변도였던 반면,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판매가 5만원 미만의 중저가 상품을 개발하는 ‘일반부문’과 사찰의 설화, 사찰건축물,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판매가 30만원 미만의 중고가 상품을 발굴하는 ‘전문가부문’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금 규모 또한 전문가 부분 대상 1,000만원, 일반부문 500만 원 등 총3천3백만 원 등 대폭 확대됐다.



작품 접수는 2014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공모전 참가대상자들에게 1,700년 한국불교문화 및 템플스테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착순 신청자 30명에 한해, 2013년 12월 11일~12일까지 1박2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02)2262-7177 **신중일 기자**

불교진흥원, 군포교 후원금 1억 원 지원

11월 27일 군종교구에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27일 ‘젊은 불교 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군종교구(교구장 정우)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격지 및 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 · 교육 등을 위해 쓰여진다.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은 “군승들의 노력으로 불자 장병들의 포교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군장병 포교와 함께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진흥을 위해 군종교구에 매년 군포교비 1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정혜숙 기자**

인드라망생협, 참선요가 수련생 모집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은 생협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참선요가’ 교실을 연다. 참선요가 강좌는 불교TV에서 2002년 3월부터 5년간 방영됐던 것으로, 인드라망생협 활동가이자 요가 전문강사인 최성연 강사가 지도한다.

‘참선요가’ 교실은 1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12주간 서울 목동 인드라망생협 법당에서 오전반, 직장인반, 토요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인드라망생협은 “좋은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삶 그대로가 완벽한 건강법이다.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02)576-1882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벌(蜂)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꽁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침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 ●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 ● 척추와 아시혈 찾기 / 주의사항 ●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물 및 가축(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도움만 받다가 스스로 도우니 기쁨 두배”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봉사동아리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손길’ 봉사단원들이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회원들에게 지압봉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단원들은 매월 1회 복지관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지난해 장애인 봉사동아리 창단
장애인 10여 명 회원활동
수족침 · 환경미화 · 지압봉사 나서
“규모 커지면 대외활동 할 것”

복지관에 가면 보통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인근 학교에서 온 청소년이나 기업 봉사모임에서 온 직원들, 또는 개별적으로 온 비장애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에는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봉사동아리가 있다. 바로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손길(단장 박성우)’ 은 성북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만들어진 자원봉사 동아리다. 동아리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 1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주 1~2회 정기적으로 복지관 이용회원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수족침봉사, 이미용서비스 관리, 지압봉사 등 다양하다. 또 매월 1회 복지관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나눔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동아리 단장이자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 회원인 박성우(31 · 정신장애) 씨는 “누군가의 도움만 받다가 제가 남을 위해 돕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보람있다”며 복지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동아리를 창단하기 전인 2012년 6월, 복지관 내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파악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종종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체계적인 봉사모임 창단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장애인봉사동아리’ 라는 가칭으로 활동 준비를 시작한 ‘아름다운 손길’ 단원들은 발대식 전까지 틈틈이 모여 무더위도 잊은 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동아리의 기틀을 잡아 갔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동아리 이름을 정하고 단장을 선출하며 회칙을 논의하는 것까지, ‘아름다운 손길’ 에는 단원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아름다운 손길’ 은 2012년 7월 3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9월에는 전문자원봉사자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지압교육을 실시했다.

단원들의 봉사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가져왔다.

봉사단원과 함께 수족침봉사를 하는 양명숙(수지침강사 · 49)씨는 “봉사자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봉사를 받는 장애인이 어디가 불편한지 비장애인보다 더 잘 이해한다”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타인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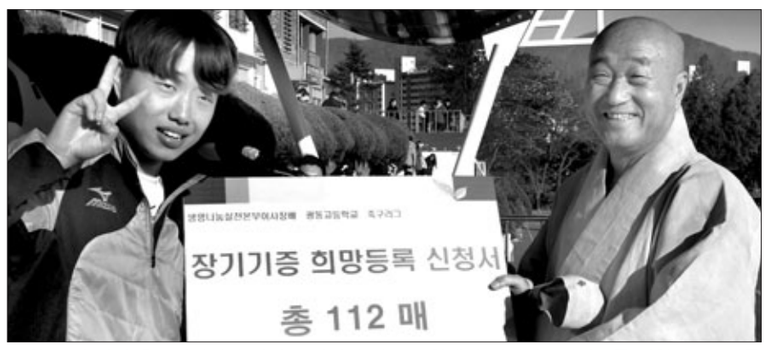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아름다운 손길’ 이 아직 작은 모임이지만, 동아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규모를 확대시켜 지역사회내로 활동을 넓힐 계획이다.

이용진 담당 사회복지사는 “단원들은 장애인봉사동아리 운영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의 전환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성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내부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독거어르신에게 찾아가 지압봉사를 하는 등 대외적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성북구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타 봉사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미수 스님·최상균 교장 ‘명예의 전당’ 에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 319명 추천



11월 19일 열린 축구대회에서 일면 스님에게 광동고 학생이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서 112매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21일 동화사 포교국장 미수 스님과 광동고 최상균 교장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 했다.

지난 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직접 찾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인연을 맺은 미수 스님은 올해 다시 들러 신도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장기기증 홍보물을 요청했다. 동화사 포교국장과 말사인 덕암사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은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을 홍보해 지금껏 107명을 추천했다.

최상균 교장은 2006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후 종립학교인 광동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꾸준히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생명나눔운동 동참을 독려해왔다. 최 교장은 명예의 전당 제도가 생긴 올해에만 학생과 교직원 포함 112명을 추천했다.

특히 이번 추천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배 축구리그전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이밖에도 최 교장은 해마다 광동고등학교에서 자비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모은 헌혈증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해 왔다.

제35차 정기이사회 개최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같은 날 법인 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한 이사회는 2013년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생명나눔실천본부 2014년도 사업 목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선도적 역할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후원사업 추진 △환자 치료비 모금 및 지원 △법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상담 치유 활성화를 통한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 예산 15억 5736만 원을 확정했다.

신임 이사로는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동화사 포교국장 미수 스님, 서영석 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기존 이사 중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이 입적했고, 만불회 회주 학성 스님과 이수덕 이사는 개인사유로 사퇴했다.

이나은 기자

영화사,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성금 전달

진관사, 표충사 등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 전해



화평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필리핀 하이옌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구호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영화사(주지 평중, 회주 월주)는 11월 26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필리핀 구호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을 전달한 화평 스님은 “영화사는 매년 소외계층이나 긴급구호 시 지원하고자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들을 위해 종단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영화사 회주 월주 스님을 대신해 뜻을 전했다.

이에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필리핀의 태풍 피해가 컸는데 기금을 신속하게 조달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진관사(주지 계호스님)에서 500만원, 표충사(주지 도훈스님), 영선사에서 각각 100만원 등의 성금을 보내왔으며, 견성암, 강릉 능가사, 강릉 보광사, 선재선원, 강릉 성불사, 송림사, 영선사, 영주암, 남해 용문사, 부산 전법사, 부산 청량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백운암 어린이집 등 전국 곳곳의 사찰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모금에 동참하며 필리핀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긴급재난구호기금 동참은 농협 301-0137-6667-1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또는 전화(02-737-9595)로 가능하다.

이나은 기자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속초노인복지관, 노인부부 웨딩촬영



속초노인복지관은 11월 26일 노인부부 관계 강화 프로그램 ‘9회말 2아웃’ 참가 어르신 10쌍을 모시고 사진촬영을 했다.

신흥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어르신부부를 위한 웨딩촬영을 진행했다.

복지관은 11월 26일 노인부부 관계 강화 프로그램 ‘9회말 2아웃’ 참가 어르신 10쌍을 모시고 사진촬영을 했다.

‘9회말 2아웃’ 은 강원도노인복지계정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정으로 이어오던 노인부부들을 위해 관계 강화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노후생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26일 실시한 4회차 프로그램에서는 속초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웨딩업체에서 웨딩드레스와 궁중혼례복 중에 선택해 웨딩촬영을 실시했다. 웨딩촬영 후, ‘커피나무’ 카페에서 레크리에이션과 황혼서약서 작성 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은 “이번 웨딩촬영을 통해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시간과 결혼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황혼서약서 낭독을 통해 남은 여정을 함께할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9회말 2아웃’ 은 15회에 걸쳐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여어르신에게 수료증, 편지액자 전달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매콤한 행복 함께 나눠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27일 복지관 내에서 종로노인복지관의 매콤한 행복 나누기 ‘고추장 & 김장 담그는 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결혼이주여성, 어린이집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통합자원봉사단 ‘종로&장금이’와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체험 행사를 진행했으며, 복지관 장기이용 회원으로 구성된 ‘종로 마니아’들과 저소득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도 진행했다. 본행사에 앞서 복지관측은 그동안 복지관에서 담근 된장과 김치를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과 결혼이주여성,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박재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한불교조계종 奉寧寺

제2주기 세주당 묘엄명사 추모다례재 봉행
제1회 묘엄불교문화재단 문화대상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

“큰스님께서 일생 동안 가꿔 놓으신 이 도량이 청정승가의 모범으로 길이 남도록 승가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이 도량을 거쳐 간 학인스님들 및 재가불자들이 처처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인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지 자연)

◑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봉녕사 대적광전
◑ 식 순 : 오전 10시 : 사시불공
오전 10시 20분 ~ 10시 50분 : 설정 큰스님 법문
오전 10시 50분 ~ 11시 30분 : 추모다례재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 묘엄불교문화대상 시상 및 세주묘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묘 엄 불 교 문 화 재 단
· 이 사 장 :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용환
· 상임이사 : 봉녕사 주지 자연
· 이 사 진 : 스님들 6명, 재가불자들 5명 (이사장 및 상임이사포함)
· 감 사 : 1명

제1회 묘엄불교문화상 수상자
· 찬불가 작곡가 이찬우 : 지난 50여 년간 청법가를 비롯해 300여 곡의 찬불가를 작곡
· 불교학자 조승미 : 여성과 불교, 여성과 수행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소장학자.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전화 031)256-4127 팩스 031)253-3877

“한번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화두도 지독하게”

일본 하나조노 대학 특강

수불 스님(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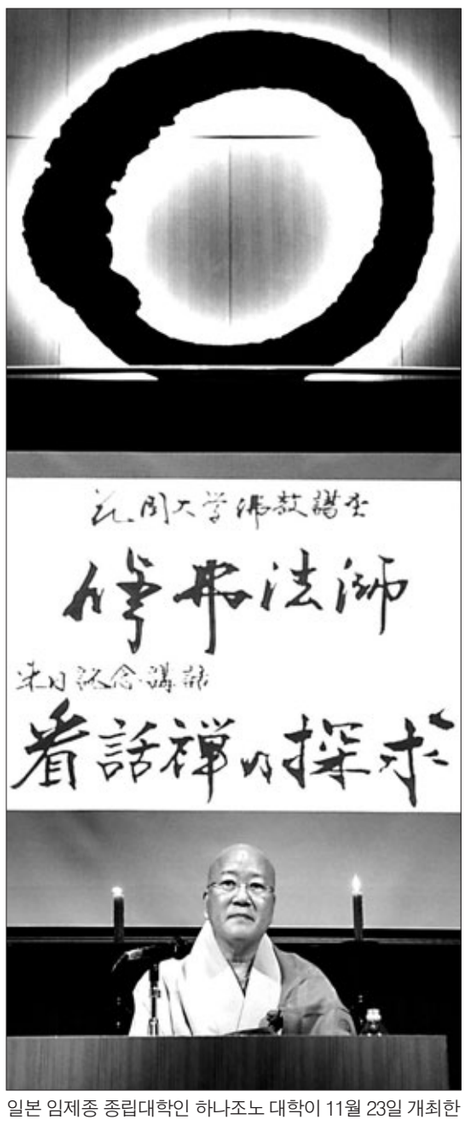
1. 활구(活句) 의심이 걸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공안 상에서 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공안의 낙처(落處)를 알고 싶어서 갑갑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를 들고 공부하려는 의지 속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갑갑함이 점점 커져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활구를 들고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활구가 들려 공부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더라도, 마치 여울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뱃사공처럼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해 밝은 해를 볼록렌즈로 비춰서 불을 얻듯이 초점을 맞춰 집중해야 합니다. 고인들은 이 일을 쥐를 잡으려고 만들어진 물소뿔로 된 덫 속으로 쥐가 먹이를 찾아 들어감에, 꽉 끼어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곳에서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기가 무쇠소의 잔등에 붙어서 주둥이로 계속해서 뚫어서 몸까지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화두를 들자마자 처음부터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물면 이빨이 빠지든 목이 끊어지든 절대로 놓지 않는 사나운 개처럼, 화두를 한 번 들면 일념만년이 되도록 지독한 마음을 가져야 의심을 제대로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치가 이렇기 때문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철두철미하지 않고서는 결국 사구(死句)를 들고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학인은 자신이 활구를 들었는지 사구를 들었는지 스스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눈 밝은 선지식의 점검과 지남(指南)이 요긴한 것이 간화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임제종 종립대학인 하나조노 대학이 11월 23일 개최한 국제선학세미나에서 간화선 특강을 하고 있는 수불 스님. 사진 위 일원상은 임제종 중흥조 하쿠인 선사의 유묵이다.

2. 화두 의심이 의정(疑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참의심이 한 줄기로 꿰어지면, 강력한 정신적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 수 없었던 근본문제와 맞닥트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용맹심을 발해서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온몸으로 그 벽을 향하여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두에 집중하면 할수록 어느덧 화두를 내려놓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때는 화두가 저절로 들리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정 상태가 되면 힘을 쓰지 않아도 화두가 잘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학인에게는 마치 화두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유하면 알약을 한 번 삼키면 약기운이 몸속에 퍼지듯이, 화두 기운이 이미 몸속에 퍼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하던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화두가 힘들이지 않고 잘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번뇌 망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망상을 없애고 공부하려하지 말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내버려두고 화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의정이 동정(動靜) 가운데 하루 종일 흩어지지 않고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이어지는 호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들려진 화두를 잘 호지하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3. 의단독로(疑團獨露)가 되어야 합니다.

화두의심이 의정화 되고, 의정은 마침내 의단독로하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진퇴양난에 빠진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어찌 해볼 도리도 없이 꽉 막힙니다. 마치 독약에 중독된 것처럼 숨통이 막히고, 사방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옥죄어올 것입니다. 송말(宋末) 원초(元初)에 살았던 고봉원묘(高峯原妙) 선사는 〈선요(禪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여 안과 밖이 한 조각이 되게 하여 온종일 털끝만치도 빈틈이 없어서 가슴에 뭉클한 것이 독약에 중독된 것과 같으며 또 금강권(金剛圈)과 율극봉(栗棘蓬)을 삼켜 꼭 내려가게 하려는 것과 같이 하여 평생의 갖은 재주를 다 부려서 분연히 힘쓰면 자연히 깨칠 곳이 있을 것이다.”

금강권은 가슴이 의단으로 꽉 뭉쳐서 온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강한 기운이 사방에서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율극봉은 의단이 뭉쳐서 밤송이처럼 목구멍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목에 걸려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니까, 숨통이 막혀 갑갑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삼킬 수도 없는 밤송이를 삼키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덧 의단만이 홀로 드러나는 경계로 들어갑니다. 꽉 막힌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르러서도 처음부터 해온, 답 찾는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절인연 따라 은산철벽이 무너짐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 “간화선 수행의 단계
> 갑갑함 밀려오며 의심 일어나면
> 저절로 화두 들리는 의정에 들어가
> 목에 걸린 밤송이처럼 의단 뭉쳐진 후
> 시절인연 따라 은산철벽 무너져
>
> 불속에서 연꽃 피는 도리 체득
> 바로 선지식 점검 받아야”



수불 스님이 김영택 화백의 범어사 일주문 펜화를 하나조노대 호소가와 학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스님은 같은 대학 도서관에 〈선문촬요〉 범어사 인경본도 기증했다.

4. 불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

의단이 독로하여 시절인연이 오면 순간적으로 의단을 타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쾌함은 직접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큰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꽉 막혔던 속이 텅 비게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이 새의 깃털보다 가볍고 앞뒤가 툭 터져 한없이 시원해집니다.

화두가 타파되면, 마치 소나기가 내린 뒤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몽땅 드러나듯 확연한 것이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공부상의 인연들이 드러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불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곧바로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흐름에 맡겨 세월을 잘 보내야 합니다. 늘 부끄러움을 아는 수행자로서 자세를 낮추고 정진하다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일본 하나조노 대학 특강 현장

“東國大·花園大 서로 거울되자”

하나조노大 국제선학세미나 초청
수불 스님 ‘간화선 탐구’ 특강에
100여명 청중 몰려…호응 관심 커

동국대학교는 일본 교토 하나조노(花園)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일본 임제종 종립대학인 하나조노 대학의 국제선학연구소는 2013년 국제선학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올해의 특별행사로 ‘간화선의 탐구’ 특강을 기획하고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인 수불스님을 초청하였다. 하나조노 대학은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서옹스님께서 유학하신 대학으로,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가 일본사회에 임제선을 구현하기 위해 1872년에 세운 대학이다. 묘심사파는 교토 5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본산으로, 일본 전국 6,000여개 임제종 사찰 중에서 3,500여개 사찰을 말사로 두고 있다. 서옹스님은 동국대학교 초대 선원장을 지내셨는데, 그 인연이 이어져 이번에 하나조노 대학은 현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인 수불스님을 초청한 것이다.

특강이 열린 하나조노 대학 교당에는 정면에 일본 임제종 중흥조인 하쿠인(白隱) 선사가 그린 일원상이 높이 걸려있었다. 호소가와 게이츄 학장, 요시다 에이레이 불교학과장을 비롯한 많은 선학자들,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 그리고 신문과 벽보를 보고 찾아온 교토시민 등 100여 명의 청중들은 진지하고도 뜨거운 열기로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는 수불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통역은 조선불교를 전공한 한국통인 나카지마 시로 교수가 맡았다.

수불스님은 먼저 인사말에서 임제종의 전통을 강조했다. “우리 동국대학교와 일본 하나조노 대학교는 유사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설립된 명문 사학입니다. 특히 양교 모두 임제종의 전통을 잇고 있는 대학교라는 점에서, 오늘의 행사는 법형제로서 서로 법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과 대화를 통해 양교가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국과 일본의 불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특히 일본 학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한국불교 간화선 수행법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하여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장장 3시간에 걸친 특강과 질의응답이 끝나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였다. 수불스님은 특강 후 범어사 목판본 〈선문촬요〉를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특강이 끝나고 학과장 요시다 스님은 수불스님과 그 일행을 특별히 인근의 묘심사파 정식선원인 ‘금모굴(金毛窟)’로 안내하였다. 이 선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수좌들은 12세기 일본 임제종 개조 에이사이(榮西)가 들여온 송대 수행전통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선방에는 혹한 등에 대비한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고 먹거리도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해결한다.



묘심사파 선원 금모굴은 12세기 수행전통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선방에는 혹한 등에 대비한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고 먹거리도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해결한다.

> 수행전통 유지하는 금모굴 방문 등
> 양국간 임제종 전통 이해하며
> 상호 유대의 장 마련

통을 엄격히 유지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선방은 혹한이나 혹서에 대비한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출입문과 창문도 없이 자연에 그대로 개방되어 있었다. 공양간이나 해우소도 수백년 된 전통 그대로 운영되었고, 먹거리도 수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해결하고 있었다.

이어 묘심사 개산당(開山堂)과 방장(方丈) 그리고 탑묘(암자)를 둘러보면서, 한일 양국의 수선(修禪) 학자들은 일본 특유의 선원 정원인 가레산스이(枯山水) 정원에서 말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마침 단풍철을 맞이하여 흰 자갈 위에 점점이 떨어진 붉은 단풍잎을 바라보면서, 일행은 준엄하고도 간명직절 하게 본지풍광을 드러내는 임제가풍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호이해의 귀중한 장(場)을 마련하였다. 양교는 앞으로도 깊은 유대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김홍근 박사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근현대 불교학자 재조명 시작

한국불교학회, 12월 6일 첫 세미나 '고익진 학문세계'

근현대 불교학 발전을 위해 매진한 학자들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12월 6일 오후 12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현대 한국불교학자의 삶과 학문 재조명 제1차 세미나 – 병고 고익진의 학문세계'를 개최한다.

고익진 선생 입적 25주기를 기해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한국불교학이 자리잡기까지 노력해 온 근현대 불교학자들의 활동과 사상을 되짚는 첫 행사다.

첫 세미나 대상으로 선정된 병고 고익진 선생은 전남대 의대 재학 중 심내막염이 발병해 투병생활 중 광륵사에서 불교를 접하고 불교학자의 길을 걸은 이다.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를 지내며 1981년 자신의 자택을 수행공간으로 개방하고 학생들과 수행공동체 일승보살회를 이뤄 이론과 실천이 함께하는 후학양성에 나섰다. 당시 학생으로 고익진 선생의 지도를 받은 이중표, 최봉수, 안성두 조은수, 이혜숙, 박경준, 우제선 교수 등은 현재 불교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익진 선생은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한국불교학계에 니까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불교 사상사를 천착했으며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으로서 〈한국불교전서〉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학계 '초기불교' 이론 제시한 선구자
자택 수행공간 구성, 일승보살회 창립
이론과 수행 함께 하는 교육법 펼쳐
〈한국불교전서〉 편찬 앞장, 88년 입적

이날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 정하경 일승보살회 회장은 "선생님은 자택을 학생들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열린 수행공간으로 제공해 불교학 저변을 넓혔다"며 "불교학이 튼튼하려면 먼저 아함경에 기초한 체계적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선생님의 당부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첫 세미나에서 '고익진의 삶과 학문세계'를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는 "고익진은 197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해 초기불교 연구에 불길을 당긴 현대불교학의 선각자로, 한국불교 사상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한 대표적인 불교학자로, 새로운 이념으로 결사를 펼친 이 시대의 실천적 불교운동가, 학문과 수행을 온전히 갖춘 스승이자 재가불자로 등 여러 모습으로 남아있다"며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지눌이 한국불교에 불멸의 빛을 밝힌 것처럼, 그의 삶이 또한 그러하였다"고 평가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학회장은 "현대 한국불교학 연구의 선각자들의 학문세계에 대한 탐색작업은 후학들이 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한국불교학자들의 학문세계를 살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봉춘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중표 전남대 교수의 '초기불교와 아함경 연구', 김영일 동국대 외래교수의 '한국불교사상과 원효연구',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한국불교전서 편찬과 과제'가 발표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병고 고익진 선생은?



1934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익진 선생은 1954년 전남대 의대 재학 중 심내막염이 발병한다. 5년간 입원생활 후 광륵사 요양 중 불교에 입문해 1965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에 입학한다. 1969년 동국대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74년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를 수료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으로 전서 편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1년 일승보살회를 창립했으며 1983년 불교학과 조교수, 1986년 부교수로 부임한다. 1988년 지병이 악화돼 이해 10월 입적했다.

전법학술상 대상 원빈 스님 '소셜네트워크 전법'

불광연구원 11월 27일 제2회 전법학 수상자 발표
우수상에 해외 부문 신설, 렉쉬 쏘모 스님 선정
국내 우수상은 백도수 박사 '붓다의 비유전법'

불광연구원이 전법 교화 활성화를 위해 수상하는 전법학술상 대상에 원빈 스님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법교화 모형 연구'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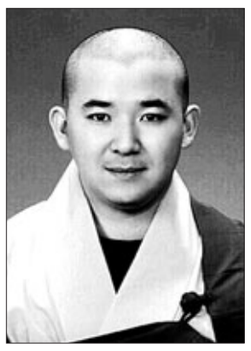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회 전법학술상 바라밀상(대상)에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의 원빈 스님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상인 전법상에는 전 동국대 강사 백도수 박사와 미국 샌디에고주립대학 교수 까르마 렉쉬 쏘모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전법학술상에는 국내 논문 9편, 국외 논문 4편 등 총 13편의 논문이 응모됐다. 제1회 전법학술상 응모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치열한 경쟁과 심사를 거쳐 대상에 선정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법교화 모형 연구'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법교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주제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저자 스스로가 페이스북과 팟캐스트 등 다양한 전법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법상을 수상한 백도수 박사의 '붓다의 비유전법에 대한 고찰–초기불전의 직유전법을 중심으로'는 붓다의 설법이 담고 있는 비유의 구조와 방법, 붓다가 사용한 비유설법의 내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 논문이다. 백 박사는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설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전법과정에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원빈 스님



까르마 렉쉬 쏘모 스님



백도수 박사

까라마 렉쉬 쏘모 스님의 '깨달음의 교차로–여성과 불교 다국적주의'는 불교와 성평등, 불교적 젠더문제를 심도 깊게 다뤘다.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장을 역임한 쏘모 스님은 논문에서 불교사에는 불교 발전에 공헌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기록이 공식문헌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쏘모 스님은 또 여성들의 종속적 위치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불평등한 교육기회, 승가 내 권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쏘모 스님은 논문에서 양성평등 사회로 가고 있는 현대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종교조직들은 결국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법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는 12월 8일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열리는 일요법회에서 진행된다. 바라밀상은 500만원, 전법상은 각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반야학술상'에 이태승 교수 · 송재근 박사



이태승 교수



송재근 박사

제3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와 송재근 박사(창원대 철학과)가 선정됐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곽만연, 박문현)와 반야학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지안)가 주관해 시상하는 반야학술상은 불교학의 발전과 동아시아 불교의 국제간, 학제간 연구를 주도할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격려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태승 교수는 〈샨타라크쉬타의 중관사상〉을 출간해 저역상에, 송재근 박사는 학술지 〈동아시아불교문화〉에 실린 논문 '친란(親鸞) 정토교(淨土敎)에 있어서 계율(戒律)의 문제'로 논문상에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12시 김해 바라밀 선원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불교紙花 보존 · 지원에 한 목소리

영산재와 수륙재 등 각종 불교의례에 사용돼 온 불교 장엄지화의 전승에 불교계 관심을 호소하는 학술세미나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연등회보존위원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지화장엄의 세계와 전승현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지화를 비롯한 불교민속문화 관련 학자와 스님, 장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양종승 무속 박물관장은 "최근 생화산업의 발달로 지화장인이 급격이 줄어들었다"며 "불교 유무형 문화재들의 제대로된 전승을 위해서라도 지화장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현모 한남대 교수와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정명 스님은 지화를 현대적 감각의 예술작품이나 문화상품으로 재창조하는 방안과 전통방식의 지화제작법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덕현 기자

"신라 대표 삼존불상 돈황에서 유래됐다"

문명대 교수, 불교미술교류 학술대회서 강조

"신라 삼화령 미륵불의상은 중국 서북 일대의 북주 미륵불의상에서 유래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1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돈황석굴의 불교미술과 한국 고대 불교미술의 교류' 학술대회에서 삼국시대 석불상 중 최고로 꼽히는 신라 삼화령 미륵불상이 수나라 돈황석굴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삼국시대 석불상 가운데 최고의 불상으로 주목받는 삼화령 미륵세존의 아기형의 형태와 천의자락의 특징을 410굴 미륵불의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며 "북주·수대의 보살상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문 교수가 유래됐음을 밝힌 돈황 410굴 미륵불의상은 수나라 돈황석굴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현재 경주박물관 불상실 남벽에 있는 신라 삼화령 미륵불상의 경우 6세기 말과 7세기 전반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원각의 삼존불의상으로는 신라 유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끝으로 문명대 교수는 "돈황석굴의 불교미술과 우리나라 불교미술과의 관계를 좀 더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감사원, 11월 27일 문화재 실태 감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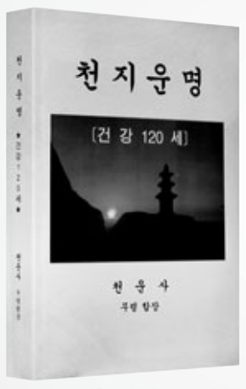
감사원이 문화재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11월 27일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통상적으로 1주일간 진행되며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감사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예비조사 대상에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국보 제1호 숭례문, 균열이 발견된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일부 경판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진 국보 제32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문화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숭례문 부실복원 등의 논란이 일자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문화재 부실 관리에 대한 엄중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20페이지 정가 120,000원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께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호남포교 히트작 '어린이청소년 생태프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2013년 결산 한마당 개최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정기총회 및 회원한마당' 행사를 열고 올 한 해를 결산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1월 23일 사찰음식전문 수자타 3층에서 올 한해를 결산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150여 명의 불교환경지기들이 가득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 중점사업으로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지장, 동원사 주지)을 통해 올해 다양한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 생태학교, 자따마따(자연따라 마음따라) 1박2일 캠프,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재문화역사탐방 등은 총 600여 학생들이 동참하는 등 지역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중 어린이 생태학교는 5월 25~26일 영암 도갑사, 월출산국립공원에 51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리산 화엄사, 부안 내소사 등에서 실시해 16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불교문화재와 자연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8월 2~4일까지 지리산 화엄사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생태학교, 생태학교에는 16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불교문화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자따마따' 캠프 등 진행
600여 학생 참여 '인기'
청소년 포교 대안 기대

올 해에만 전체 6회가 진행된 '자따마따 1박2일' 은 김제 금산사, 남원 실상사, 순천 송광사, 완도 신흥사, 진도 쌍계사 등에서 실시해 전체 300명의 초등학생들 참여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찰체험, 문화재탐방, 공동체 놀이 등이 진행돼 아이들에게 불교와 역사, 공동체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불교환경연대의 이러한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은 향후 다른 불교단체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악한 호남 유소년계층의 포교상황에 비춰보면 불교단체의 어린이 · 청소년프로그램은 호남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법일 스님, 행법 스님, 효진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총무), 정범 스님(서울 불교환경연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정길 6 · 15공동위원회 대표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석해 축하의 자리로 마련됐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며 "수고해준 환경식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1부 창립총회에 이어 저녁공양, 회원한마당이 펼쳐졌다. 가수 노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회원한마당에는 한윤희(광주여성센터) 사무국장의 오카리나 연주, 집행위원들의 개사곡 무조건과 은하철도 999, 나무숲 자원활동가의 노래와 율동 등이 진행됐다. 특히 김희용 · 김용성 목사와 승묵 스님의 중창음악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올해 나무숲의 어린이 · 청소년 사업 외에도 ▷회원사업으로 1080회원 배가운동, 밝은마음초록세상 대중공양, 산애들애(생태문화기행), 보리수아래(독서토론모임)과 ▷회향사업은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쌀 나누기, 망월동구묘역 작은음악회, 연꽃등만들기 ▷연대사업 5.18민중항쟁 추모법회 등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사 석탑 100년만에 복원 착수

26일 착수식 개최, 2016년 8월 경 복원 완료예정


현존하는 석탑 가운데엔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큰 미륵사지 석탑이 11월 26일 11년간의 해체 작업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복원 착수식에서 육중한 무게의 심초석을 제자리에 맞추는 장면.

전라북도와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11월 26일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 현장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 착수식 및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 을 개최했다.

이날 복원 착수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성우 스님, 숭림사 지광 스님, 관음사 덕림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박성일 전북행정부지사, 최종덕 문화재청 정책국장, 채병선 문화재 연구소장, 이한수 익산 시장, 이택회 익산불교신도회장 등 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덕사 만공 대선사 열반 67주기 다례


이날 만공기념관에서 수덕사 학인 스님 4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만공기념회는 만공 스님의 탄신다례와 열반다례에 맞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학인스님들에게 만공장학금을 수여해 학업증진을 후원하고 있다.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는 11월 22일 정혜사 능인선원 등에서 '만공대선사 열반 67주기 다례재 및 만공장학금 수여식' 을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주지 지운 스님, 우송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만공 스님은 한암 스님과 더불어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승"이라며 "만공 선사의 '세계일화(世界一花)' 정신을 이어받아 자리이타의 보살행으로 나와 남이 구별없는 하나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만공기념회 이사장 응산 스님은

노덕현 기자

고창사회복지관, '위풍당당 장수나눔잔치'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은 11월 26일 고창군 관내 11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위풍당당! 장수나눔잔치' 를 진행했다.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은 11월 26일 고창군 관내 11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위풍당당! 장수나눔잔치' 를 진행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준비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문화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인사가 진행됐으며, 모범경로당 시상으로는 대성동여자경로당(고창읍), 동부리여자경로당(고창읍), 고수남자경로당(고수면)이 선정됐다.

도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선양을 위하여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복지관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신림가평초등학교' 아동들의 다양한 댄스 축하공연과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들은 연신 어깨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이 보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서원복지관, 2013 서원축제 개최



서원노인복지관이 개최한 축제에는 1500여 지역민들이 모여 함께 한지등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이 지역주민, 어르신,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를 열었다. 서원복지관은 11월 20~ 21일 이틀간 '서원인, 오색 빛에 반하다!' 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서원노인복지관의 모습을 통해 복지관 구성원들의 화합의 장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물하고 나아가 발전적인 복지관의 모습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축제기간동안 연인원 1500여 명이 동참해 함께 축제를 즐겼다.

빛과 색의 주제에 맞게 풍선과 오색등으로 치유가 되는 색, 빛을 품은 사람, 빛으로 밝힌 길을 주요테마로 복지관 전체가 장식된 이번 축제는 한지등 만들기, 손수건 프린팅, 오색빛깔 소원쓰기, 오색팔찌만들기의 프로그램과 사진전, 서예작품전, 복지관 어르신들의 작품발표회 등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성우 스님은 "어르신들의 큰 잔치 한마당이 성황을 이루기 바라며 서원복지관의 축제가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인드라망, 인권강좌 마련

지역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돼 화제다.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대표 이중표, 전남대 교수)는 11월 29일 광주 선덕사에서 '밤실마을 인권씨앗뿌리기' 마지막 강연을 개최했다.

10월부터 2달간 8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씨앗뿌리기' 의 마지막 강연에는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들의 인권 현황을 발표했으며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최완욱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한낱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김규항 어린이잡지 '고래가 그랬어'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이소영 간사는 "이번 강좌는 인권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기초작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비슬산에 전해진 "지혜와 자비"

동화사, 24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및 친견법회


11월 24일 동화사에서 봉행된 진신사리 이운 및 친견법회에서 주지 성문 스님 등이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

스리랑카 사원서 1과 기증받아
"한-스 불교 교류의 장 발돋움"
내년 대견사 완공되면 봉안 예정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신사리가 한국 대구 동화사로 이운됐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성문)은 11월 24일 스리랑카 반다라웰라 쿠루쿠데(Kurukude) 사원에 있던 진신사리 1과를 동화사 통일대불전으로 이운하는 행사와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스리랑카 국립대학 등이 발간한 문헌에 따르면 이 진신사리는 기원후 103년부터 도와 사찰에서 보관해오다가 1881년부터 쿠루쿠데 사찰에 있었다. 동화사는 지난 6월부터 스리랑카 정부와 진신사리 기증을 협의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날 이운법요식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스리랑카에 전해져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대구 비슬산 대견사에 봉안케 된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비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우호협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인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쿠루쿠데사원 지난다나 스님은 "1000년의 역사와 함께 중창되는 대견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심을 스리랑카 국민과 한국인이 함께 기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신사리 이운을 위해 방한한 30여 명의 스리랑카 스님들은 11월 22일 동화사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진제 스님은 "수행과 신행의 중심인 팔공총림 동화사는 부처님 정법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찰"이라며 동화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동화사에 안치된 부처님 진신사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현재 중창 중인 대구 달성군 비슬산의 대견사다.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인 대견사에 봉안되기 때문이다.

대견사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이 주석했던 유서 깊은 고찰이었지만 '대마도의 기를 누르는 절' 이라는 이유로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사됐다. 현재는 대구불교계와 달성군이 업무협약을 맺고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창되는 대견사의 규모는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선당, 산신각, 요사채 등 4개 동으로 연면적은 186㎡(56평)이고 사업비는 50억 원이다.

현재 대견사지 삼층석탑은 1988년 복원돼 1994년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 대견사지 시굴조사를 통해 6개동 72평에서 유구 37점을 수습했다

한편, 대견사가 있는 비슬산은 불교에서 수용된 고대 인도 힌두 신으로 비슈누(VISNU)를 한자어로 음역한 '비슬노(毘瑟怒)' 에서 유래한 말로 거문고를 뜻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골마을 절에 불자 밴드 결성 '화제'

청량사 둥근 소리 · 꼬마풍경 창단
안동청소년문화센터서 첫 무대

첩첩산중 시골마을 절에 불자 밴드가 결성돼 화제다.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 성인 7인조 밴드 둥근소리와 어린이 4인조 밴드 꼬마풍경을 창단, 11월 24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첫 데뷔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7월부터 구성된 이들 밴드는 안동에 전용 연습실을 마련하고 꾸준히 연습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창단식 겸 데뷔무대를 갖게 된 것이다.

30대 남녀로 구성된 7인조 둥근소리 밴드는 드럼 (김경태), 기타 (서보태 · 김명교), 베이스 기타 (성일국), 건반 (윤은정 · 유지영), 싱어 (권해숙)으로 구성됐다. 청량사 꼬마풍경 밴드는 드럼(서민경), 기타(김혜빈 · 안지은), 건반(권다빈)으로 초등고학년을 위주로 멤버가 이루어졌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안동에 있는 연습실에서 늘 연습을 하고 있다"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둥근소리와 꼬마풍경 11월 24일 창단식 장면.

나가 청량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지역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생명존중 세미나



삼광사에서 열린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생명존중 세미나 장면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회장 무원)는 천태종 삼광사에서 '생명경시풍조개선을 위한 생명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11월 26일 부산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생명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죄의식 없는 낙태와 유명연예인의 자살, 무분별한 자살사이트 등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의 역할과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오흥숙 생명의 전화 원장이 토론자에는 이동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장병윤 국제신문사 논설 고문 등이 참여해 각 종교의 인간존중, 생명 중심의 윤리를 조명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회장 무원 스님은 "생명의 가치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해하고, 종교계는 심성의 승화를 위한 진심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백련불교 문화재단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성철 스님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이 시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고은 시인의 강연회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부산불교방송 공동 주최로 11월 2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 된 이번 강연회는 '선시에서의 성철 게송(偈頌)' 을 주제로 성철 스님의 게송을 비롯해 현대 고승들의 게송을 고은 시인이 직접 시문학적인 관점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은 고은 시인 강연에 이어 12월 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초청, 두 번째 명사 강연회도 열 계획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푸른색 나무를 겨울에도 볼 수 있길

어제까지만 해도 곱게 물들었던 절 마당의 노란색 은행나무 잎이랑 빨간색 단풍나무 잎, 갈색의 느티나무 잎이 밤새 불었던 강풍에 모두 떨어져버렸다. 스님과 몇몇 불자들이 비질을 해서 떨어진 단풍잎을 치우느라 한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져 버렸다.

봄에 연녹색 잎이 나면서부터 암녹색으로 색을 바꾸던 낙엽활엽수들은 가을이 되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러한 낙엽활엽수들의 화려한 변화는 날이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면서 멈추고 만다.

낙엽활엽수들이 잎을 떨어뜨리는 계절이 되면 일 년 내내 변화가 없이 푸른색만 보였던 상록수들이 귀한 몸이 된다. 특히 소나무와 같은 상록침엽수들은 겨울철에도 변함없이 푸른색을 잃지 않아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양양의 낙산사에 불이 났을 때 절 주변의 소나무들이 불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많은 절에서 건물주변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베어버렸다. 산사에서 소나무는 별개의 존재로 생각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였지만 그 이후 건물 주변 일정거리에서는 소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졌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록침엽수이지만 나무 중에서는 불에 견디는 힘이 가장 약하고 송진이 불을 크게 일으켜 피해범위를 넓게 만든다. 소나무보다는 덜하지만 편백이나 화백 또는 주목과 같은 상록침엽수 역시 활엽수에 비해서 불에 약한 편이다. 불에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한 나무는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 팔손이나무, 사철나무와 같은 상록활엽수인데, 이들은 잎이 크고 두꺼워 수분을 다량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불에 잘 견디는 것이다. 낙엽활엽수도 나무에 따라서 불에 잘 견디는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지만 상록침엽수에 비해서는 내화력이 강하다.

사찰의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건물주변의 소나무들을 제거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겨울철 사찰의 경관은 삭막해져버렸다. 그렇다고 상록침엽수를 대신할 수 있는 상록활엽수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점차 온난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록활엽수들의 내한성이 커져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철에 푸른색을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무들을 사찰에 심어 사찰에서 예전의 활기찬 겨울분위기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화재를 막기 위해 건물 주변의 소나무를 제거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푸른색이 없는 산사의 겨울은 삭막하기만 하다. 경기도 ㄱ사찰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출간즉시 베스트셀러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희망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그동안 니까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재가자들도 편하게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경전 내용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물로 초기경전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경전 구절 몇 가지를 추리고 설명을 보태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초기경전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 노릇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엮었으며, 부디 많은 사람들이 초기경전 니까야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_서문 중에서

이미령 지음 | 248쪽 | 13,000원

이미령 1964년 강원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故) 고익진 교수의 법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관련 강의와 칼럼 집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역경 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교육원에서 전임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밖에 BBS 〈무명을 밝히고-보리살타의 서재〉, YTN 〈지식카페 라디오 복클럽〉을 진행하는 등 복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기도하기 좋은 지장도량 - 완주 송광사


4대 지장기도 도량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7년(867)에 보조체징 선사가 창건한 선종의 대표적 사찰이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지장보살님"

일주문 앞이 어수선하다. 거센 겨울바람에 쓸려온 낙엽들이 어지럽게 들락거리고, 요란한 풍경(風磬) 소리가 들려온다. 봄날 이었다면 연분홍의 꽃비를 맞으며 걸었을 벚나무 길을 꽃비 대신 칼바람을 맞으며 걷고 나자 일주문 하나가 나타났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종남산 송광사다. 서산 개심사, 철원 심원사, 고창 선운사와 함께 4대 지장도량으로 불리는 도량이다.

송광에 가면

송광사의 일주문은 깊은 산길의 끝에서 만나는 일주문이 아니다. 고개만 조금 들면 보이고, 발만 조금 떼면 건너갈 수 있는 '옆집'의 대문이다. 마을의 여러 대문 중의 하나처럼 보였다. 송광사 일주문엔 흔치 않게 여닫는 문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열고 닫기' 위한 문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법당문 같다. 닫혔어도 열린 문일 테고, 열렸어도 닫힌 문일 문이었다. 법당에 드는 마음으로 일주문 안으로 들었다. 그래도 성불하지 못한 중생에게 '경계'는 경계였다. 문은 문이었다. 한 발짝 안에 '문'이 있었다.

산문 밖에서 찬바람에 휩쓸리던 낙엽들이 산문 안으로 쓸려오고, 산문에 들었던 낙엽들이 산문 밖으로 쓸려 나간다. 다시 찬바람이 요란하게 일자 산문 밖에서 들었던 풍경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쓸려 들어오고 쓸려 나가는 낙엽들과 안과 밖이 한 가지인 풍경소리가 조금 전 한 발짝 안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정체를 궁금하게 했다.

일주문을 지나자 금강문이다. 금강문은 인왕문(仁王門)이라고도 부른다. 양쪽에는 손으로 권법을 짓거나 금강저 또는 칼, 창을 손에 든 금강역사를 모셨다. 금강과 같은 단단한 지혜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뜻의 문이다.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문이다. 앞서간 발자국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문을 지나면 천왕문이다. 천왕문에 모신 소조사천왕상(보물 제1255호)은 조선 인조 2년(1624)에 만든 것으로, 흙으로 빚은 사천왕상 중 가장 오래 되었다.

천왕문을 지나면 대웅전(보물 제1243호)이 보인다. 대웅전은 조선 인조 14년(1636)에 벽암국사가 짓고, 철종 8년(1857)에 제봉선사가 불사를 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여래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우측에 아미타부처님, 좌측에 약사부처님을 각각 소조(흙으로 빚어)로 모셨다. 전각 안에 모셔진 부처님으로서는 규모가 매우 크다.


지장전에 모신 지장보살상


4대 지장도량인 송광사 전경

송광사의 역사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7년(867)에 보조체징 선사가 창건한 선종의 대표적 사찰이다. 옛 이름은 백련사였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송광사로 바꾸었다. 가람의 규모가 방대하여 일주문이 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폐찰이 되었다가 광해군 14년(1622)에 중창을 시작하여 인조 때 회향했다. 인조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의 무사 환국과 국난의 아픔을 불력으로 치유하고자 호국원찰로 삼았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 승병 대장인 벽암각성 대사와 160여 명의 승려를 머물게 하여 거국적인 복원불사를 이루고 불사 후 선종대가람사라는 사호를 내렸다. 송광사는 석가화현이라고 불린 진묵대선사가 오래 주석하면서 많은 이적을 보인 곳이며, 국가위난이나 기도감응시에는 대웅전, 나한전, 지장전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한다.

대웅전 옆으로 지장전과 나한전이 있다. 마당 한편에는 아(亞)자 형 종각이 있다.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제도되면 그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지장보살이 석가모니부처님 앞에서 서원했다.

송광사는 지장도량이다. 지장전에 10왕과 함께 지장보살을 모셨다. 지장보살은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아 늘 중생의 근기를 살피며, 석가여래가 입멸한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특히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 모두가 빠짐없이 성불하기 전에는 자신도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의 성불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장보살은 사실상 성불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생들이 지장보살에 기대는 이유는 다른 보살들에 의지하는 이유와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 지장보살이 다른 보살과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전생의 업에 의해 윤회한다. 누구든지 업보에 의한 과보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교의 업보사상이 지장보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장보살은 정해진 업보도 모두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에게 귀의하면 악도를 벗어나 천상락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장보살의 자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일어났다. 특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후손들에 의해서 지장보살은 널리 신봉되었다. 즉 현실의 죄나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로서는 관음보살이 으뜸이라면, 죽은 뒤의 육도윤회나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구제해 주는 것에는 지장보살이 으뜸인 것이다.

지장전 안으로 햇살이 스며든다. 매서운 칼바람도 요란하게 들려오던 풍경소리도 이리저리 휩쓸려다니던 낙엽들의 모습도 아득히 멀어져 간다. 지장보살의 안쓰러운 시선 끝에 누군가 앉아 있다. 지장보살, 언젠가는 그의 앞에 서야 하리.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의 앞에 서야 하리.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서원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서야 하리. 송광사가 아니더라도 지장보살 앞에 설 일이 있다면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앉았던 빈자리에 다시 보살의 시선이 머문다. 지장보살이 지키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조금 전 지장보살 앞에 앉았던 이는 지옥문을 보고 간 것일까. 칼바람이 지장전 문살을 흔들어댄다.

다시 일주문이다. 여전히 어수선하다.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보살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 찬바람에 뒹구는 낙엽과 요란한 풍경소리만이 다가온다. 지옥문 앞을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중생의 경계는 어쩔 수 없다. **완주 송광사=박재완 기자**

주변보기

〈사찰〉

▲**위봉사**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1번지 / (063)-243-7657

위봉사는 추줄산에 자리하고 있는 고찰이다. 고려 말 나옹 스님께서 중건하시고 조선 세조때는 선석, 석잠 두 스님이 중수했으며, 조선시대 말엽 포련대사의 중수가 있었다. 1912년에는 전국 31본산 중의 하나로 전북 일원의 50여 말사를 관할하기도 했으나 해방 후 6.25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퇴락했다. 폐사 직전인 1988년 현재의 주지 법중 스님이 도량정비를 시작하여 퇴락한 보광명전과 관음전을 보수하고 100여칸의 불사를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전북을 대표하는 비구니 선원이자 포교의 전당으로 그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열고 있다.

〈가볼만한 곳〉

▲**대둔산** /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34

금남정맥 줄기가 만경평야를 굽어보면서 솟구쳐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대둔산은 한듬산을 한자화한 이름으로 한은 크다는 뜻이며 듬은 두메, 더미 덩이의 뜻을 일러 큰두메산, 큰덩이의 산을 뜻하나 이제는 사시사철 등산객이 붐비는 도립공원으로 변해있다. 우뚝 솟은 봉우리마다 독특한 형상이 담긴 대둔산은 잘 다듬어진 조각품에 분재의 군락을 보는 것 같은 수석의 보고이다. 올려보든 내려보든 시선이 멈추는 곳은 모두가 아름답고 좌우로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웅장해서 입을 벌린 채 산수화 병풍 속에 온 마음을 정좌하게 되는 곳이 대둔산이다. 흙보다는 돌멩이가 많은 산, 돌고 돌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기보다는 가파른 비탈길이 심한 곳이다. 이래서 대둔산을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격찬한다.

▲**고산자연휴양림** / 완주군 고산면 휴양림로 246번지 / (063)263-8680

고산면 오산리에 위치한 고산자연휴양림은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가족휴양지다.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등이 빽빽이 들어선 조림지와 활엽수, 기암절벽 등이 어우러져 호젓한 휴식을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봄에는 철쭉, 산벚과 같은 각종 야생화가 만발하여 꽃의 제전을 펼치는가 하면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이 무더위를 식혀준다. 가을에는 온 산을 덮은 단풍들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겨울에는 설경이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다.

〈숙박〉

-거인산촌생태마을펜션 /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430 / 063-245-6611

송광사 부근에는 숙박시설이 별로 없다. 약 30분 거리에 있는 전주 시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식당〉

-몽펠리에 레스토랑 / (063) 254-6300
-송광순두부 / (063) 244-7445 순두부 요리
-송광산장 / (063) 243-8154 묵은지매운탕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 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불교와 미학

오이디푸스와 아사세

한계 자각 못한 지식은 파멸 가져올 뿐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은 빈비사라왕과 왕비 위제희 부인,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아사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왕사성의 비극을 배경으로 청정한 땅, 정토로의 구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고 있다.

아사세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 이라는 소재 때문에 일찍부터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과의 유사성이 주목되었으며,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에서 착안한 '아사세 콤플렉스' 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정신분석학은 두 이야기의 '부친살해' 와 '근친상간' , 또는 '모친살해' 에 주목하고 있지만,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은 무엇보다 인간의 앎과 그 앎에 의해 초래된 비극이다.





프랑스 루앙 박물관에 소장된 샤를 프랑수아 질라베르의 1824년 作 '오이디푸스왕과 안티고네' 〈사진 왼쪽〉와 일본 후지현 서복사에 소장된 고려 후기불화 '관경서분변상도' 〈사진 오른쪽〉. 두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친족살해' 등 자극적인 소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앎의 비극' 에 대한 메시지다.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 왕〉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딧세이아〉에서 가져온 신화를 토대로 하였지만 오이디푸스의 개인의 비극적 운명과 신탁의 필연성, 그리고 인간 지식의 한계를 비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미래에 태어날 아들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유사한 오이디푸스·아사세 설화
세간은 '친족 살해' 주목하지만
'앎의 비극' 메시지 귀 기울여야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 신탁의 내용이 실현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기를 불쌍히 여긴 신하에 의해 오이디푸스는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인도되고, 왕가에 입양되어 왕자로 성장한다.

양부모를 친부모라고 알았던 오이디푸스는 성장한 후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알고는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난다. 테베로 가는 길에서 사소한 시비로 한 남자를 살해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채 자신의 고향 테베로 들어간다. 그 때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 즉 오이디푸스의 생모는 테베를 어지럽히는 반인반수의 괴물 스핑크스를 죽이는 자가 나타나면 그와 결혼하여 왕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친어머니인 왕비와 결혼하여 두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으나 어느 날 역병과 가뭄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신탁을 묻는다.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와 결혼한 악한이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악한이 누구인지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왕비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파내고 방랑길에 오른다.

'지식은 곧 권력이다' 라는 베이컨의 말처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에게 권력을 가져다준 원천은 바로 지식이다. 오이디푸스는 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을 통해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왕으로서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했다. 20년이 지난 후, 다시 위기에 처한 테베를 구하기 위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할 때에도 그는 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고 듣고 추리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에 의존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현명한 왕은 그가 정말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 바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인간' 이라는 자기인식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수수께끼,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악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역시 오이디푸스 자신을 향하는 질문이었다. 테베의 불행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근친살해와 근친혼을 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결과 한때는 자신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 지식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남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테베를 위기에서 구하여 왕이 되도록 한 지식의 추구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맹목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각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파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단죄한다.

〈관무량수경〉 서분의 이야기는 아들인 아사세보다 어머니인 위제희 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왕사성의 비극의 중심은 아사세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자기 운명에 대한 아사세의 앎이 비극의 첫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늦도록 아들이 없었던 빈바사라왕은 비프라 산에서 수행하는 선인이 3년 뒤에 왕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어느 점성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급한 마음에서 사람을 시켜 선인을 죽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위제희 부인은 태기를 느낀다. 왕자가 태어난 후, 아이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관상가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왕은 높은 누각에서 갓난아이를 떨어뜨리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솜이불을 누각 밑에 쌓아둔 위제희 부인의 모성애와 지혜 덕분에 살아난 아이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빈비사라왕과 위제희 부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그 아이가 바로 아사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죽이려한 부왕의 비밀을 알게 된 아사세는 원한에 가득 차서 왕위를 찬탈하고 부왕을 깊은 궁전에 유폐시킨다. 유일하게 면회가 허락된 위제희 부인은 몸에 꿀 반죽을 바르고 매일 왕을 찾아갔다. 왕비의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한 왕은 기사굴산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기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목련존자에게 팔계를 받고 부루나존자의 설법을 들은 왕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으나 그 사실에 대노한 아사세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월광과 기파의 간언으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위제희 부인은 궁궐에 유폐된 이후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청했다. 그 간절한 염원에 응하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위제희 부인 앞에 나타나셔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한편, 아버지를 죽인 대역죄를 범한 아사세는 온몸에 흉측한 부스럼이 생겨 고생하자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보호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

'관경서분변상도(觀經序分變相圖)' 는 깊은 궁궐에 유폐된 위제희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하여 나타나신 부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신통력으로 위제희 부인 앞에 나타난 부처님과 부처님을 바라보면 합장하고 서 있는 위제희 부인과 시녀들의 모습이 정성스럽기 그지없다. 이 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 즉 십육관법은 '관경십육변상도(觀經十六變相圖)' 에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아사세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사세의 벗이자 부처님의 사촌인 데바닷다가 왕사성의 비극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아사세의 왕위 찬탈은 데바닷다의 교단분열의 시도와 결합되어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불교사에서 가장 악한 인물로 그려지는 데바닷다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원리주의에 입각해 종교개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에 가깝다. 그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판했던 조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개인적 욕망보다 수하좌, 분소의, 걸식에 충실했던 초기 출가수행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원리주의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데바닷다가 보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만든 계율조차 위반하는 무원칙적 인물, 비합리적인 종교지도자였다. 따라서 그 교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불교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결론이었다. 그런 점에서 데바닷다는 비록 부처님 시해를 도모한 대역죄인이지만, 원리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지성을 대표한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운명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것과 달리, 왕사성의 비극은 빈비사라왕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아사세의 부친살해와 모친유폐는 빈비사라왕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의 과보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합리성은 계속되는 복수를 정당화할 뿐, 그 악행의 고리를 깨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살해하는 비극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계율을 위반하는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데바닷다의 교단분열 시도 역시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사세뿐만 아니라 데바닷다에게도 합리성은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이 작품은 서양의 이성주의와 그 한계에 대한 최초의 경고로 해석

인과의 통찰과 감성적 사유 없이
합리성만을 강조한 지식은 한계
자신의 근원 부정하는 모순 가져

되고 있다. 오이디푸스에서 자기 인식은 비극적 삶의 출발점이지만 아사세의 이야기에서 자기 인식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세나 데바닷다의 지식은 인과에 대한 통찰과 그 구원에 관한 종교적인 앎에 미치지 못하는 합리성의 입장에서 파악된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포스트모던적 지식론에 따르면,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지식은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오이디푸스에게도, 아사세에게도, 데바닷다에게도 그것은 더 큰 비극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이디푸스 왕〉이 스스로 운명과 그 운명이 초래한 비극적 고통을 떠맡는 자기 결정을 통해 인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관무량수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다음 연재에서 〈관경십육변상도觀經十六變相圖〉를 통해 살펴보겠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초특가"
■ 양곤/바고/시리암 (직항) 5일
■ 출발확정 : 12월 18일
양곤/바고/시리암(아시아나항공) 5일
999,000원 ※ 모든 경비 포함 ※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추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직항) 5일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 (직항) 7일 210만원
● 인도8대 성지순례 15일 .....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7일 139만원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성지순례 4일
● 관음도량(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4일
● 문수도량(오대산 / 석가장) 성지순례 5일
● 보현도량(아미산 / 낙산) 성지순례 5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⑩ 석가봉



드디어 부처님을 뵙다

칼바위능선의 봉우리로 성북구 정릉동에 속해 있다. 〈북한지〉에 "동문 밖 청수동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서 '동문'은 지금의 대동문을, '청수동'은 현 정릉부근의 청수장 일대 계곡을 말하는 것이다. 대동문 밖이라 하였으므로 석가봉은 속칭 칼바위능선의 정상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보국문 자리를 예로부터 석가고개라 불러왔는데 북한산성 축성 후 봉우리들의 이름을 새로 지으면서 석가고개에서 가장 가까운 현 칼바위능선 정상에 붙인 이름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실록 9년 기록에도 이름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석가봉은 부처님이 계시는 봉우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칼바위능선 아래 작은 초막을 짓고 사는 불망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고구려에서 왔다고 해서 고구려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이곳은 밤에는 호랑이가 출몰해서 약초꾼들도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서두르는데 불망 스님은 해가 지면 칼바위능선에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삼매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소원은 단 하나,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십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불망 스님은 삼 년 만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조금 더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뵐 수 있으리라 기다린 세월이 십년이 된 것입니다. 스님의 눈앞에 그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달이 뜬 날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한결 같이 기도를 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니 장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또 있을까?' 하는 자만심에 빠져 산을 내려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자신이 앉았던 발아래 푸르스름한 이끼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위에 바짝 몸을 붙이고 나직이 숨을 쉬는 이끼를 보는 순간 불망 스님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작은 생명도 비바람, 눈서리를 맞으며 버티고 있는데 기껏 삼년을 견뎠다고 대가를 받으려하다니…"

불망 스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또 다시 삼년이 지났지만 불망 스님은 여전히 부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금생에는 부처님을 뵈올 수 있는 복이 없는 모양이구나."

스님은 자신의 복 없음을 한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부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금생에 복을 짓지 못했으니 내생에나 친견할 원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앉았던 바위 앞에 깃털 속에 목을 묻고 떨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앞가슴에 새를 넣고는 저고리를 느슨하게 풀어 편히 숨을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작은 새도 모든 시련을 겪으며 묵묵히 살고 있는데 사람인 내가 이 정도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삼년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자 스님은 품었던 새를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새는 대견스럽게도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스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부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불망 스님은 아직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든 편안하시길 기원했습니다.

불망 스님이 바위를 내려가기 위해 아래를 바라보니 호랑이가 토끼를 잡기위해 앞발을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에게 잠시 기다리라하고 토끼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추위에 가족이 굶어 죽을까 먹이를 구하러 나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 주십시오." 스님은 토끼를 살려 보내자고 했지만 호랑이 또한 당장 먹이를 가져가지 않으면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불망 스님은 토끼 대신 자신을 먹으라며 호랑이를 설득했습니다. 눈을 껌벅이던 호랑이가 몇 번을 되묻자 불망 스님은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벗고는 자신을 먹으라는 듯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때 우우웅, 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이 눈을 떠보니 칼바위 능선 꼭대기에 광명이 비추고 드디어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부처님."

불망 스님은 호랑이에게 부처님을 뵙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청을 하고는 칼바위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스님 앞에 우뚝 섰습니다. 금빛 찬란한 몸, 너무나도 성스러운 얼굴, 불망 스님은 가슴이 벅차올라 부처님 발밑에 몸을 굽혔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토록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어 할 때는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야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불망아, 나는 늘 네 곁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스님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부처님을 우러러보다가 호랑이와의 약속이 생각나 고개를 들어보니 부처님도, 토끼도, 호랑이도 다 사라지고 천지에는 향내만 가득했습니다.

불망 스님은 칼바위 능선 꼭대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을 친견하는 이치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이치를 아는데 십년이 걸렸습니다."

합장을 한 불망 스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얘기꾼〉 권현숙

쇼토쿠 태자의 불국 염원 담긴 백제식 가람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⑩ 오사카 시텐노지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의 전경. 쇼토쿠 태자가 발원하고 백제 명공 유 씨가 지은 시텐노지는 백제의 가람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와(和)'을 귀하게 여겨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있지만 현명한 자는 적다. 이에 임금을 따르지 않고 이웃과 다툰다. 만약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여 의좋게 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 합의한다면 도리는 저절로 통하리라. 그렇게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17조 헌법 중 일부이다. 쇼토쿠 태자는 불교를 통해 일본의 초기 국가 체제를 완성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그의 17조 헌법에는 삼보를 공경할 것을 명하고 선악의 도리로 불교를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쇼토쿠 태자는 17조 헌법을 통해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사상인 '와(和, 화합)'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전통 시조를 와카(和歌), 일본 전래의 풍속을 와후(和風), 일식을 와쇼쿠(和食), 일본 전통 과자를 와카시(和菓子, 화과자)라고 부르는 것도 다 여기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불교 전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585년부터 일본은 불교 공인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된다. 내홍은 숭불 세력인 요메이 천왕과 소아 씨는 당시 배불세력이었던 귀족 모노노베 씨와 전쟁을 벌였다. 당시 13살이었던 쇼토쿠 태자마저도 전쟁에 가담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는 전쟁에 참전하던 중 한 숲에 들려 붉나무(옻나무과)를 잘라서 '사천왕상'을 만들어 높이 받들면서 무릎 꿇고 사천왕에게 맹세하기를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제가 적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사천왕님들을 받드는 절과 탑을 세우겠나이다"라고 다짐했다. 이때 총사령관인 소가노 우마코 대신도 "사천왕들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면 절과 탑을 세우고 삼보(三寶)를 널리 위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했다. 이후 전란을 수습한 쇼토쿠 태자가 오사카에 '시텐노지(四天王寺)'를 건립한 것은 이 같은 발원을 지키기 위함 이었다.

시텐노지는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7대 사찰 중 하나로 '곤고묘시텐노다이고쿠노데라(金光明四天王大護國寺)'라고도 불린다. 종파는 천태종에 속해 있었으나 일본 불교의 창시자인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일본 최초의 불교사찰이라는 점에서 종파에 구애받지 않는 와슈소혼잔(和宗總本山, 일본 불교의 총본산)으로 1946년 독립했다.



시텐노지의 본존불인 구세관음상. 쇼토쿠 태자의 이념이 그대로 들어난다.



시텐노지 옆으로 시텐노지 학원이 보인다. 이 학원은 일본 명문사학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하다.

쇼토쿠 태자 7대 도량 중 하나
종파 구애 않는 日불교 총본산
區가 곧 사찰… 교육 · 복지 총력

시텐노지의 구조는 백제 가람과 매우 흡사하다. 사찰의 중문과 오층탑 및 금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해 사방은 회랑으로 둘러쳐 있다. 특히 오층탑의 웅장함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텐노지가 백제 가람과 닮은 것은 가람을 지은 사람이 백제의 명공 유 씨(柳氏)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시텐노지를 건립한 명공 유 씨는 쇼토쿠 태자의 생부인 요메이 천황에게 곤고(金剛 · 금강)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훗날 이 가문은 오사카의 건축 전문회사인 '곤고구미(金剛組)'로 발전했다.

'구세관음'을 본존불로 삼고 있는 시텐노지는 현재 오사카의 한 구(區)를 차지할 정도로 사격이 크다. 시텐노지가 있는 지역명은 정확하게 오사카 덴노지구(大板 天王寺區)로 이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는 시텐노지 소유다. 본존불이 자비를 나타내는 구세관음인 만큼 시텐노지는 교육과 복지 등 지역민을 위한 기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덴노지구 안에는 시텐노지가 운영하는 시텐노지 병원과 시텐노지 학원(중 ·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텐노지 학원의 경우 일본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 학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이 국민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본불교의 모습은 한국불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시텐노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문화재는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무대인 '이시부타이(石舞台)'다. 이곳에서 백제의 음악 무용가 미마지(未麻之 · 6~7C 추정)는 일본인들에게 고구려의 사자춤과 탈춤을 전수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수된 춤과 음악은 매년 4월 22일 시텐노지에서 열리는 쇼토쿠 태자 위령재 '성령회 무악 개법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정립해 낸 쇼토쿠 태자. 일본이 불국토가 되길 바랬던 그의 염원은 시텐노지에서 지금도 면면히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600원 • 100부@800원
• 규격:9.5cm × 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400원 • 100부@600원
• 규격:8.9cm × 9.5cm • 매수:16장

망상 소멸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2〉



범어사 주지

그러므로 일체 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 · 천상 · 아수라 · 지옥 등의 육도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무심을 배워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고 분별망상을 내지 않으면, 나도 남도 없고, 탐진(貪瞋)도 없으며, 증애(憎愛)도 없고, 승부도 없다.

만법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따라서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모두 더불어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마음을 근본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육도 윤회계도 결국 마음이 일어난 것일 뿐이니, 한 마음 돌이키면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만다. 바깥경계의 모든 인연들을 당장에 쉬어서 무심하기만 하면, 천 가지 계산 만 가지 사량[天計萬思量]이 한 순간에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이다[紅爐一點雪]. 하지만 무심해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별이기 때문에, 저절로 무심해져야지 무심해지려고 조작해서는 안 된다.

허다한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自性)은 본래 청정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될 것이다.

허다한 망상을 없애는 방법은 직하에 무심해지는 것이다. 마음자리는 망상을 없애고 없애지 않고 관계없이 본래 청정하기에, 굳이 망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망상을 없애고 난 뒤에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상과 관계없이 당장 무심해져서 본래 청정한 실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미련하게 망상과 싸우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끝나지 않는다. 그 싸움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나무열매를 먹고 풀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한다.

불법은 자기 마음을 알자는 것이지, 난행(難行) 고행(苦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육조스님도 견성을 논할 뿐이지, 선정 해탈을 논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견성해서 전도몽상에서 깨어나자는 것이지, 꿈속에서 선정과 해탈을 지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백운(白雲)이 흩어지면 청산(靑山)은 절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괜히 조작하여 선정이나 해탈이라는 구름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조작하면 곧 불이법(不二法)에 어긋나므로,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수행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삿된 것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천마외도(天魔外道) 수륙제신(水陸諸神)이 되고 말 것이니,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하기를, '본체(本體)는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까?' 하였다.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아서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유마거사는 말하기를, '오직 침상 하나만 두고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 앓아누워서 반연을 모두 쉬어 망상이 그쳐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보리(菩提)다.



그림 · 박구원

경계의 모든 인연들을
쉬어서 무심하기만 하면,
천 가지 계산 만 가지 사량이
한 순간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이다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열매 먹고 풀옷 입는다 해도
자기 마음 알지는 못할 것이다.
불법은 자기 마음 아는 것이지,
난행·고행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은
윤회계를 벗어나라는 것이다.
좋은 꿈 꾸라는 것이 아니라,
잠 깨고 일어나라는 것이다.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하고 온갖 알음알이나 신통을 배워 부린다면, 그런 사람은 마왕 파순의 권속이 되어 공부인의 바른 수행을 방해하거나 삿된 데 빠져 땅과 물의 잡신이 되고 만다. 공부의 방향을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데 두어야지, 자칫 어리석게 밖으로 구하면 궁자(窮子)가 되어 오랜 세월 거지생활을 하며 헤매게 된다. 자기 마음은 본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새삼 수행을 따로 가자 할 것이 없다. 본래청정심을 믿고 모든 구하는 마음을 접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멍충이 같겠지만 그 안에는 보리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0)는 것이다. 달마대사도 '밖으로 온갖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이지 말라.[外息諸緣 內心無喘]' 고 당부했다. 고인들은 한결같이 공부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병들어 앓아누운 유마힐처럼, 복잡한 반연을 쉬고 사량분별을 그쳐버리면, 그 자리가 연꽃이 피는 정토로 드러난다. 그런 다음에야 온종일 분주해도 실제로는 조금도 분주한 바가 없으므로, 평상심으로 무애자재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만약 마음속이 어지러워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대가 비록 삼승(三乘) 사과(四果) 십지(十地)의 모든 지위를 배워 이르렀다 해도, 끝내 범성(凡聖)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모든 행위는 끝내 무상(無常)으로 돌아가고, 세력도 모두 때가 되면 끝나고 만다. 마치 공중으로 쏜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에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의 윤회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통만 받을 뿐이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과를 얻고, 나아가 보살의 십지를 얻는다 하여도 끝내 범성의 경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생전에 복덕을 지어 윤회계의 상위층인 천상에서 복락을 누린다고 해도, 지어놓은 것을 다 까먹으면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은 윤회계 안에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벗어나라는 것이다. 잠속에서 좋은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잠을 깨고 일어나라는 것이다. 잠시 즐거운 꿈을 꾼다 하더라도, 잠이 지속되면 결국 악몽이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하여 무심을 지으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조작된 무심은 결국 다시 깨지고 분별망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심 · 유심을 벗어난 본래무심을 증득하라는 것이다. 한 번 잠에서 깨면 늘 드러난 이 일 외에 달리 다른 일이 없다. 공부인이 잠시 무심의 맛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치로 따지려들면 즉시 생각의 구름 속에 갇히게 되어 다시 깜깜해지고 만다. 뭔가 경험했더라도 모두 내려놓고 세월을 보내며 기다릴 줄 알아야, 확철하게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분이 생기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㊽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서, 읽고 외우며, 공양케 하겠습니다. 〈무량의경(無量義經)〉

〈금강경〉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실까? 경전의 말미(末尾)를 한 번은 눈여겨 볼 일이다.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지 말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금강경〉의 경우에는 "일체 무든 유위법은 꿈 · 허깨비 · 물거품 · 그림자 · 이슬 ·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표준 금강경)라고 하는 결론적 말씀으로 끝난다. 아무래도 〈금강경〉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전하겠다"는 뜻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앞에서 인용한 게송에 뒤이어서, 경전 편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 인간 ·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한문으로는 '신수봉행(信受奉行)' 이라 한 그 말씀 말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 실천수행의 내용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중생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내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분명히 그러한 해석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어쩌면 그보다는 "일체 모든 가르침을 공(空)이라" 고 관찰하는 중도(中道) 내지 공관(空觀)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렀다는 뉘앙스가 더욱 강한 것같다. 그 점은 숨길 수 없다.

〈무량의경〉의 마지막

〈금강경〉의 마지막 장면과는 현저히 다른 경전의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무량의경〉과 같은 경우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자. 〈무량의경〉의 마지막 장면 역시 부처님의 당부말씀이 제시된다.

"그대들은 마땅히 이 경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내고 가르침과 같이 수행을 하며,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서 은근한 마음으로 유포하며 …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며, 읽고 외우게 하고, 베끼게 하며, 공양케 하라."

이러한 정도만 해도, 〈무량의경〉의 마지막은 〈금강경〉의 그것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의 놀라움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더욱 증폭된다.

"오직 세존께 원하옵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마땅히 원력을 세워서 널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서, 읽고 외우며, 공양케 하여 이 경전의 위대한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법을 들은 자들의 다짐이다.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나 스스로만 기뻐하며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겠다는 약속이다. 널리 모든 중생에게 다시 전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가르침대로 수행케 하여 부처님 말씀의 위대한 힘을 실증(實證)케 하겠다는 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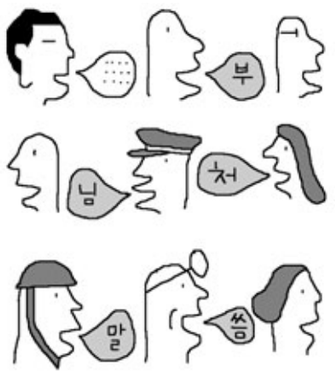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일방적인 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부와 다짐의 쌍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별히 나는 법을 듣는 자의 다짐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팔만명의 보살마하살) 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들어보기로 한다. "아, 〈무량의경〉의 이 말씀은 다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말씀이다"라고 느끼고자 한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강요(强要)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유해 달라"고 말이다.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을 대신해서 팔만보살이 행했던 그 다짐을 다짐해 주고 실천해 주기를 강하게 요청한다. 〈무량의경〉의 마지막은 나의 강요에 '작은 면죄부' 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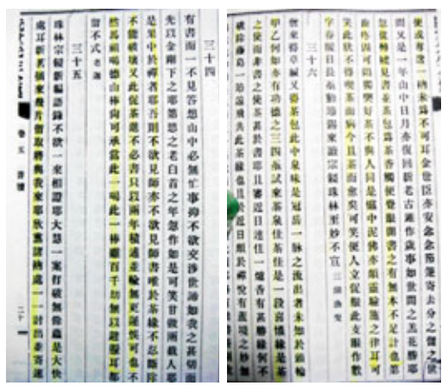
“〈법원주림〉 〈종경록〉 서로 증험 합시다”

추사는 불경을 참증하기 위해 초의의 상경을 재촉하는 편지를 자주 보낸다. 〈완당전집〉〈여초의〉35신도 초의의 상경을 재촉하고 있다. 편지의 말미에 “삼호어수(三湖漁 叟)”라는 호를 사용했는데, 삼호어수란 “삼호에서 고기 잡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삼호는 지금의 마포일대이다.

그는 제주에서 해배된 후, 노량진, 마포, 금호동 일대에서 거처하다가 1851년 7월 22일, 북청으로 유배되었다. 북청으로 유배되기 전, 그가 탐독했던 불서는 〈법원주림〉과 〈종경록〉이었다. 그는 초의와 함께 불경을 참증하기를 절실히 원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 불교계의 흐름을 초의에게 이해시키려는 배려였을 뿐 아니라 초의의 높은 식견으로 자신의 불교적 견지처가 타당한가를 검증하고 싶었던 듯하다. 〈완당전집〉〈여초의〉35신에는 〈법원주림〉과 〈종경록〉을 탐독하면서 초의의 상경을 독촉하는 내용이 보인다. 대략 그가 마포에 거주했던 시기인 1851년 신정(辛正) 6일에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새로 편찬한 어록 〈법원주림〉. 〈종경록〉을 한 번 와서 서로 증험하고 싶지는 않으신가. 대혜의 공안을 타파해 미진함이 없으니 매우 통쾌할 뿐입니다. 햇 차를 몇 편이나 만들었습니까. 잘 보관하였다가 나에게도 보내 주시려는가. 자흔과 향훈스님이 만든 차도 일일이 색출하여 빠른 인편에 부쳐 주시시오.

혹 스님 한 분을 정해 (그에게 차를)보내신다 해도 불가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세신도 편안한가요. 늘 염려 됩니다. 단오절 부채(節扇)를 보내니 나누어 가지십시오. 세간엔 또 한 해가 오는데 산중의 세월도 다시 새 해가 되니 노장(老古



〈완당전집〉〈여초의〉 35신

불경 참증 위해 초의 상경 재촉

치통 앓던 초의를 희언으로 위로

추사 곁 맑은 차 우정의 매개물

錐)의 세사(歲事)도 세간에서 羔花勝(고화승: 높은 신하에게 내리는 임금의 하사품)을 받는 것과 같은가요.

갑자기 돌아오는 인편으로부터 편지와 차포를 받았습니다. 차 향기를 맡으니 곧 눈이 떠지는 것만 같습니다. 편지의 유무(有無)는 원래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대의)치통은 실로 마음이 쓰입니다만 혼자 좋은 차를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실의 부처님께서 또 영험한 법율을 베푼 (치통이 일어난 것)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나는 차를 마시지 못해 병이 났는데, 지금 다시 차를 보고 나아졌으니 우스운 일입니다. 인편이 서서 재촉하므로 어두운 눈으로 간신히 몇 자 적습니다. 따뜻한 봄에 해가 길어지면 빨리 와서 〈법원주림〉. 〈종경록〉을 읽는 것이 지극히 묘한 일 일겁니다. 이만… 신정 6일 삼호어수 (珠林宗鏡新編語錄 不欲一來相證耶 大慧一案打破無餘蘊 是大快處耳 新茗摘來幾片 留取將與我來耶 欣熏諸衲處一一討出寄速便或專送一衲未爲不可耳 金世臣亦安念念 節扇寄去分之留之 世間又是一年 山中日月亦復回新 老古錐作歲事如世間之羔花勝耶 忽從轉 見書茶包 爲茶香觸便覺眼開 書之有無 本不足計也 第齒疼固可悶 獨喫好茶 不與人同 是龕中泥佛亦頗靈驗施之律耳 可笑 此狀不得喫茶而病 今且茶而愈矣 可笑 便人立促 艱此支眼作數字 春暖日長 動止錫來 讀宗鏡珠林至妙 不宣 辛正六日 三湖漁 叟)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초의가 보낸 차를 받고 “차 향기를 맡으니 곧 눈이 떠지는”것 같다던 추사였다. 한 해가 저물고 다시 한 해를 맞아 “승속이 같은가”라고 묻던 추사의 말 속엔 다정한 속내가 묻어난다. 이 무렵 초의는 치통을 앓고 있었다.

마음이 쓰였던 추사는 “혼자 좋은 차를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감실의 부처님의 “영험한 법율을 베푼 것”이라는 희언으로 초의를 위로하였다. 자신의 처지 또한 여유롭지 않았던 강상 시절, 추사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차였고, 불경을 탐독하며 세월을 잊으려했다. 절세(絕世)의 의로운 군자, 추사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던 맑은 차는 이들의 우정을 이어주었던 매개물이었다.



유쾌한 입담으로 BBS 음성공양 24년

방송인 김병조 씨 (조선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겸 명예 평생교육원장)

“방송한다는 생각보다는 늘 절에 온다는 마음으로 24년 불교방송국을 왔어요. 그래서 방송이 힘들지 않았어요. 인기관리나 출연료를 위해 방송을 하지는 않았죠. 음성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불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늘 행복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12월 개편을 맞아 불교방송 ‘이야기쇼’를 떠나는 불자 방송인 김병조 씨는 이렇게 소감을 얘기한다. 마지막 방송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1월 26일 노원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찾았다. 잘 가꿔진 화분과 통나무 다탁으로 단아하게 꾸며진 거실은 연예계라는 화려함에 묻히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성품을 닮아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MC에서 현재 〈명심보감〉을 강의하는 인기 교수로 세상을 두루두루 밝히고 있는 불자 방송인 김병조 씨.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며 세상을 아우르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늘 가족 같았던 불교방송

1990년 불교방송 개국 이래 24년 동안 그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방송을 진행해왔다. 매주 월요일~일요일 오후 9시 15분마다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 쇼’는 트로트 등 성인가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불교방송은 포교강화를 위해 밤 9시~12시 불교 프로그램을 확대편성하면서 이야기쇼 폐지를 결정했다. 그간 김 씨의 공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불교방송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물론 불교방송의 유일한 성인가요 프로그램이자 24년 동안 김병조 씨가 진행을 맡아왔던 이 프로그램의 폐지에 대해 불교방송 내에서도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내려놓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다.

“1990년 5월 1일 불교방송 개국일이 제 생일과 같은 날이었어요. 참 기이하고도 특별한 인연이죠. 그래서 그런지 방송국 식구들과는 가족 같이 각별한 사이로 지냈어요. 불교방송 작가 아나운서 피디 기자 등의 결혼식 주례도 많이 섰죠. 한번은 불교방송 직원의 딸 결혼식 주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수년 동안 진행을 맡아오고 있던 연등축제와 겹쳤어요. 사회를 포기하고 주례를 섰죠. 그만큼 불교방송 식구들이 저에게는 중요해요. 이번에 방송을 그만둔다고 하니 직원들이 눈물 흘리며 서운해 하네요.”

그는 인생 잘 산 것 같다며 너털웃음을 보였다. 김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방송을 진행해온 이유는 신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힘이 컸다. 어머니는 10년 기도로 7대 종손인 김 씨를 낳았고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을 만큼 신실한 불자로 살아왔다. 노안으로 눈이 안 좋았던 어머니는 늘 김 씨의 방송을 라디오로 들으며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출연료가 기업체 하루 강사료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도 불교방송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는 불교방송 채널을 늘 고정시켜 놓고 제 방송 시간에 맞춰 방송을 듣고 주무셨어요. 저도 늘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하고 방송을 했죠. 말년에는 서울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절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상체만 구부려 108배를 하셨어요. 저희 집사람도 정말 존경스럽다고 할 정도로 신실한 불자가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제가 불교방송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24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보람도 컸다. 많은 팬들이 그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 주었는가 하면 때로는 인생 상담을 의뢰해오기도 했고 어머니가 듣던 방송을 딸이 듣고 있다는 사연도 전해왔다. “오랫동안 방송을 하니 청취자 분들이 저를 법사로 알고 인생 상담을 해오기도 해요.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추 감자 게장 과일 염주 등 방송국 담당자들에게 슬쩍 건네주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 방송을 한다는 생각보다 가족과 함께한다는 생각이 들만큼 너무 정겹고 좋았죠.”

인기에도 세금이 있더라

김병조 씨는 80년대를 풍미했던 개그맨이자 MC다. 배추머리는 그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였고 ‘지구를 떠나거라’ ‘나가 놀아라’는 대한민국 남녀노소라면 누구나 알만한 유행어였다. 또 그가 진행했던 ‘일요일 밤의 대행진’은 MBC의 간판 프로로 당시 최고 시청률을 올리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렇게 7년 동안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에게 큰 시련이 왔다. 87년 한 정당의 비공개 모임에 참석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던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다.

“하루아침에 가장 인기 있는 개그맨에서 가장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던 인기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고 육십 평생 먹어야 할 욕을 그때 다 먹은 셈이죠. 그때 알았어요. 인기에도 세금이 있다는 걸요.”

큰 상처를 입었던 그는 절을 찾아다녔고 스님들에게 위로를 얻었다. 당시 다녔던 절이 인과선원, 주왕암, 개심사, 화계사 등이며 그때 만났던 스님이 수경 스님(前 화계사 주지), 서옹 스님(前 조계종 종정) 선광 스님(前 개심사 주지) 등이다. 특히 당시 개심사에서는 지장보살 개금불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막다른 곳에 다다르니 생각나는 곳이 절이었어요. 절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 시간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기도 허망한 것이죠. 모든 게 제행무상입니다.”

1990년 개국 이래 24년 방송

어머니 당부 받들어 장기 진행

불법으로 행복 전하려고 노력

“불교방송은 늘 가족과 같아”

80년대 최고 인기 개그맨에서

87년 의도치 않은 정치발언으로

세상의 비난, 인기 허망함 깨달아

“당시 절은 가장 큰 위로처였다”

가족과 함께 신행활동 ‘행복’

아들과 JTS 캠페인 사회도

이후로도 SBS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그는 대학후배의 권유로 광주방송 진행을 맡게 된다. “인기도 얻을 만큼 얻어봤으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 고향이 전남 장성이고 광주고등학교를 나왔으니 광주방송에서 일하는 것이 곧 고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완도, 해남 땅끝마을 등 전라도 곳곳을 돌면서 방송을 하니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역 방송에 전념하다보니 광주 조선대에서 강의 제의가 들어왔다. 학교 측에서는 연극영화학 강의를 제의했지만 김 씨는 〈명심보감〉 강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유학자였던 아버지 아래서 어린시절 〈명심보감〉을 공부해 왔기에 누구보다 이 강의에 자신이 있었다. “처음에는 향교 유림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개그맨 하던 사람이 〈명심보감〉 강의를 하니 그럴만했겠죠. 그런데 개그맨인 제가 〈명심보감〉을 강의하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유머를 섞어 쉽게 설명하니 모두들 강의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100명이던 수강생이 600명이 될 만큼 인기를 모았죠.”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한 그의 강의는 교육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교사와 교사지망생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15년 동안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광주로 내려가 강의를 한다. 개그맨에서 한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그는 〈명심보감〉은 유불선이 다 들어 있다고 강조한다. “〈명심보감〉 자체가 마음을 밝히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24년 동안 진행해 온 불교방송 ‘이야기쇼’ 마지막 진행 장면.



사천시 아카데미 〈명심보감〉 강의



김병조 씨는 … 1950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광주고를 나와 중앙대 예술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다. 동양방송(TBC) '살짜기 웃어예' 로 개그맨 데뷔, MBC 일요일밤의 대행진 진행을 맡았고 청춘만세, 뽀뽀뽀 등에 출연했다. 현재 방송인 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및 동대학 평생교육원 명예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 80주년 유공 국무총리 표창, 문화방송 최우수 연기상 수상, 연예인 최초 저축유공 국무총리 표창, 프로듀서 연합회 선정 최우수 진행자상, 행원문화상 예술상 수상, 자랑스런 전남인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종가집 배추〉가 있으며 현재 김병조의 〈명심보감〉을 집필중에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적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외부 강의다 보니 이웃 종교 분들도 많지만 불교 자체가 인생의 진리니 불교적 구절에서도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아요."

그는 지난주 강의했던 〈명심보감〉 한구절을 읊어준다. '간경미위선(看經未爲善)/작복미위원(作福未爲願)/막약당권시(莫若當權時)/여인행방편(與人行方便)'

" '경을 읽는다고 다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을 짓는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상대가 방편을 행하도록 돕는 것만은 못하다' 는 뜻입니다. 이때의 방편이란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고 상대를 안쓰러워하며 상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련존자가 지옥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도 곧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내니 가능한 일이예요."

신행활동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

김병조 씨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개그맨이지만 야간업소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정치계의 유혹도 있었지만 오직 방송과 〈명심보감〉 강의만 이어왔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의 힘이 컸다. 그는 아내 김현숙 보살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딸 지현(메릴랜드대 박사과정) · 아들 형주(극단소리 부대표) 씨까지 가족 모두가 독실한 불자로 함께 신행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아들 형주 씨와는 매년 JTS 모금캠페인의 사회를 함께 맡아 한 무대에 선다. 딸 지현 씨는 미국 유학 중에도 정토수련원에서 100일 출가를 경험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할 정도로 신심이 깊다. "가족들 모두가 불자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경 스님과의 인연이 너무 각별했어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이 깊다 보니 아이들이 절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불자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JTS모금 캠페인에서 아들과 함께 사회를 보고 아내도 모금 활동을 해요. 가족 모두가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하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 받은 아들 형주 씨는 현재 뮤지컬 배우이자 극단 소리 부대표로 뮤지컬 '캐쉬' '락흥부전' 등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던 저에게 담임선생님은 연극영화과를 권했어요. 소풍 가서 사회를 도맡아 하니 재능을 살려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4년 장학생으로 다녔죠. 아들도 저의 재능을 이어받아 동국대에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석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에서 연등축제 사회를 볼 때면 동국대가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우리 아들이 나온 대학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대중들 모두 웃음을 터트리죠."

요즘 그의 행보는 바쁘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각 지자체 등에서 최고 인기 강사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는 사농공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는 개그도 했고 한학도 했으니 누구나 제 강의를 부담 없이 듣고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주부님들을 상대하는 강의에서 고위 공무원 기업체 CEO까지 모두가 제 강의를 좋아합니다."

빡빡한 그의 11월 스케줄 표에는 대구 경북대, 강북구청, 법무부 연수원, 김포시 풍무동사무소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강연이 줄을 잇고 있었다. 현재 완역에 해당하는 청주판 〈명심보감〉 출판을 위해 원고를 준비중인 그는 앞으로도 집필활동과 강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하고도 의미 있는 강의를 전해줄 것이다. "불교계에도 나 같이 떠드는 사람 한 명 있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유쾌한 입담으로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지식을 동시에 전달해주는 불자 연예인 그리고 〈명심보감〉 강사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뮤지컬 배우인 아들 김형주 씨(오른쪽)와 JTS 캠페인 공동 사회를 맡아 활동



8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당시 활동 장면

전법일기

불교 알아가는 문답의 기쁨

글로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글로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는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프렌드십을 형성하며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이번에는 15개국의 56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하였다.

이들은 무료로 불교에 대해 2달 동안 교육을 받고 2회의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한국불교문화를 이해하고 템플스테이를 홍보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용인 법륜사에서 열렸다. 1회 때는 불교 전반의 교리와 사찰예절이 중심이였다면 이번에는 한국불교 수행전반에 대해 경험해 보는 시간이다. 나는 지도법사로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 교육은 물론 1회에 이어서 한국불교의 전반적 수행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담당하고 있다.

모처럼 사찰에 와서 수련복을 입은 청년들은 사뭇 들뜬 표정들이다. 어느덧 교육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친해진 청년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틈만 나면 영어로 즐거운 이야기 가 꽃핀다. 입재식이 끝나고 먼저 오디오에 따라 영어로 된 108배를 했다.

세계의 청년들이 참회와 발원으로 이어지는 108배를 하는 모습은 보는이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한다. 끝나고 소감을 물으니, 예전에는 뜻도 모르고 절을 했는데 뜻을 알고 하니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았다고 한다. 뒤를 이어서 영어로 된 〈보왕삼매론〉과 〈자비경〉을 읽음으로써 경전독송의 느낌을 체험하고 나서 참선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염불수행 체험이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과 염불하는 의미, 특히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함께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 20분



그림 · 박구원

정도 정근을 한 후 느낌을 물어보니 생각이 없어지고 어떤 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한다. 한 외국인은 자신은 잡념이 많아서 참선은 어려운데 염불을 하니는 집중이 잘 된단다.

저녁공양을 하고는 칭찬명상을 하였다. 팀을 나누어 한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동안 보아온 좋은 점을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다. 눈을 감고 칭찬의 소리를 들음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고 좋은 말의 수행이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칭찬이란 참으로 묘한 힘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 된다.

어떤 외국인들은 눈물을 머금는다. 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칭찬에 인색했던가! 칭찬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주고 관계를 좋게 만든다. 다들 신이 났다. 진지하게 그동안 고마웠던 점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한다. 어느덧 밤은 청년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깊어간다. 세계의 청년들과 어울린 우리의 청년들. 바쁜 현대사회의 대학생들은 종교생활을 할 여유가 없지만 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불교와 영어를 진지하게 만나는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이 많은 것 같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다. "스님, 지장보살이 지옥을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하고 계신가요?" 날카로운 질문이다. 나름대로 설명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불교는 참으로 멋있네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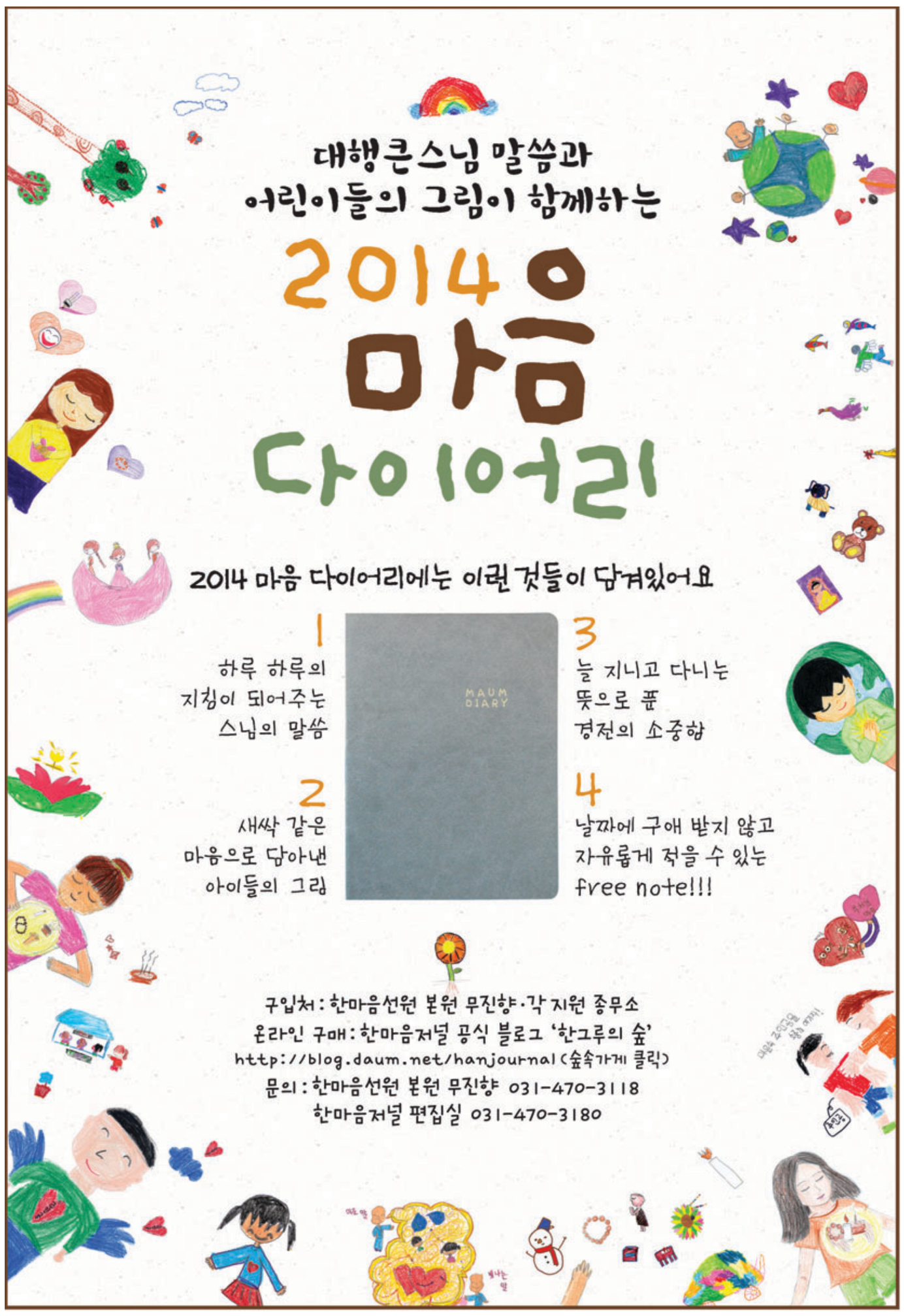
또 다른 청년은 "스님들은 어떻게 경험을 하지 않도고 세상일을 잘 알지요? TV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는 스님을 보면 신기해요" 라고 감탄하기도 했다.

다음날 새벽4시에 일어나 예불을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아침을 먹으러 가며 조심스럼게 한 외국인이 다가와 질문을 한다. "스님, 겨울에는 추워서 몸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장삼 속에 옷을 많이 입지요" 했더니 "그래요?" 라며 활짝 웃는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궁금한가 보다. 많은 질문 속에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스님에 대해 새삼 알게 된다. 글로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이시대의 청년들에게 커다란 휴식과 희망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임이 분명하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부처님 탄생시기 알려주는 신전 발견



로빈 커닝햄 교수 발굴팀이 마야 데비 사원에서 발굴작업 중에 있다. 〈출처: 아이라 블록/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야 데비 사원의 전경. 앞에 있는 호수는 아기부처님이 몸을 씻은 물이라 여겨 신성시되고 있다.

英 발굴팀, 네팔 마야 데비 사원에서 B.C 6세기 목조 신전 발굴

부처의 탄생 설화를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이 네팔 룸비니 마야 데비 사원에서 발견됐다.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첫 고고학적 발견이다.

11월 25일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영국 더럼대 로빈 커닝햄 교수가 이끈 15명의 발굴팀이 마야 데비 사원 벽돌 밑을 조사하는 작업 도중, 아소카 시대 이전 석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탄소방사성 측정 결과 기원전 800~550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건물 또한 발굴했다.

이로써 기원전 3세기 불교를 중흥시켰다는 아쇼카왕 관련 유물이 불교를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는 가장 오래된 사실적 증거였지만 이번 발견으로 그 시기가 300년이나 앞당겨지게 됐다.

그간 마야 데비 사원은 부처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을 뿐, 석가모니 탄생 당시의 건축물이나 유물은 전무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현재 사원에 남아있는 벽돌 구조물은 1896년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후대에 조성된 것이며 아소카 석주 또한 기원전 3세기 것으로 부처의 탄생시기를 명확히 짚어주지 못했다.

유적은 신전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가운데가 비어있는 특별한 구조다. 발굴팀은 그 공간에 나무뿌리가 남아 있고 그 주변을 특별히 관리한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낳을 때 잡았던 나무가 아닐까하고 추정했다. 목조 신전을 보호하기 위해 후대에 벽돌로 위를 덮기도 했다.

발굴팀의 말처럼 나무가 석가모니 탄생 설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나무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의 생존 시대를 규정해주는 최저선이 생긴 것만은 틀림없다. 그동안 부처의 탄생 시기는 3세기에서 6세기까지 각기 다르게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부처가 최소한 6세기 이전의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신전 주변 나무 숭배 흔적 두고 의견 엇갈려

발굴팀, 부처님 탄생 설화 속 나무일 것

전문가, 인도 전통 신앙 의식이었을 수도

"부처가 2600년 전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석가모니 가르침에 녹아든 당시 사회와 경제 상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고 화폐가 주조되면서 상인과 중산층이 성장하는 등 극적인 변화의 시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교 교리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번 발굴이 부처의 탄생지로서 룸비니가 가지는 영적 중요성을 공고히 했다는 것 외에도 초기 불교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커닝햄 교수는 〈디스커버리 뉴스〉를 통해 그 의의를 평가했다.

"초기불교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적 연구는 아소카 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까지 전파한 인물이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두 세기나 앞선 목조 신전은 불교가 그 때부터 이미 힘있는 후원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를 숭배하는 정신이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거죠. 또한 발견된 목조 신전을 통해 초기 불교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종교에 대한 믿음과 역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유물 등이 함께 어울러진 드문 경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발굴을 두고 성급히 의미부여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루스 영 교수는 "발견된 목조 신전이 불교 신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고학자들은 자신의 발견에 최초나 최고(最古)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런던대학의 줄리아 쇼 교수 또한 발굴팀의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쇼 교수는 "나무에 대한 숭배는 고대 인도 종교에서 보편적인 일이었다. 때문에 이번 발견은 인도 전통과 불교가 혼합돼 있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람 쿨마르 쉬레스타 네팔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번 발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네팔 정부는 의미있는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굴 작업은 사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자는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팔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5억명에 달하는 불교신자 중 매년 수십만의 순례객들이 룸비니를 찾는 만큼,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커닝햄 교수는 "2020년에는 400만의 순례객들이 다녀갈 것"이라며 "마야 데비 사원에 대한 보존과 연구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굴팀은 땅 밑에서 해야 하는 발굴 작업의 특성상 지하수면이 가장 낮은 때인 겨울에 관광객들, 스님, 순례자 사이에서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사원 내에서는 신발이 금지된 탓에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로 일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스님들의 체벌로 단기 출가 꿈 접어

방글라데시, 텐진·노르부 형제 사원서 탈출

불교가 소수 종교에 머물러 있는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단기 출가에 나선 형제들이 사원 스님들의 폭력에 끝내 사찰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힌두(The Hindu)〉지는 11월 27일(현지시간)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의 한 불교 사원으로 단기 출가를 나섰던 셰르파(Sherpa) 형제가 사원을 탈출 한 후 첸나이(Chennai)에 도착, 아동복지위원회(Child Welfare Committee)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하고,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이고, 매년 훼불 사건이 끊이질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세계 불교계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루부(Norubu · 7)와 텐진(Tenzin · 10) 형제가 2개월 전 단기 출가한 사원은 카르나타카 주의 세라 제(Sera Je) 사원이다.

"처음 그곳으로 갈 때는 무척 행복했다"는 텐진은 "그러나 사원에서 스님들의 체벌이 반복되면서 사원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동생과 함께 도망쳐 첸나이 중앙철도역사 인근에서 노숙했다"고 말했다.

이후 노루부와 텐진 형제는 아동복지위원회(Child Welfare Committee) 측의 도움으로 뱅갈 서쪽 잘파이구리(Jalpaiguri)의 나부 바자르(Nau Bazaar)에 살고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아동복지위원회 폴 순더 싱(Paul Sunder Singh) 대변인은 "아이들을 발견한 후 가족을 수소문했고, 이와 함께 세라 제 사원의 스님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며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에서 단기 출가에 나선 텐진 · 노르부 형제가 사원 스님들의 폭력에 끝내 사찰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두 형제의 친할머니 카르마(Karma)는 "손자들을 사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생각은 없다"며 단호히 말하고, "손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원으로 단기 출가를 보냈는데, 그 일이 손자들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두 형제의 큰형 아누프(Anup)는 "우리 집안은 자년 한 명 이상을 단기 출가 보내는 전통을 지금껏 지켜오고 있다"며 "다섯 형제 중 락파(Lakpa)는 스님이 되었고, 이를 지켜 본 노루부와 텐진 역시 스님 되길 희망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힌두(The Hindu)〉 지는 "노루부와 텐진은 27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첸나이 중앙철도역에서 나부 바자르(Nau Bazaar)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이스라엘에 불교사원 건립된다

스리랑카 외무성 밝혀… 7000여 스리랑카인 서원 이뤄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이스라엘 심장부에 세워진다.

〈데일리 밀러(Daily Mirror)〉 지는 11월 2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외무성의 자료를 인용, "이스라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텔 아비브(Tel Aviv) 지역의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건립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스리랑카 공동체의 간절한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미를 더한 담마티라카 테라(Ven. Dhammathilaka Thera) 스님은 "그동안 스리랑카 공동체는 가정집에서 '구역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워왔다"며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 주재 사라스 위제시게(Sarath Wijesinghe) 대사의 노력이 더해져 기독교 성지에서 '불교사원 건축 불사'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텔 아비브 지역에 착공될 사원은 스리랑카 전통의 불교사원 모습일 것"이라고 전제한 사라스 위제시게 대사는 "이는 이스라엘 최초의 스리랑카 불교사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텔 아이브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 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스리랑카 불교공동체는 매주 가정집을 방문, 구역법회를 봉행해 왔다. 사진 중앙 좌측 부채를 들고 있는 스님이 이스라엘 스리랑카 불교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담마티라카 테라(Ven. Dhammathilaka Thera) 스님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연꽃으로 피어난 부녀의 화해

아일랜드 볼드윈 연꽃무늬 문신 화제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과 킴 베이싱어의 딸, 아일랜드 볼드윈(Ireland Baldwin)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공개한 '연꽃무늬 문신'에 대한 해석이 이채롭다.

〈메일 온라인(Mail Online)〉 지는 11월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볼드윈이 18세를 맞아 자신의 팔에 새긴 연꽃무늬 문신은, 평소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인 알렉 볼드윈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용서와 화해의 손짓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볼드윈과 베이싱어는 지난 2002년 9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 두 사람은 당시 6살이던 딸 아일랜드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 2007년에는 볼드윈이 딸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후 볼드윈은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으로 딸과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지난해 7월 알렉 볼드윈이 26세 연하의 여자 친구와 웨딩마치를 올릴 당시, 결혼식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아일랜드 볼드윈〈사진왼쪽〉이 18세를 맞아 자신의 팔에 새긴 연꽃무늬 문신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피플(people)〉 지에 따르면 아일랜드 볼드윈은 올해 초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 엄마 킴 베이싱어의 뒤를 이어 모델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

3D로 만나는 세계 최대 불교유적 '보로부두르'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 내년 부처님오신날 방영

742년 경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불교국가 사일렌드라 왕조가 조성한 보로부두르가 3D 다큐 영상으로 탄생했다. 쓰리디렉터채널(대표 최세영)은 다큐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이하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를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담아냈다.

제작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촬영을 완성하고 현재 편집에 들어갔다. 최세영 대표는 "대장경 로드 5부작 다큐를 마무리하고, 육로로 전해진 불교 전법과 구법의 길 뿐 아니라 해양으로 전해진 길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기획의도를 말한다.

유네스코에서는 보로부두르를 세계 최대의 불교건축물로 기록했다. 보로부두르는 2중의 기단 위에 사각과 원형의 단을 쌓은 9층의 피라미드식 계단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1460여면의 조각, 504종의 불상, 72개의 불탑으로 구성된 넓이 1만2천 평방미터, 높이 약 31.5미터, 약 350만 톤의 돌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원이다.

건축시기는 750년~830년으로, 이는 석굴암 건축 시기와 비슷하며 왕코르와트보다 약 200년 앞선다. 72개의 불탑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이 있으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지금 이 순간이 불교적 진리가 상주하는 법계이며 만다라로 우주의 중심임을 강조한다.

보로부두르는 완벽한 입체적 조형 건축물이자 깨달음의 과정을 한 단계씩 올라야 하는 이야기의 파노라마가 펼쳐져있다. 보로부두르의 부조 속 수행자의 모습들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보로부두르를 조성한 이들의 염원 역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 대표는 보로부두르의 건축은 독특하고 이상적인 종교관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보로부두르는 대승불교적인 세계관의 표현입니다. 세 단계의 구조 자체가 불교의 우주관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三界)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계와 지계, 인계를 나타내며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보여주죠. 사원 전체가 우주의 중심, 수미산의 축소판입니다."

완벽한 입체 조형 '보로부두르'
해양 실크로드 조명하고자 기획





위에서 내려다본 보로부두르. 탑 자체가 하나의 만다라다.



쓰리디렉터채널은 다큐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를 제작해 깨달음의 과정을 담아냈다. 보로부두르의 상징인 종모양의 벨 스투파(사진 위).아래는 보로부두르의 전경.

보로부두르는 인도의 불교설화와 경전이 고부조로 새겨져 있다. 1층의 회랑 상단 부조는 〈방광대장엄경〉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새겨 놓았다. 1층 회랑과 하단에는 〈본생경〉〈잡보장경〉〈법구비유경〉 등의 텍스트가 새겨져 있다. 부처님의 도솔천의 설법, 하생, 탄생, 출가 고행, 정각 그리고 녹야원에서의 초전법륜을 마지막 장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탑을 한 바퀴 둘러보고 상층 기단 대탑에 오르면 불상도 비문도 없는 진공묘유(眞空妙有)에 도달한다. 최 대표는 "보로부두르는 하나의 만다라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로부두르를 공중에서 보면 만다라를 펼쳐 놓은 것과 같다. 원과 사각의 틀에 불타들이 정연히 늘어선 우주도"라고 설명한다.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내년 5월 부처님오신날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체방송은 스카이 HD, 2D 방송은 EBS교육 방송 그리고 불교방송 IPTV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콘텐츠 3D제작 평생숙제"

쓰리디렉터채널(주) 최세영 대표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는 국내 불교관련 콘텐츠로는 최초로 3D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보로부두르를 다룬 다큐멘터리로도 최초의 3D 영상입니다. 보로부두르는 화산재에 덮여 1000여 년간 망각의 시간을 보낸 후 19세기말 재발견됐습니다. 특히 2014년은 보로부드로가 최초 발굴이 시작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라 의미가 깊습니다."

쓰리디렉터채널 대표 최세영 피디〈사진〉는 11월 중순 고려대장경 연구소장 종림스님과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을 현장 나레이터와 인터뷰어로 동반한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편집을 진행중에 있다.

보로부두르 3D 다큐멘터리 제작은 인도네시아 국영TV(TVRI)와 공동으로 제작을 진행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영상대학(MMTC)과 업무협약을 맺어 조명, 특수장비, 촬영인력 등의 지원을 받았다.

최 피디는 이번 보로부두르 제작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인도네시아 종교협의회 불교단체대표자는 이 프로그램 제작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불자간의 협조와 교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과 협력을 통해 한니 양국의 영상, 종교, 문화 교류에도 한몫을 한 셈이죠."

이번 프로그램 제작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얻었다. "칸느 국제필름마켓에서도 유럽 방송사들이 방영권 수입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방송(EBS)에서는 해외 판권수출대행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내년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방영 프로그램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최 대표는 3D 콘텐츠야말로 불교적인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사찰은 입체적 공간으로 3D영상에 매우 적합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명찰' '선-마음의 지도' '바루공양' 등을 3D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한편, 최세영 대표는 '한국의 명찰' '석굴암'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고려대장경'으로 1996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5부작 대하다큐멘터리 '대장경로드'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부분 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정혜숙 기자



쓰리디렉터채널 최세영 대표는 11월 중순 현지촬영을 마무리하고 편집에 들어갔다.

BBS 포교 · 계층 프로그램 대폭 확대

'지금은 실버시대' 등 노년층 프로그램 신설 눈길

BBS 불교방송이 포교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BBS는 불교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블록화를 통해 경전 읽어 주는 라디오 '경전의 숲을 거닐다', 청소년 프로그램 '네 꿈을 펼쳐라',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지금은 실버시대', 다문화 프로그램 '세계는 한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불교 프로그램을 신설 '부처님 말씀 속에 함께 하는 불자가정'을 도모한다.

방송시간을 1시간 확대, 새벽 4시대에 '금강경 독경' 프로그램을 신설, 5시 아침예불, 경전공부, 한글반야심경, 불교강좌, 우리들의 찬불가, 지광 스님의 지혜의 길, 아침 7시대 오늘은 좋은날까지 3시간동안 불교프로그램 블록화했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 청취자를 위해 밤 9시부터 불교 강좌, 명상음악여행 등 포교 프로그램을 2시간 여 블록 편성했다. BBS는 "불교적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배치 공부하는 불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BS 신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방송 시간	내 용
금강경 독경	매일 04:00-05:00	새벽시간 1시간 동안 금강경 독경
오늘은 좋은날	월-일 07:00-08:00	부처님말씀과 불교음악, 편안한 명상음악으로 아침을 연다.
지금은 실버시대	월-금 16:05-16:40	불교방송과 함께 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이야기
경전의 숲을 거닐다	월-금 23:05-24:00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묻고 답하고 함께 합송하는 부처님 시대의 공부법
세계는 한 가족	토·일 16:05-17:00	다문화 시대, 열린 세상 열린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보는 시간
데스크 초대석	토 18:00-18:30	화제의 인물을 초대, 깊은 속내를 나누고 불교적 시각에서 이슈를 풀어가는 시간
네 꿈을 펼쳐라1부,2부	1부 토·일 22:00-23:00 2부 토·일 23:00-24:00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시간

4집 앨범 출시한 LMB싱어즈 기념음악회

12월 6일 오후 7시 매헌아트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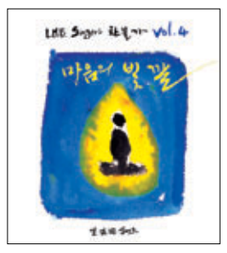
LMB싱어즈(대표 황영선)가 창작 찬불가 4집 '마음의 빛깔'을 출시 기념음악회와 후원의 밤을 연다. 'LMB 싱어즈와의 동행'은 12월 6일 오후 7시 양재동 매헌아트홀 3층에서 대중들을 찾아간다.

전문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 LMB싱어즈와 그 산하 단체인 우빠까합창단(비전문가 모임)은 신바람, 소중한 인연, 어디로 가야하나, 원, 연꽃처럼, 마음의 소리 등을 공연한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지도법사 자우 스님, 신은숙 교수(화가)가 참여한다.

LMB싱어즈는 "신심 깊은 찬불포교사가 되겠다는 초심을 흐트리지 않고 정진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음악 불사"라며 "찬란한 열일곱 곡의 불음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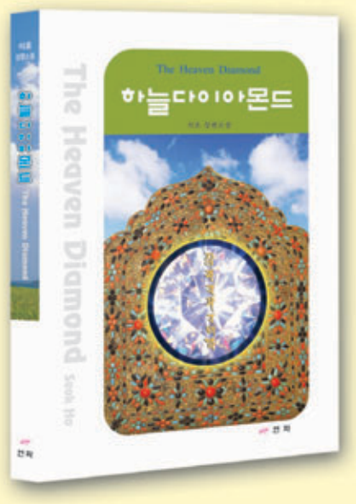
한편, LMB싱어즈는 전문 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으로 찬불가 보급과 불교음악발전을 위해 1999년 창립됐다. (02)882-1727

정혜숙 기자



LMB싱어즈 창작 찬불가 4집 '마음의 빛깔'〈사진 위〉을 출시, 기념음악회를 연다.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완성체 · 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보시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은이: 석호 A5(145×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개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포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 · 도별 책임자 1분씩 모십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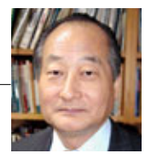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지붕부=천공, 무량한 보주들로 가득해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매화점(梅花點)→무량보주(無量寶珠) ㊦



'무량보주' 란 말은 '무량한 보주' 라는 일반적 표현을 전문용어로 만든 것이다. '무량한 보주' 란 일반 어휘요, '무량보주' 라면 용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전문용어이므로 그 내포하는 바가 크다. 즉 하나의 보주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생기는 과정을 보아왔는데 이미 卐이란 조형이 결국 보주에서 '제1영기싹' 이 생겨나 그 각각의 '제1영기싹들' 이 '보주' 가 되는 것을 보아왔으며, 바로 매화점이라 잘못된 용어가 무량보주가 되어 마침내 태극이 되는 것이니 참으로 조형언어의 세계는 불가사의할 뿐이다. 그 전개과정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보주의 단면도와 입면도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필자가 찾아낸 조형언어의 성립과정을 충분히 그려서 보이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그림 ①)

여기에서 앞 회에서 증명하여왔듯이 제1영기싹이 보주가 되는 '고차원의 변화과정' 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불가사의하고 고차원적인 변화과정이 바로 '화생(化生)' 이다. 화생이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이처럼 엄청난 오류가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용어가 중요한 것은 용어에 풍부한 개념을 부여하기 때문이며, 올바르지 않은 용어는 아무 내용이 없는 올바르지 않은 사어(死語) 즉 죽은 용어이다.

보주란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압축한 조형이요,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여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삼천불전(三千佛殿)인 것처럼 여래라는 존귀한 존재는 바로 보주와 통한다. 그러므로 여래=보주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진리는 문자언어로 기록한 경전에는 없으며, 조형언어로 나타낸 조형미술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여래의 정수리에서부터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며, 보살의 보관에서는 줄줄이 보주가 생겨나는 조형이 성립한 것이며, 이러한 조형은 여래와 보살의 정신, 혹은 영혼으로부터 발산하는 강력한 영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일반 서민의 여인이 쓰는 족두리에도 보주가 연이어 나오는 조형을 명징하게 볼 수 있다.(그림 ②)

여래가 바로 무량보주라는 것은 이미 나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증명했으므로 읽어보기 바란다.(kangwoobang.or.kr 블록 '한국미술 올바로 읽기' 35회~38회를 참고할 것) 불화에는 하늘에 무량보주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삼천대천세계에 대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무한한 여래가 충만하다는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단청에는 예부터 지켜온 조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즉 중앙의 보주에서 사방팔방으로 각각 직선으로 연결된 보주들이 있다. 그것은 중앙의 보주에서 사방으로 생겨나는 무량한 보주들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조형을 필자가 매화점에서 무량보주란 용어로 바꾸어 지은 것이다. 그런데 동국대 박물관 기획전에 출품된 개인 소장 조선 전기의 작은 불화에서 검은 하늘(玄天)에서 바로 중앙의 보주에서 선으로 연결된 보주들의 조형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그림 ③-1, 그림③-2)

그러므로 지난 연재에서 불교 건축의 모든 부재의 마구리에 검은 색(玄色)을 칠하고 흰 무량보주를 그려 넣은 까닭을 알았다. 즉 건축의 지붕부는 천공을 가리키며 그 천공에 무량한 보주들로 가득 찬 것을 나타낸 것임을 알았다.

지금까지 매화점이 왜 올바르지 않으며 왜 그런 조형이 무량보주인가 증명하여 왔는데, 실은 이 연재를 정독하여 읽어보면 그 전체가 보주에 관한 설명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보주란 그만큼 상징성이 커서 몇 회에 걸쳐 설명하기 어렵다. 불교미술에서 용(龍)모양 영기문과 연꽃(蓮花)모양 영기꽃을 올바로 파악해야 보주가 보이기 시작한다. 즉 용 자체가 보주이며 그 큰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기며, 영기꽃의 씨방에서 역시 고차원의 변화과정을 거쳐 무량한 보주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이나 〈반야바라밀다심경〉, 그리고 〈화엄경〉 등 불교경전을 이해하려면 평생 걸릴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불교의 조형미술 역시 불교사상의 핵심을 간략히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역시 평생 걸리면서 그 핵심에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나 자신도 그런 과정에 있음을 말씀 드린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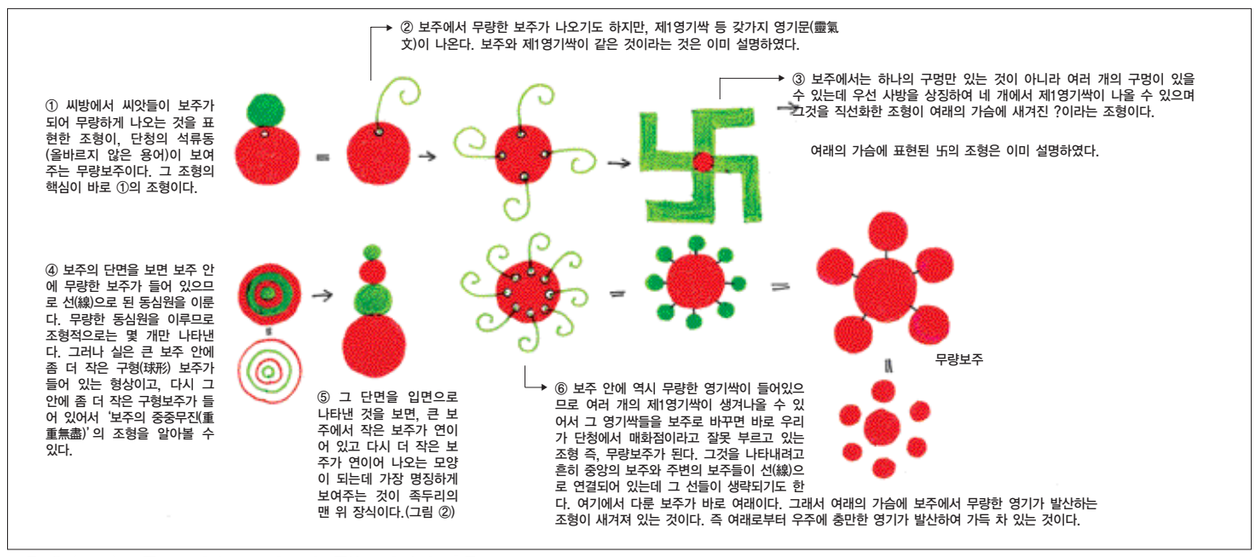


그림 ① (참고) 보주라고 하는 조형언어의 문법과 해석의 총정리



그림 ③-1. 약사 삼존도, 부분, 천공에 가득 찬 무량보주. 조선시대, 1565년 작



그림 ② 족두리의 위의 네 곳에 무량보주 생성의 조형이 있는데, 중앙 것만은 반구형 받침이 있는데 이것도 보주이다. 아래로 부터 춘천백옥-자만옥-비취-자만옥-진주, 여기에서 이런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주는 보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③-2. 부분

藥이 되는 사찰음식

겨울철 건강 지켜주는 '유자화채'



유자화채

△재료(4인 기준)

○ 유자 5개, 꿀 5큰술

○ 배 1개, 석류 2큰술, 대추 3개, 물 4컵, 시럽 약간

△만드는 법

① 유자는 끓는 물에 살짝 넣어 데친 후 찬물에 담근 후 부드러운 면보로 깨끗이 닦아낸다.

② 손질된 유자는 4등분 후 겉껍질, 속껍질, 알맹이로 분리 한 후 얇게 채썬다.

③ 곱게 채썬 유자를 각각 꿀에 재운다.

④ 배는 채썰고 대추는 돌려 깍이 한 후 채썬다.

⑤ 그릇에 꿀에 재운 유자와 배를 돌려담아낸다.

⑥ 먹을 때 물과 시럽을 기호에 따라 부어 먹는다.

생강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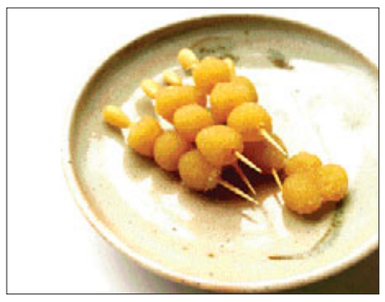
△재료(4인 기준)

○ 생강 300g, 꿀 4큰술, 소금 약간, 생강 녹말

○ 잣가루 적당량

△만드는 법

① 생강은 껍질을 벗긴 후 믹서기나 강판에 곱게 갈아서 물에 살짝 씻어 건지를 물기 없이 꼭 짜고 물은 가라앉혀 윗물과 생강 녹말로 분리한다.



② 물기를 짠 생강 건지를 냄비에 담고 꿀과 소금을 넣어 뭉쳐지는 정도로 졸인다.

③ 잣은 키친타올을 깔고 밀어 기름기를 없애 포슬포슬한 잣소금 형태로 준비한다.

④ 생강을 먹기좋은 크기로 모양을 잡은 후 잣가루에 묻힌다.

생강은 양기 돋우고 찬 기운 제거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유자는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기에 좋은 과일 중의 하나로 비타민 C 함량이 사과의 25배나 들어 있어 감기와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혈관에 쌓인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헤스페리딘 성분은 껍질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 성분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모세혈관을 강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 성분도 아주 풍부하다.

유자청이나 발효액을 담아 일상생활 속에 활용해도 좋으며 요즘 같은 김장철에는 적당량의 유자를 김치 속재료로 섞어 사용할 경우 유자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김치의 염도를 낮춰주게 된다.

유자의 선도가 좋을 때는 생유자를 꿀에 재워 배와 석류와 함께 시원하게 먹을 경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아주 좋다.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뿌리채소로 동의보감에 건강(말린 생강)은 소화제 기능을 담당하여 양기를 돋우고, 오장 육부의 차가운 기운을 제거하는데 좋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 고서에서는 피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장기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하며 대사를 조절하고, 가스를 배출하여 소화를 돕고 각종 병을 방어하는 효능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생강은 요리에 있어서는 감초역할을 하면서 차로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철인 지금 생강으로 다식으로 만들어 따뜻한 차와 함께 매일 먹을 경우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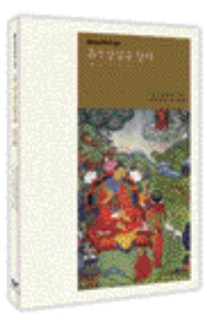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한정신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행 지음 / 신국판 / 318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한정신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저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3-01-047918 대한불교비봉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인식의 표상에 불과하다"



불교심리학의 정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강의
이계묵 역해
246*178mm | 흑백 | 332쪽 | 15,800원
마음 밖에 따로 대상이 없음을 설한 대승 심리논서
대소승을 막론하고 〈유식삼십송〉은 불자라면 꼭 연구해야 할 필독서다. 마음을 닦아, 마음을 깨달아 안심(安心)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불교심리학의 정수가 바로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까닭이며, 마음을 주제로 하여 교학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유식삼십송 해설은 동학사 강원본을 참조하였으며 일본 龍谷大學 불교학 교수인 深浦正文의 唯識三十頌論 解說本을 관응노사가 번역한 譯本(역본)을 참고하여 현대어로 풀어 엮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眞)참회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는 현재 31종 6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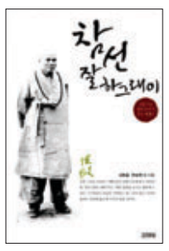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0 ~ 1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8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4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9	우리말 능엄경	황정원	운주사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10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삼천 배 해도 뵐 수 없지만 그 말씀 늘 곁에



참선 잘 하그래이
김형효 · 한승효 외 지음
김영사 펴냄
1만5천원



성철 스님과 아비라기도
장성욱 지음
김영사 펴냄
1만3천원



삼천 배를 해야 만날 수 있었던 성철 스님. 이제는 삼천 배를 해도 스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스님이 남긴 삶과 가르침은 늘 우리 가슴 속에 있다.

"삼천 번의 절은 꼬박 하루 동안 해야 하는데, 그 절을 하는 동안에 바보가 아닌 한에는 성철 스님을 만나 뵙고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고가 모두 스스로 풀릴 터이다. 그게 풀렸다면 스님을 뵈어야 하는 이유가 소멸되는 것 아닌가."

성철 스님,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삼천 번의 절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그를 만날 수 없다. 이제 그를 만나는 길은 그를 그리워하는 길 밖에 없다.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을 그리는 이들이 글을 모아 스님을 만나러 간다. 〈참선 잘하그래이〉는 문단, 예술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계의 저명인사 스물일곱 명이 스님을 추모하는 에세이집이다.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오랜 기간 준비했다.

한 시대에 가르침을 주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거룩한 일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후대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 모두의 복인 것이다. 한 종교에 귀의한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초월한 가르침을 남긴 성철 스님은 많은 한국의 선지식들 중에서 가장 큰 울림을 남긴 선지식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1967년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대중을 향한 가르침을 시작한 성철 스님은 암자를 막고 10년간의 동구불출과 8년간의 장좌불와로 수행의 최고경지를 이루고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스님은 한 발자국도 산문을 나서지 않고 세인의 가슴에 길이 남을 법어를 남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짧으면서도 많은 의미를 품은 가르침은 30년이 지나도록 대중의 가슴에 머물고 있다.

책의 필자들은 사계의 저명인사이다. 크게 분류하여 본다면 큰스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뵙지는 못했지만 출판이나 방송 등 간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감화된 사람들이다.

삼천 배를 다하지 못해 뵙고 싶었던 선지식을 뵙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야기, 삼천 배를 하고도 스님을 먼발치에서 밖에 볼 수 없었던 이야기, 열반 소식을 듣고 다비장으로 달려갔던 이야기, 흉내 낼 수 없는 삶에 감동하고, 다시 볼 수 없음에 슬펐던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감동하고 그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사해하며 쓴 글들은 깨침의 세계를 향한 진지한 노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스물여섯 편의 이야기를 읽고나면 성철 스님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인연의 깊고 얕음을 떠나 생존 당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성철 스님은 속인으로 태어나 부처의 길을 걸었다.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에 취임하고 그해 겨울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을 위해 하루에 두 시간씩 법문을 했다. 그 유명한 '백일법문'이다. 백일법문은 불교의 근본 진리가 선과 교를 통해서 중도에 있음을 밝히니 선종의 정통 종지는 돈오돈수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18년 동안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퇴설당과 백련암에 머무르면서 흔들리지

저명인사 27명 스님 추모 에세이
'구법의 길' 가치 보여주는 글들
성철 스님의 '아비라기도' 자세히 소개
고통 견디어 낼수록 마음 평온해지는 기도

않는 선풍(禪風)으로 가야산 호랑이로 불렸다. 1993년 11월 4일 새벽, 삭발하고 '성철'이란 법명을 받은 해인사 퇴설당에서 "참선 잘하라"는 한 말씀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오직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용기, 그 결의를 평생토록 지킨 철저한 수행, 무소유와 절약의 정신은 바로 '우리시대 부처'의 모습이었다. 한 시대를 책임져주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일 것이다. 〈참선 잘하그래이〉는 그렇게 한 시대를 가르치고 떠난 스승을 잊지 못하는 이들이 애타게 스승을 부르는 에세이다. "자기를 바로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르시던 참되고 소박한 가르침이 가슴과 가슴에 남아 있고, 여전히 가슴에서 가슴으로 옮겨 붙고 있다.

"단지 3박 4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기도로 몸과 마음이 그토록 청정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함께 출간된 〈성철스님과 아비라기도〉는 삼천 배와 능엄주 독송, 아비라기도를 40여 년간 몸소 실천해온 저자의 체험록이자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이 만든 아비라기도는 중국 당나라 때 총림의 수행법으로 전해 오던 것으로,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기도다. 기도는 "옴아비라 훔 캄 스바하"라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장궤합장을 하고 외우는 기도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먼저 108배의 예불대참회문을 마친 후 법신진언을 30분간 외우고 대불정능엄신주를 독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시간, 이것을 입재일인 첫날엔 5회, 둘째, 셋 째 날엔 8회, 마지막 날에는 3회를 반복한다. 쉽지 않은 기도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어 낼수록 마음은 그지없이 평온하고 몸은 한없이 가볍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환희심과 자신감이 솟는다고 한다. 책은 아비라기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매뉴얼이다.

저자는 "참선의 경지가 대원경지(大圓鏡智)에 이르렀음을 아는 방법은 영가대사의 말처럼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하고 독약을 마셔도 전혀 동요가 없는 한가롭고 한가로운 경지를 체득하는 일이다. 아비라기도는 참선을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바탕이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초연하게 삼매에 들어 화두를 타파하면 기도 중 득도할 수도 있다."며 "진정 고요한 무아의 상태로 기도에 임해야지 무엇인가 체험하고 얻기 위한 기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하는데 앞장서온 원택 스님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장교수님의 개인적인 체험담이지만 큰스님 계실 때 큰스님을 친견하고 지금까지 백련암이나 문도사찰 혹은 집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해 오시는 모든 분들의 체험록이다."며 30년 동안 품어왔지만 미처 풀지 못했던 숙제를 성철 스님의 열반 20주기에 맞추어 발간하게 되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장〉 원문의 맛을 느낀다

서장, 대혜보각선사서

일휴 역주 | 정우서적 펴냄 | 3만5천원



한국 선수행의 대표적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서장〉은 중국 송나라의 대혜종고(1088~1163)가 주로 사대부들로부터 받은 선(禪)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해준 편지 65편을 모은 책이다. 〈대혜보각선사서〉, 〈대혜서장〉, 〈서〉 등으로 쓰거나 부르기도 하나 주로 '서장'이라 한다.

'서장'은 편지라는 뜻으로, 선사들의 일상적인 소식이나 종지를 적은 서간문을 말한다. 여러 선사들이 서간문을 통하여 자신의 선법을 전했으며, 그 중 대혜종고의 〈서장〉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서장〉은 미려하고 섬세한 번역과 자세하고 풍부한 주석이 돋보이며, 또한 와전과 오해의 부분에 대한 고증이 돋보인다. 다양한 문법 용례를 제시하고, 구결과 음을 달아놓음으로써 초보자라도 소리 내어 읽다보면 〈서장〉의 원문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박재완 기자

책 한권에 '불교' 정리

불교신강

문기정 지음 | 문앤북 펴냄 | 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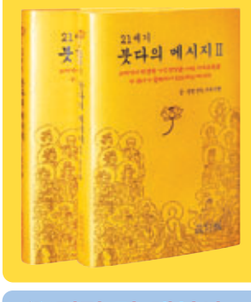
책 한 권에 '불교'를 담을 수 있을까? 〈불교신강〉은 책 한 권으로 '불교'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신강〉은 그래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에게 권한다. 이 땅 어디에나 남아 있는 불교문화유산, 우리 삶 깊숙이 녹아 있는 불교적 가치관, 그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종교로서의 불교를 떠나 불교를 알아야 하며, 그것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게 저자의 말이며, 출간의 취지다.

사성제 · 12연기 · 8정도 · 육바라밀 등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불자라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뽑아 설명하고 있다. '불교신강(佛教新講)'이다.

박재완 기자

부처님의 계심을 선언한 영산불교 현지사가 세상에 던지는 사자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저.
각 450쪽 475쪽 가격 각권 18,000원
21세기의 금강경.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계심을 선언하다
베스트 셀 러

경전 및 해설서
《영산불교와 본문묘법연화경》 자재 만현 저. 380쪽. 가격 25,000원
〈법화경〉의 근간인 본문8품을 재편집하고 자재만현 큰스님의 해설을 실어서 법화경 이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역작
《영산불교 새천수경》
자재 만현 저. 131쪽. 가격 7,000원
관음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기존 〈천수경〉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이 편집한 역작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원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일불승의 입장에 선 새로운 금강경해설서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저. 594쪽. 가격 15,000원
처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

행복하게 잘 사는 길
〈관음태교〉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187쪽. 가격 10,000원
태교를 통해 행복한 삶의 출발을 안내하는 길잡이
〈관음태교에서 부처님 천도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320쪽. 가격 15,000원
불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작, 행복한 죽음을 안내하는 보배같은 책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30쪽. 무료배포
부처님께서 3악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베푸시는 특별한 의식인 천도재에 대한 해설
신불교 영산불교의 법세계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김중섭저. 715쪽. 가격 25,000원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영혼체 윤회론〉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158쪽. 가격 10,000원
불교역사상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 획기적인 영혼체윤회론을 천명하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339쪽. 가격 15,000원
금세기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에 대해 불자지성인들이 불교사적인 의미를 천착하고 있는 비평서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집 1 ~ 11권〉
자재 만현 큰스님 저. 각권 500페이지, 가격 20,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269쪽.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요약 해설하다
〈붓다의 메시지 존평〉
조우석 외. 512쪽. 가격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들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489쪽. 가격 1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수행적 측면에서 해설하다
〈영상불교의 법세계〉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80쪽. 가격 10,000원
육도윤회의 실상, 칭명염불 수행의 실제, 진정한 효행의 길인 현지사의 천도재를 설명하고 있다
〈칙천무후〉
송도현 저. 238쪽. 가격 15,000원
광명 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칙천무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말한다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분노 치밀어 오를 땐 잠시 멈춰라



잠시 멈춤
페마초드론 지음
김미옥 옮김
담앤북스 펴냄
1만2천원

분노를 조절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또 있을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범죄들이 모두 이런 분노조절 실패에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9월 미국 워싱턴서 13명이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역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었다.

이런 장애는 비단 미국의 일뿐만이 아니다. 부모를 죽인 사건,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이 책상을 집어던지며 선생님에게 반항했던 사건들 역시 주인공들이 모두 분노조절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런 화를 참지 못하는 장애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억압받거나 사랑을 못받고 자라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정신분석 관련 학자들은 조언한다. 그렇다고 화를 조절 못하는 이 장애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분노와 충동이 밀려올 때 누군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앙갚음이나 화풀이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심호흡을 하면서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는 바로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타고난 열린 마음' 에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잠시 멈추고 여유를 가지면서 폭력과 공격성의 '늑대' 대신에 용기와 인내의 늑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페마 초드론은 세계가적인 영적 구루(스승)이다. 이미 30년 넘게 티베트불교 수행을 해온 여성 수행자이기도 하다.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명상 매거진인 〈왓킨스〉지는 달라이 라마, 파울로 코엘료, 넬슨 만델라 등과 함께 페마 초드론을 '전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인물 100인' 에 2010년부터 4년 연속 등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페마 초드론이 이책에서 전해주는 낡은 습관과 두려움 그리고 충동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오랜 좌선도 깊은 명상도 아니다.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그저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 하는 것뿐이다. 대체로 우리는 잠시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숨겨진 타고난 자성을 끄집어내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된다.

우리가 누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기분 나쁜 소식을 듣고는 당장에 벌컥 화를 내거나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된다. 잠시 멈추는 것은 온전히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과 활짝 깨어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사이의 찰나의 대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저 몇 초 동안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저자는 이 책의 많은 장에서 티베트어의 '셴파(shenpa)' 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 단어는 '집착' 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가려운 곳을 긁는 고통 '이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셴파를 자주 경험할 수 있다. 누군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마음속에서 금방 울컥하며 흥분이 된다. 시쳇말로 낚여 버린 거다. 이런 흥분은 재빨리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말이나 행동, 사로잡힘의 연쇄 반응이 재빨리 일어난다. 만약 심하게

멈추면 자성 끄집어 낼 수 있어
극단적 반응때 심호흡 큰 효과
가장 본질적 집착…에고 그 자체
순간멈춤 터득, 공격성 줄여줘

중독된 사람이라면 이 불편함을 가리기 위해 곧장 중독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저자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셴파' 는 에고 그 자체라고 말한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집착이다. 정체성이 위협받는 것을 경험할 때 아집이 매우 강해지고 자동적으로 셴파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물이나 견해, 의견에 대한 집착 같은 부산물이 생겨난다.

저자는 이런 셴파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자제하는 일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바로 이를 거부하기 보다는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셴파를 알아차리고, 무의식적으로 셴파를 실행에 옮기거나 억제하는 대신 셴파를 똑똑히 보고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셴파를 알아차리고는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경험하려 할 때, 우리는 타고난 지성을 따르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저자는 공격성을 줄이는 훈련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이 순간에 배우는 아주 손쉬운 방법중 하나는 시나브로, 잠시 멈춰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바로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단 몇 초 동안 뿐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한가지 방법중 하나라고 저자는 덧붙인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좁은 견해에 갇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의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른 사회' 다. 단지 우리들 각자가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 너머의 것을 보고, 타인의 크나큰 고통과 세계의 불안정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저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물질에 집착보다는 물건 아껴쓰는게 더 중요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스님 지음 | 연화 펴냄 | 1만3천원



금강경을 소재로 한 팔공산 공산사 주지 석호 스님이 쓴 소설이다.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수보리란 한 수도승이 2천5백년 동안 하늘다이아몬드라는 보배를 쫓아 살아온 이야기이다. 하늘다이아몬드는 도리천 보살들이 만든 아름다운 보배로서 형체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가공할 힘을 지닌 무기이다. 하늘 다이아몬드는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인류에 대한 경고이자 인간 내면에 자리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 책은 2천5백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에서 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부처님으로부터 하늘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수보리가 그 보배를 보려하지만 하늘다이아몬드는 이미 부처님의 명령으로 문수보살이 코레국 금강산을 향해 가지고 간 뒤였다. 그로부터 수보리는 하늘다이아몬드를 쫓아 천축에서부터 금강산까지 문수보살의 뒤를 따라간다. 하지만 2천5백년 뒤 근대에 이르러서야 조선땅 금강산 유점사에서 하늘다이아몬드와 만나게 된다.

환생에 환생을 거듭한 세월 속에 일어난 이야기가 현대의 주인공 소보 스님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씩 베일을 벗겨 지는게 이 소설의 흥미 포인트다. 주 무대는 유점사와 동화사인데 이는 분단과 통일의 상징성을 띤 곳이다. 그 중간에 한국전쟁이란 서사적 요소가 더해져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도 이 소설의 매력이다.

특히 소보 스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전쟁통에 유점사에서 동화사까지 하늘다이아몬드를 옮기는 과정이 극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간화선의 방법을 실제 수행 모습을 서술해 밝힘과 동시에,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없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는 진실을 풀어간다.

금강경을 소재로 쓴 소설
한국전쟁 서사적 요소 가미돼
수도승 하늘다이아몬드 쫓는 것 묘사

출가 수행자인 저자의 실제 경험이 토대가 돼 써진 것이어서 사실적으로 와 닿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버팀목이자 굴레인 하늘다이아몬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깨달음의 실천인 만물에 대한 사랑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이 소설의 대단원이다. 저자가 이 소설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중들이 물질에 집착하기 보다는 물질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 소설에서 독자에게 전하려 한 것은 또하나 있다. 자기가 취한 태도가 옳은 결정이 아니라 해도 언제나 그 결정은 옳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풀어 해석하면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각각 합당한 이유로 말미암아 생겨나며, 그 방향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완전성을 지향한다는 말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러니까 완전성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의 길고 짧음을 결정하는 일은 확연히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인 석호 스님은 "이 교훈은 불교만의 특정 종교의 가르침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가 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소설을 두고 불교 소설이라 제한해 명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니까야 독송은 부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과정"

붓다 한말씀

이미령 지음 | 불광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붓다의 원음 또는 친설이라 불리는 초기경전 니까야를 옛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동국역경원서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윤문하는 일을 했으며, 현재 다양한 매체에 경전 관련 글을 쓰는 저자가 '초기경전의 내용이 힘든 삶에 비타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갖고 집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고민거리에 맞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붓다의 지혜를 전한다.

책에선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스승과 제자, 고용주와 고용인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관계 맺기의 괴로움과 그 본질을 들춘다. 또한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붓다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가하면 권력과 계급, 경쟁과 사유화 등 세상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인간 욕망의 역사를 설명하며, 욕망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정체를 내밀하게 들여다볼 것도 권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 초기경전을 함께 읽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7년 전 80명으로 시작한 초기경전 읽기 모임이 끝났을 때는 10여 명만이 남을 정도로 쉽지 않았다.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경전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임을 이어왔다.

저자와 함께 경전을 강독한 사람들은 책을 덮고나면 일상생활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였다. 더군다나 초기경전이 붓다의 초기 말씀을 담은 것이라는 기초지식 정도만 알고 모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5부 니까야를 완독한 결과 "내가 생각하는 붓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언어로 느낌을 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제 원전으로 읽어봐야겠다" "다른 경전과 연계해서 다시 읽어보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니까야의 매력에 푹 빠졌다다.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경전이라는 텍스트가 각 개인에게 녹아들어간 본보기이며, 이처럼 각자만의 언어로 말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자 경전 읽기의 완결이라고 말한다. 경전은 지금 이 시대에서 붓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초기경전 니까야를 읽는 것이 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붓다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강조다.

책을 통해 전해 듣는 붓다의 지혜는 친근하다 못해 웃음을 자아낸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술 한두 잔에 하루치의 시름을 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붓다는 술이란 재산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며, 불화와 병이 생기고 불명예가 따르는 것은 물론 뻔뻔스러워진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먼저 돈이 새어나가는 '음주' 부터 자제하라고 충고한다. 또한 친구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조언한다.

사랑에 대한 붓다의 말씀은 어떠할까? 무엇보다 붓다가 "결혼해, 결혼해" 라고 부추기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붓다는 오히려 변하기 마련인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를 두고 "대지를 파헤쳐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갠지스 강을 횃불로 죄다 말려버리겠다고 덤비는 사람"과 다르

초기경전 읽기 모임 7년 결과물
일상서 실천하는 붓다 지혜 전해

지 않다고 할 정도로 말한다. 또한 사랑과 결혼은 현실이므로 사랑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빠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이른다.

왜냐하면 사랑에 내 자신을 온통 빼앗긴 뒤에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거나 달라지면 그땐 미친 듯이 분노와 박탈감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사랑의 열병을 앓았던 딱 그만큼 아니 그 곱절에 해당하는 지독한 번민에 사로잡힐 것이란 것도 저자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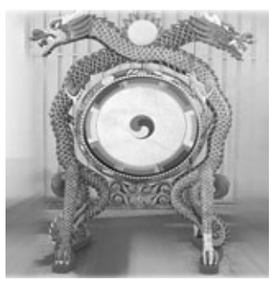
고용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붓다의 말씀을 인용해 전한다. "고용된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을 주고 적절한 임금과 식사를 줘야 하며, 질병과 관련해서는 고용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일하는 사이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돈벌이, 밥벌이 차원을 넘어서서 능력에 맞게 일을 배당하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가, 병가, 특별 휴가 등은 2,600여 년 전 붓다께서도 권장했던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판형도 일반책보다 작고 읽기 쉽게 편집돼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필요할때마다 인생 지침서로서 활용하기에 안성마춤이다.

김주일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금강경과 경제 ㊤

사회복지 지향하는 소비·절제·보시해야

정재락 (전 영산대 교수)

1.들어가는 말

흔히 불교는 세속적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인지 타종교에서 불교를 폄하하는 말 중 단골메뉴가 '불교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다' 이다.

심지어 어느 유명 교회의 잘 나가는 목사님은 2005년 발생한 쓰나미로 폐허가 된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언급하며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는 까닭이라' 해서 그에 대한 논쟁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도 있다.

이에 대한 불교신자들의 반응이 재미있다. '일본이 어디 가난한 나라인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예수를 믿는 나라도 가난한 곳이 많지 않은가' 등 정면으로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이다.

정말 부처님께서는 세간 사람들이 가장 가혹하게 부딪치는 경제 현상에 대해 침묵을 지키신 것일까. 아니면 재가 신도들을 위해 설하신 부처님의 교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일까.

근래 우승택이라는 분이 불교 TV에 나와 '32개의 경제지표로 공부하는 금강경' 이라는 강의를 해서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남의 돈을 맡아 불려주는 증권사 자산관리사인 그가 한때 잘못된 투자로 자신과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후 깊은 시름 속에서 우연히 금강경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자신이 처했던 모든 문제들의 원인과 해답이 있더란다. 금강경의 '공', '무아' 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 생기니 부자는 물론이거니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 무엇이건 성공할 수 있다는 홍보대사가 되어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는 물론이거니와 부자 되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불교와 재산증식에 관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연예인 못지않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문 불교학자도 아닌 그가 투자전략을 금강경의 32품에 대입하여 조목조목 강의한 아이디어도 참신했지만 논리의 비약 없이 합리적이고 공감 가는 비즈니스의 경험을 적절히 섞어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가장 예민한 현실적인 욕구를 솔직담백하게 파헤쳐 풀어나간 것이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경과 경제' 강론에서는 첫째, 초기불교 경전에 실린 붓다의 말씀을 인용해 초기불교의 경제철학을 이해하고 둘째, 대승불교의 출현과 반야부의 핵심인 금강경과 유식사상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금강경의 사구게를 통해 경제 원리를 소개하며 넷째, 결론과 함께 강론을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초기불교와 경제

석가세존의 원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아함부' 의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과 부처님을 둘러싼 초기 교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거기에는 물론 출가 비구들을 위한 근본 가르침인 삼법인과 존재의 보편적인 모습인 연기법을 인간의 실존에 비추어 열두 단계로 설명하신 십이 인연법을 통해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깊이 통찰하여 그로부터 벗어나 니르바나의 세계로 안내하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출가 수행자들의 경제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었다. 수행자들이 걸식으로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이 당시 인도의 사회풍습이었으며 또한 거처도 나무 밑 혹은 바위 위를 권장하였기 때문에 경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석존도 예외가 아니어서 병자를 제외하고는 그날 분의 걸식이 남으면 충분히 걸식하지 못한 동료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은 강, 들판에 버려 물고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였지 다음날을 위해 남겨서도 안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 소유품의 수가 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불교 교단의 경제적 원리는 철저한 무소유이며 생산과는 거리가 먼 공동소비체적이라 볼 수 있었다. 당시에도 출가교단의 수행자들은 무위도식하며 국가나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잡아함경〉에 실린 내용이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께서는 마가다나라 남산에 있는 '한포기 띠(茅)' 라고 하는 바라문 촌에 계시었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씨를 뿌리는 데에 필요한 오백 자루의 괭이를 소에 메웠다. 때 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기에 스승은 한쪽에 가 서 계시었다.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문(沙門)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멍에나 호미, 호미날, 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바라문이여, 나의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멍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괭이자루, 의지는 잡아매는 새끼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내 멍에를 떼어 놓습니다. 노력은 내 황소여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피안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 이슬(甘露)의 과보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잡아함 98경〉

붓다의 말씀은, 황폐한 땅을 농부가 경작하듯 불교수행자 또한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경작하니 무위도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경제행위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가 신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세적인 재(財)를 존중할 것을 설하고 있다. 우리는 대개 석가세존의 모습을 부처님 입멸 후 승단의 출가 비구들을 위해 결집된 철저한 무소유와 걸식에 의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가르침을 통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부지불식간 경제행위는 천박하고 탐심 가득한 비불교적인 행위라고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재가 신도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함을 높이 평가한 경전도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상인이 있어 오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수 없고 이미 얻은 재산을 늘릴 수도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어떤 상인이 있어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도 열심히 일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것이고 이미 얻은 재산을 더욱 늘릴 수가 있느니라." -증지부 경전3집차장품 〈남전대장경〉

한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소비와 절제, 보시를 통해 공동체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말씀도 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왕사성 성안에 살고 있는 장자의 아들 신가라에게 여러 방편으로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설하여 주셨다. 그 가운데는 재산을 탕진하여 망하는 여섯 가지, 첫째 술과 약물에 중독되는 것, 둘째 일없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빈둥대는 것, 셋째 축제나 구경 같은 것에 탐닉하는 것, 넷째 노름에 취미를 두는 것, 다섯째 나쁜 이들과 어울리는 것, 여섯째 특별히 게으른 것 등이 있다. 이처럼 법답게 얻은 재산일지라도 사치하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어 복을 쌓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는 것이 〈육방예경〉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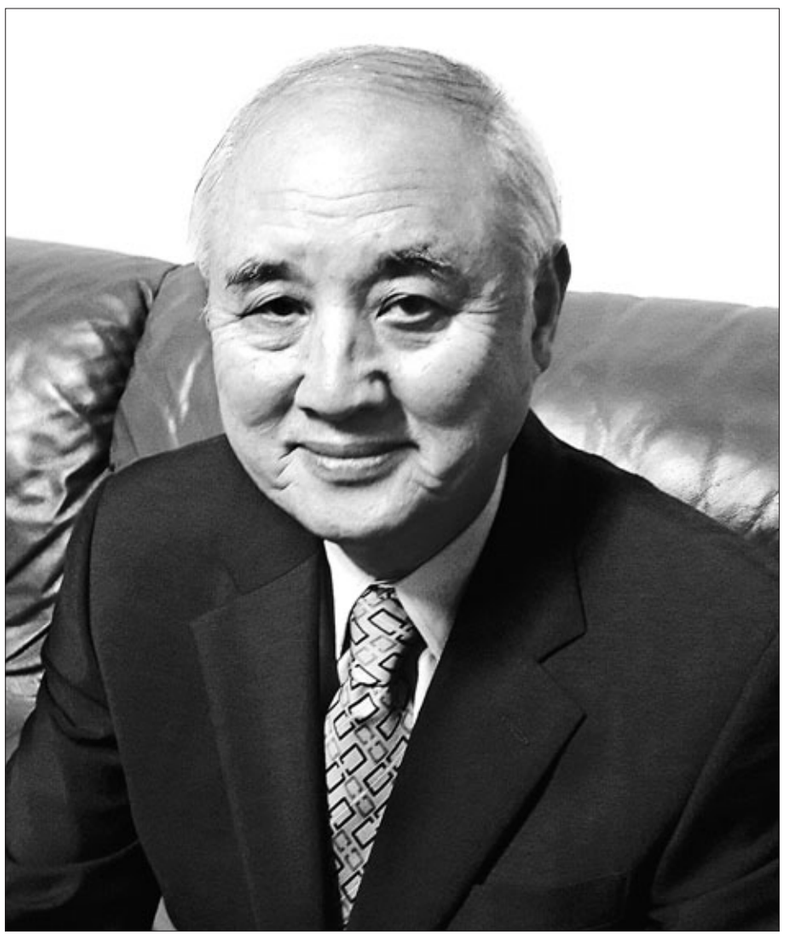
이는 적극적인 내핍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불교의 중도사상에 의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힌 당시 사회 통념상 적당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권하는 것이다.

〈앙굿타라 니까야〉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수록되어 있다.

"좋은 집안의 사람은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 균형이 잡힌 생활을 하여 지나치게 사치하지도,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신도들의 경제행위, 특히 재산의 획득과 증식에 대한 불교의 기본정신은 금욕적 노력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얻어진 재산의 분배에 관한 교설을 살펴보면 〈잡아함부〉에서는 수입을 4등분하여 사분의 일은 생활비에 쓰고 사분의 이는 생업을 경영하는데 재투자해서 이윤을 얻도록 하며 사분의 일은 저축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궁핍에 대비하도록 권하고 있다. 결국 소득 중에서 생활비와 저축에 쓰인 나머지를 재생산을 위해 회전시키라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초기불교는 영리추구를 오히려 권장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인도사회의 정통 종교인 브라만교는 사성계급제도에 의해 출생에 의한 직업의 구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어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붓다는 출생상의 신분에 따른 직업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붓다를 찾아오는 대중의 대부분은 경제 활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상인계급이 주류였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붓다와 출가승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우기에 비를 피하며 안거하시도록 곳곳에 정사를 지어 헌납했던 상인들을 위해 붓다께서 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재락 교수는 … 전 영산대학교 항공운송전공 교수를 지냈다. 에어컨설팅 컨설턴트와 함께 카고 아카데미 원장이다. 대한항공 및 KLM네덜란드항공사, Kuhne & Nagel Korea 부사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항공물류이론과 실제〉, 〈항공운송개론〉이 있으며 논문은 〈국제물적유통에 있어서 항공화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항공물류개념의 현상론적 접근과 항공물류시스템 연구〉 등이 있다.

초기불교 수입 재투자로 이윤얻는 등 재가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영리추구 권장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 이득 추구에 머물지 않고 보시로 공동체 삶에 도움줘야

3. 대승불교와 금강경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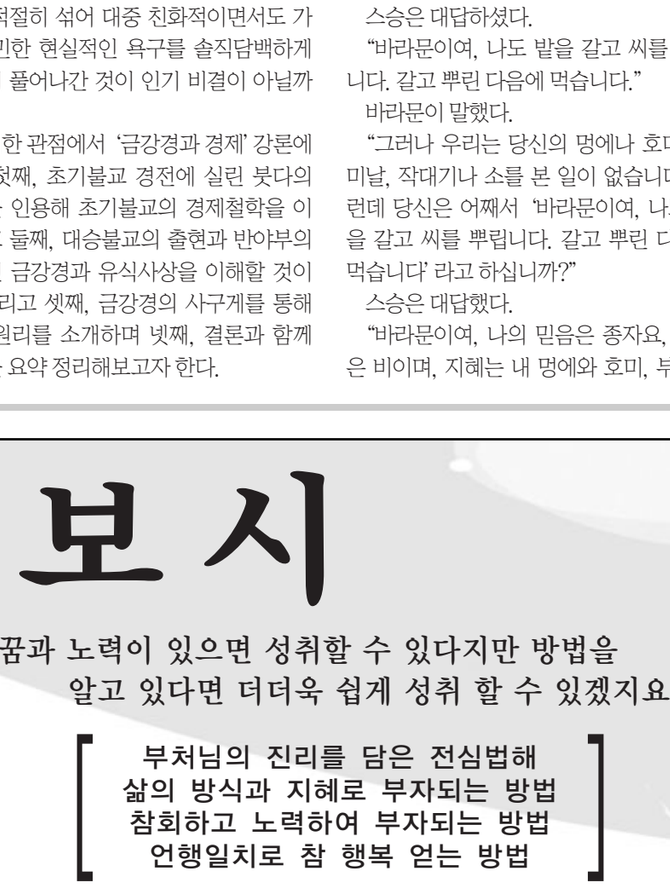
붓다가 입멸했다. 그 후 여기저기서 붓다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논쟁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 교단의 말씀을 남기어 후세에 전하고, 또 붓다의 말씀에 대한 통일을 기해 제자들 사이 논란의 여지를 줄일 목적으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라자그리하(왕사성) 칠엽굴에 모였다. 이 칠엽굴은 우기동안 비구들이 비를 피하며 수행하던 곳이었다. 이것이 바로 가섭존자가 상좌가 되어 아난존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승단의 출가 비구들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1차 결집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부처님의 열반을 전해들은 갠지스 강 유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스승의 가르침을 전도하던 많은 제자들이 1차 결집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때 참석치 못한 제자들이 같은 도시의 다른 곳에서 별도의 결집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 2차 결집에는 1차에 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비구, 비구니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많았다고 하며 따라서 이들이 기억하는 부처님의 설법 내용은 승단의 비구들 위주로 결집된 1차 결집 때와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결집 때에는 반야경과 반야부의 핵심인 금강경이 포함되지 않고 2차 결집 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집된 경전들의 대부분은 1,2차 공히 몇몇 도덕적 공리들을 제외하고는 비전(秘典)으로 전수되다가 2세기나 되어서야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콘제(Conze)는 추론하고 있다. 〈계속〉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보 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2번 출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 법구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부산
- 법당 : 25
- 요사 : 35*2동
- 총부지 10,000
- 대지 650평
- 가액: 12억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시내
- 대지 : 55평
- 법당 : 25평
- 요사 : 방2개
- 가액 : 1억 3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사찰
- 목조법당54㎡ 요사채85㎡
- 토지 10.00㎡
- 수십년된사찰임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2억5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3, 욕실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기와지붕단층주택)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6천만원

010-4542-090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산사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4천
- 위치 : 전통사찰
- 부지 : 15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40평 외 2채
- 가액 : 9억8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양산(급)사찰

- 위치: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1350평
- 법당: 33평 산신각 및 용왕각 기타등등
- 버스주차장,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은행 안고 3억인수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직통 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아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건강상 급 안내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문산 혁시도시 인근
- 총평수 400평 (전 300, 대 100)
- 건물, 슬라브 벽돌 요사채 (방5개) 법당 (어법히 잘 모셔져 있음) 15평 산신각 3평
- 가액: 1억 9천만원 (대출금 6천) 1억 3천 양도
- 주지 소임 관계로 급히 양도함

010-3563-01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절하면 좋은 건물

- 위치 : 경남 양산
- 천혜의 자연경관 계곡접
- 부지 1120평
- 건물 200평
- 요양원, 연수원 가능
- 가액: 12억

010-8676-227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 2동 강남약국 건너편
- 3층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78-3380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시 삼도 일동
- 지하 100평
- 관음, 지장, 소불 200불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2464-45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8억 3천만원
- 직거래 - 부동산 사절

010-7582-00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신협 옆
- 평수 75평
- 2층건물 중 2층 독채, 시설완벽
- 삼존불, 지장전, 신중전, 삼성전
- 소불 108불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
- (주차장 운영수입 45만 발생)
- 시설비 3500만원

010-7601-693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종단사찰, 복지원, 요양원, 장례 결혼식장 가능
- 교통조건 매우 좋음
- 20억의 50 프로 확보된 분
- 년 후불도 가능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천만원(조정가)

010-7466-77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 안내
- 평수 :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별장같은 아늑한 포교원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 거제시 양정동 936-96번지
- 아파트밀집지역 등산로 입구
- 대지 약 270평 건물 약 40평
- 1층 법당, 공양간, 방2, 욕실2
- 2층 방1, 주차장 약 30대
- 전세 8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비 1000만원
- 모든 비품 있으니 즉시 입주 가능

010-6393-5352

불교(선원,포교원) 임대 안내

- 위치 :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1292-3번지 현재 무무선원 입곡유원지 입구
- 규모 : 부지면적 444㎡ 134평
- 임대건축면적(별관제외) 1층 14㎡ 4.3평 / 2층 167.9㎡ 51평
- 3층 150㎡ 45평 / 4층 15.4㎡ 4.7평 / 계 347.3㎡ 239평
- 특징 : 주변 녹지조성, 서쪽강변 접함, 넓은 주차장
- 임대조건 : ① 보증금 20,000,000원 ② 월임대료 800,000원

▶임 대 문 의◀
임대인 : (주)양지건설 011-874-6562 / 055-287-14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군포역 7분 거리
- 4층 건물에 2층
- 보증금 4백만원 월 30만원
- 삼존불, 신중탱화
- 침실 및 공양간 별도
- 시설비 700만원

010-8781-0935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북영천 IC 5분거리)
- 평수 : 2천평, 2차선 접 관광버스 진입
- 시설: 법당, 요사채, 공양실, 주지실, 조경탑, 연못, 기도실(펜션형)
- 가액: 3억 + 융자
- 동양 최고의 명당절터로 최고의 기도터

054)334-44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시설, 환경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총 6동(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3억 9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155-194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010-3111-9056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군산시
- 종교용지 : 법당 30평
- 목조건물이며 국보급
- 문화재급 다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총면적: 450평
- 총양도가액: 4억 7천만원

017-725-5907

주 택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상리면
- 대지 105평
- 건물 : 30평(창고포함)
- 도로인접 / 남향 / 전망좋음
- 양도가액 8500만

010-7532-5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월 77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 20년 포교,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1-309-3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1,실외2)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의식 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미국 정신의학자)

〈1〉 위력에서 벗어나 힘을 따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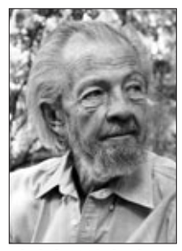
간절한 발원, 차별 없는 부드러움…깨달음으로 가는 길

〈의식 혁명〉(판미동 刊)은 '의식 지도' 의 창시자 데이비드 호킨스의 저서다. 저자는 신체운동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를 담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통찰의 열매에 고등입자물리학과 비선형동역학 분야의 혁명적 발견을 제시하는 등 영적 진실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건강 분야를 아우르는 실제 삶에서 위력과 힘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보여주며 위력과 힘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참된 힘은 생명을 지지하고 영적인 것과 연결되는 반면, 위력은 곧 약함을 나타내고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힘과 위력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숨어 있는 결정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4회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에고가 無 되는 것 두려워하며
자신의 존재에 매달릴 때 공포 뒤따라
존재 자체에 대한 욕망 내려놓아야
마침내 無냐 비존재냐 넘을 수 있어

데이비드 호킨스(1927~ 2012)



인간 정신의 진화에 대한 전문가이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작가이며 강사이다. 그는 영적으로 진화한 의식 상태 및 참나로서의 신의 현존의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연구했다. 작가의 연구는 영적 앎의 상태에 대해, 이해 가능하며 명료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952년부터 정신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정신치료협회의 종신회원으로 활동했다.

의식의 데이터베이스

신체운동학 연구는 금세기 후반 조지 굿하트 박사의 저작을 통해 최초로 과학적으로 주목받았다. 굿하트 박사는 양호한 물질적 자극, 예컨대 영양 보충제 같은 것은 일정한 지표 근육군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해로운 자극은 근육군을 갑자기 약화시키곤 한다는 것을 발견한 뒤에, '응용신체운동학' 이라 직접 명명한 분야를 개척했다. 그러한 발견의 함의는 개념적 의식 훨씬 밑에 있는 어떤 수준에서 육체는 자신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인식' 할 수 있고 근육테스트를 통해 그에 관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 존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 분야를 새로운 학과목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행동신체운동학' 이라 명명했다. 다이아몬드 박사의 놀라운 발견은, 지표근육군은 물질적 자극은 물론이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 · 지적 자극 앞에서도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것이었다.

신체운동학 테스트를 시행하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를 피험자라고 부를 것이다.

피험자에게 팔을 누를 테니 팔에 힘을 주라고 말한다. 이제 신속하고 확고하고 균등하게 상대의 팔을 누른다. 핵심은 팔의 탄력과 반동을 테스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누르는 것이지, 근육이 피로해질 정도로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다.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센가가 아니라, 팔근육이 누르는 압력에 맞서 어깨 관절을 '붙들' 고 있을 수 있는가이다.

피험자의 팔근육에 아무 이상이 없고 피험자가 외부 자극을 받지 않는 편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육은 '강한 반응' 을 나타내어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부정적 자극(예 인공감미료)을 주고 테스트를 반복하면, "앞서보다 세게 누르지 않는다 해도, 근육은 누르는 압력을 버티지 못할 것이고 피험자의 팔은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다이아몬드 박사의 연구가 갖는 인상적 측면은 피험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의 일관성이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며 공통적이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런 사리에 맞는 연관이 없을 때조차 그랬다.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일정한 추상적 상징은 테스트에서 모든 피험자에게 약한 반응을 일으켰다. 어떤 상징은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켰다. 일부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명시적으로는 긍적적이거나 부정적 내용이 없는 그림들이 모든 피험자에게 약한 반응을 일으키곤 했던 반면, 다른 '중립적' 그림들은 모든 피험자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

다이아몬드 박사가 잠시 주목했으나, 그것의 비상한 함의에 관해 깊이 분석하지 않은 또 다른 현상이 있다. 기만으로 알려진 진술이 담긴 테이프를 듣는 피험자들은 비록 화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더라도 테스트에서 약한 반응을 나타냈다. 입증 가능한 참된 진술이 담긴 녹음을 듣는 동안에는 피험자들은 공통적으로 강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이자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 데이비드 R. 호킨스의 출발점이었다. 1975년, 호킨스 박사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신체운동학적 반응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호킨스는 켜지지 않으면 꺼지는 신경 시냅스처럼, '지식' 의 가장 기본적이고 세포적인 형태처럼, 첨단을 걷는 물리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주 에너지의 핵심적 본성처럼, 답이 아주 명백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 로 나오도록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호킨스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결실이 큰 발견은 상대적 진실의 등급을 측정하는 수단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 수단을 이용해 1에서 1000에 이르는 범위에서 지적 위치, 진술, 이데올로기들의 서열을 매길 수 있다. 시험자는 "이 항목(책, 철학, 교사)은 200으로 측정됩니다.(예/아니오) 250으로 측정됩니다.(예/아니오)"라는 질문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다 마침내 일반적으로 약한 반응이 나와서 측정치가 정해지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측정치가 갖는 엄청난 함의는, 인간 역사상 최초로 이데올로기의 유효성이 그 모든 대상 속의 내재적 성질로서 감정(鑑定)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호킨스 박사는 20년에 걸친 비슷한 측정을 통해, 인간 의식 수준들의 스펙트럼 전체를 분석해, 인간 경험의 지형에 관한 매혹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었다. 이 '의식의 해부학' 은 인간의 전 상태에 대한 소묘이며, 개인과 사회와 인류 일반의 감정적 영적 발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바드 출판사 편집자 E. 휠렌, 애리조나주, 1995)**

마음의 여정

신체운동학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 잠재력 앞에서 곧장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두 우주, 즉 물질 우주 및 마음과 영의 우주 사이의 '웜홀' 이었고, 차원들 간의 접점이었다.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잠자는 이들로 가득한 세계에서, 높은 실상과의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시켜 주고 그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입증해 주는 도구가 여기에 있었다. 나는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물질, 생각, 개념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제자들과 연구 조수들도 같은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때 나는 어떤 이상한 일에 주목했다. 모든 피험자들이 부정적 자극(형광등, 살충제, 인공감미료 같은)에 약한 반응을 보인 반면, 자신의 앎의 수준을 발전시킨 영적 훈련생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약해지지 않았다. 피험자의 의식 속에서 뭔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뀌었다. 명백히 그들을 자신이 세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믿는 바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진보 과정 바로 그 자체가 존재의 무상함에 저항하는 인간 능력을 높여준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뉴욕에서의 삶을 등지고 나는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떠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7년간 명상과 연구를 하며 그곳에서 보냈다.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러한 의식 상태를 하나의 도구로 완성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는데도 압도적인 지복 상태가 되돌아오곤 했고, 결국 나는 신성한 현존 속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여전히 기능하려면 스스로 배워야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평범해지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절로 신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진짜 자신에 관한 진실은 일상생활의 도(道)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 평범함과 신은 다르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오직 관심과 친절로 살아가는 일 뿐이다. 나머지는 적당한 시기에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멀찍이 돌아온 영의 여행 끝에, 나는 가능한 한 많은 동료 존재들이 내 삶을 바꾼 현존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일로 복귀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앎의 상태에 도달하는지 묻는다. 나는 나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뿐인데, 그 단계를 따르는 이들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단계를 따르는 이들이 드문 것은 그것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이다. 먼저, 그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그 다음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일관되고 차별 없는 용서와 부드러움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는 모든 것에 연민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기꺼이 욕망을 정지시키고 매순간 사적 의지를 내맡기고자 했다. 모든 생각, 느낌, 갈망, 혹은 행위를 신에게 내맡기자 마음은 점점 더 침묵에 들었다.

처음에는 마음속 모든 이야기와 논평을, 그 다음에는 관념과 개념을 신에게 넘겼다. 생각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놓아 버리면 생각은 더 이상 그런 정교함에 이르지 못하고 겨우 반쯤 형성됐을 때 조각나기 시작한다. 마침내 생각이 되기도 전에 생각 자체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를 넘기는 것이 가능했다.

단 한 순간도 명상 상태에서의 흐트러짐을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확고부동하게 초점을 고정시키는 일을 일상 활동 중에도 계속했다. 처음에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습관적이고 자동적이며 힘들지 않은 것이 됐다.

아무런 징후 없이 앎에서 문득 어떤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현존이 거기 있었다. 그것은 명료했으며 전부를 아우르고 있었다. 자기가 죽는 동안 잠시 불안의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존의 절대성이 순간적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에고가 무(無)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존재에 매달릴 때 공포의 순간이 뒤따랐다. 하지만 에고가 죽자, 무가 되는 대신 그 자리에는 '일체임' , '전부' 로서의 참나가 들어섰다. 그 속에서 일체는 자신의 본질의 완벽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고 자명하다.

이 시점에서 육체에 벌어지는 일은 비물질적이다. 영적 앎의 일정 수준에서, 육체의 질환은 치유되거나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절대적 상태에서 그러한 고려는 무관한 것이다. 육체는 예정된 경로를 밟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온 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육체가 개별적 인간인 것처럼 여전히 그것에 말을 거는 모습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자각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런 앎의 상태를 설명할 길은 없다. 그냥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섭리가 사회적 적응을 맡도록 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그 상태에 동반되는 황홀경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다. 거기에는 또한 큰 고뇌의 순간들도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그 상태가 요동하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칠 때 가장 격렬한 순간이 벌어진다. 그런 때는 깊은 절망의 시기, 현존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추락은 길을 힘겹게 만드는데 반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이 수준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 안 그러면 견디기 힘든 '은총에서의 추락' 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마침내 자명해진다.

나의 경우에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무시무시했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되풀이해서 뒷걸음질 쳤다. 그제야 고뇌의 목적,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이 명확해졌다.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오가는 것이 견딜 수 없어질 때, 존재 자체에 대한 욕망은 내맡겨져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야 사람은 마침내 전부임이냐 무냐, 비존재냐를 넘어갈 수 있다. 그 내적 수행의 정점이 가장 어려운 국면이자 궁극적 분수령이다. 사람은 여기서 초월하는 존재의 환상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안다. 그 단계에서는 되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돌이킬 수 없음의 유령이 마지막 장벽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선택으로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자기의 그 최종적 종말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원성은 보편적 신성 속에서 녹아버리고, 선택할 개별 의식은 남아있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걸음은 신계서 홀로 옮겨 놓는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라.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위력의 수준이 아닌 힘의 수준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각성한 아는 이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삶은 분명코 같지 않을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판미동' 에서 펴낸 〈의식 혁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살을 베어서 병든 비구를 구제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8)

우바사나의 공덕

비뉴건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에게는 '불(佛)·법(法)·승(僧)'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때 우바사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사위국에 갔다가 바사닉왕에게서 일을 다 끝마치고 신앙이 돈독한 우바새들에게서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부처님을 뵙고자 하여 기원으로 갔다. 부처님께서 그때 여러 대중들을 위하여 5계의 법을 말씀하시고 계셨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우바사나도 부처님에게 계를 청했고 5계를 받았다. 부처님께서 또 〈법구경〉을 주시면서 외우게 하셨으므로 우바사나는 한밤중까지 〈법구경〉을 외우고 있었다.

비사문천왕이 수천의 야차를 거느리고 남방의 비루륵차에게로 가려다가 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찬탄했다.

"장하십니다. 누이여, 법요(法要)를 잘 말씀하십니다."

우바사나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공중에서 소리만 들릴 뿐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사문천왕이 대답했다.

"나는 귀왕(鬼王) 비사문천입니다. 법을 듣기 위해 공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바사나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하늘이고 나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누이라고 부르십니까?"

비사문천이 대답했다.

"부처님은 법왕이시고, 또한 인간과 천상의 어버이십니다. 같은 법의 소리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바사나는 크게 기뻐했다. 그의 머슴은 언제나 숲으로 들어가서 땔나무를 해왔다. 뒷날 아침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멀리서 사리불과 목련과 5백의 비구가 숲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참선하고 경 외우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했다. 우바사나는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머슴이 말했다.

"세존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주인에게 말씀하실 터이니 다섯 가지 보시를 갖추어 베푸십시오. 지금 음식을 장만하십시오. 제가 아까 주인의 말씀이라 하고서 두 분 존자와 5백 명의 제자들을 청했으니, 오늘 오셔서 공양하실 것입니다."

존자와 여러 비구들이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자리에 나아가 앉자 예배를 하고 손수 물을 돌리고 갖가지 음식을 올리니 향기로운 맛이 두루 갖추어졌다. 사리불에게 말했다.

"저에게 아들 넷과 남편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 말씀을 알지 못해 제가 만약 삼보께 공양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하면 이내 시샘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나 저는 신행을 닦고 보시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아 마침내 수다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해가 저물면 비건지림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우바사나는 스님들이 떠나간 뒤에 이내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여러 스님들이 묵고 있는 곳을 살펴보다가 어느 병든 스님이 굴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아픈 곳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자, 스님이 대답했다.

"4대가 고르지 못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신선한 고깃국을 먹으라고 했습니다."(〈마하승기율〉에서는 '비구에게 언제나 공양을 하거나 약을 먹게 하는 데는 고기를 쓴다.' 라고 했다.)

우바사나가 말했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삽화 · 강병호

그런데 다음 날은 15일이어서 국법으로 살생을 금하는 날이었다. 우바사나는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고깃국을 장만하지 못했다. 우바사나는 곧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고요한 방에서 스스로 목욕하고 자신의 넓적다리 안쪽의 살을 베어냈다. 그리고 모전으로 싸고 여러 약재들과 함께 달여서 국을 만들어 병든 비구에게 보냈다. 비구는 고깃국을 먹자마자 병이 나았다. 우바사나의 남편이 이윽고 돌아와서 부인의 모습이 이상해 보여 물었다.

"당신은 왜 이리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제가 아팠습니다."

남편은 곧 의원을 불러 부인을 살폈으나 알 수 없어 집안사람들을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여종이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크게 부르짖었다.

"사문 석가의 제자가 사람 고기를 먹었다."

부처님께서 그로 인해 "비구들은 부정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정하셨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부처님과 스님들을 여기로 청하셔서 공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숲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을 청했다.

"내일은 저의 집에서 공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님들과 함께 자리에 나아가 앉으시고 물으셨다.

"우바사나는 어디에 있느냐?"

스님들이 대답했다.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러오너라."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우바사나가 대답했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서 말하여 일어나게 하라."

아난이 가서 "부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고 평상에 그를 싣고 부처님께 왔다. 우바사나가 부처님 앞에 섰다. 그러자 부처님의 광명이 그녀를 비추고 그녀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다. 우바사나는 곧 일어나 부처님께서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자 아나함의 도를 얻었다. (〈우바사나경〉에 나오며, 또 〈현우경〉에도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㊽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도 지척

서울에서 부산도 한 걸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과 마음에 길이라도 있는 것일까. 한 걸음에 다가가 만나기도 하고 또 한 걸음에 멀어지기도 한다.

지난 11월 15일은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결혼 4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침공양을 하면서 약속을 했다.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통도사에 다녀오고 외식도 하면서 저녁엔 영화도 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평소에 전화도 잘 하지 않았던 현대불교신문 최정희 편집이사님이 생각이 났다. 늘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걱정이라던 말이 생각이 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었다. 왠지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아 본인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 이사님과 함께 근무하는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 "최 이사님한테 별일 없으신가요?"하고 물었더니 "예,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영단을 꾸미는 중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나의 예감에 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를 되뇌었다. 나는 다시 남편과 의논한 끝에 계획을 바꿔 서울로 조문을 가기로 했다. 아무리 멀어도 꼭 다녀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최 이사님과는 오래 전부터 서로 챙길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인연이며, 가끔씩 하게 되는 전화

지극히 마음 쓰면 예감하게 돼

'벌침과 벌들의 죽음'을 보고…

를 통해 어머니 얘기를 자주 들어왔었던 터라 왠지 늘 가까이서 뵙는 듯했었다. 그의 어머니를 뵌 적은 없었지만 최 이사님의 효심은 가끔씩 주고받았던 전화 통화만으로도 충분이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효심 깊은 최 이사님을 보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늘 '효도'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던지라 병상에 계신 어머님이라도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이사님의 효심이 부러웠다.

우리는 늦은 오후에 병원에 도착했다. 많은 조화들이 빈소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영단의 영정으로 그 분을 처음 뵙게 되었다. 생전의 곱고 인자하신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본 최 이사님은 내가 너무 멀리 있어 연락하지 않았다며 먼 걸음하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먼 걸음'이란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 생각했다. 마음만 있으면 부산 아니라 그 보다 더 먼 길도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멀면 같은 서울, 아니 옆집에 살아도 먼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영전에 향을 올리고 고인을 위해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조용히 올렸다. 부디 극락에 드시기를 기원하며 남은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했다.

문상을 마치고 최 이사님을 보니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는 젖은 눈에 다시 눈물이 넘쳐흘렀다.

누구나 이별은 아프고 슬픈 일이다. 그에게는 한동안 힘든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으니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를 위로했다. 사람은 남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나는 그 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모 자식 사이란 걸 또 한 번 느꼈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마음이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 날 아침의 '예감'이 왠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 마음이 가까우면 서울과 부산도 한 걸음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벌님 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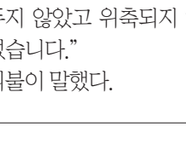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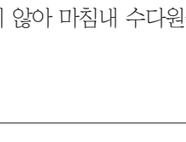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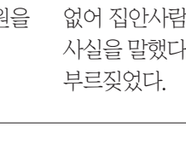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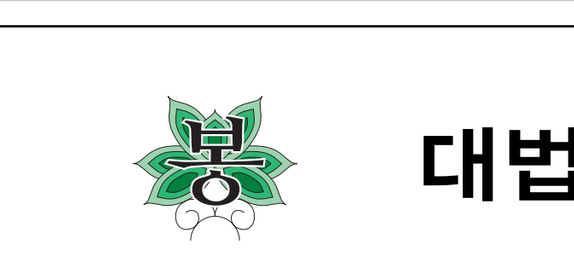
오늘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도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도반은 오래전부터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벌침을 맞고 있는 중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나의 지난날이 생각났다. 10여 년 전에 나도 이와 같이 퇴행성관절염을 앓았다. 그때 아랫집에 사는 아가씨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배운 벌침이라며 아파하는 나를 치료 해 준 적이 있다. 처음엔 모르고 시작했는데 벌들은 침을 놓고 난 후 두 시간 내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 더는 할 수 없다며 중단했지만 이미 몇 십 마리의 벌들이 죽은 뒤였다. 그해 나는 우리 절에서 매년 해오던 참회 산림법회를 일주일 내내하게 되었을 때 '대원성 복위 벌님 영가'로 축원을 올리며 참회기도로 용서를 빌었다. 벌침선생은 "벌은 어차피 오래 못가 죽을 것인데 이렇게 남의 아픔을 치료해 주니 얼마나 좋은 일 하고 가느냐?"고 했다. 생각하기 나름인지 몰라도 나는 불자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결코 편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시간마다 스님의 큰 목소리로 '벌님 영가'를 부르니 많은 신도들이 쉬는 시간에 내게 묻기도 했다. 자기네들도 염소며 닭이며 개 또는 소까지도 집에서 키우던 짐승들을 잡아먹었던 역사를 고백하며 영가 축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부터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어떤 생명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음과 미안함이 자비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인과는 꼭 있는 법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봉행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정진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 법 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납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행

자유권을 갖고도 왜 하나하나 끄달리면서 사십니까

주인공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하는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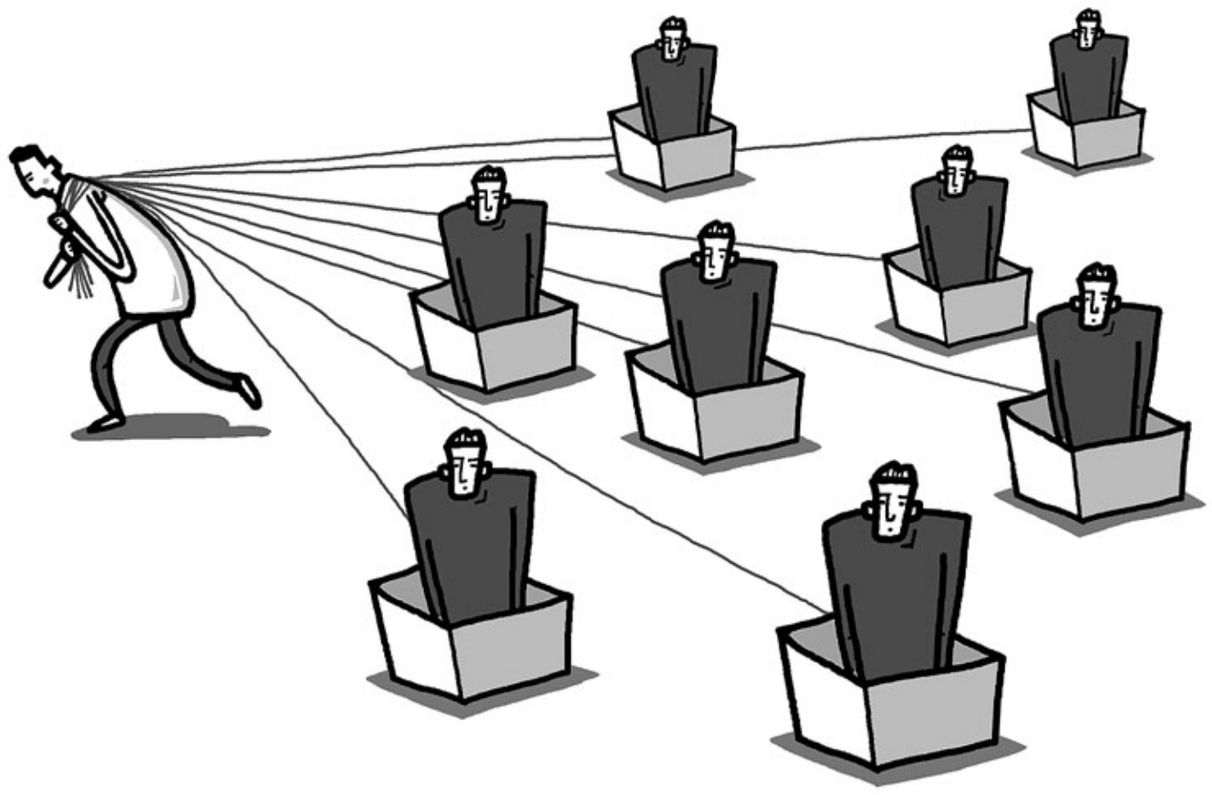
문)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스님의 법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무엇이며 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답) 자기 마음이 자기 육체를 끌고 다니죠? 그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자기 육체를 끌고 다니는 자기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 그 근본이 되지요. 말하자면 불성도 될 수 있고, 불성과 영혼 둘이 합쳐진 것이 그대로 한마음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 한테 몸을 받아서 과거에 살던 인과들을 다 이렇게 같이, 의식들을 같이 해서 영혼이 거기에 부합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로서 부합이 돼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 출현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도 인과가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같이. 나 너가 따로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한마음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 따로 무슨 미생물이니 뭐, 세균이니 할 게 없이 모두가 나예요. 그 수억이 다 나예요. 쉴 사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그건 어떤 게 나라고 할 수 없는 마당에서 한마음인 거예요.

어떤 것이 운행을 할 때에 나라고 하겠소? 간장 공장에서 운행을 할 때 나라고 하겠소, 소장 공장이 나라고 하겠소? 대장 공장이 나라고 하겠소, 심장 공장이 나라고 하겠소?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까닭에 한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마음 그 근본이 바로 나예요, 각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다, 주인이 몸을 이끌어 가지고 가고, 이것도 이렇게 가고 싶어 해서 내 몸이 가게 하고, 말하고 싶어 해서 말하게 하고, 그냥 이런 게 치밀게 해서 치밀게 만들고, 또 나쁜 일도 하게 만들고 좋은 일도 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바로 나예요. 그 근본이 주인이에요, 그 마음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근본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 나쁘게 나오는 마음은 다스려서 거기에 맡겨 놔라 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에 들이고 내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듯이, 우리가 살림살이를 들이고 내고 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일체 만법을 커버해 나갈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림 · 최주현

관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내 한마음 주인공밖에 없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맡겨 놓는 것이 관이에요. 이 관해 본다, 관해 듣는다, 모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말하고 있다, 움죽거리고 있다 이런 게 이름해서 그 관세음이래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을 관세음이라고 하기 이전에 나를, 각자 나를 먼저 발견해야 하니까, 나부터 알아야 하니까, 그건 진리니까, 진리 속에서 내가 참구해서 알아야 하니까 내가 있는 것을, 즉 말하자면 내 집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듯이, 나부터 먼저 믿고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과거에 살던 내 영혼 자체 근본, 불성 자체가 있다는 것을 너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참구예요, 관하는 거고.

고 다음에는 일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갈 때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게 있죠, 애로가. 어떠한 애로가, 아프다든가 뭐, 별거 별거 다 닥치죠. 이차적으로 그 닥치는 거는 닥치는 것대로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거기 맡기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화목하게 이루어 줄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게 모든 게, 전체 이렇게 관하는 법입니다.

습을 녹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문) 수억겁 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진 습을 녹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한 가지 습을 녹이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습들을 다 녹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은 억겁 전서부터 나오면서 노비문서를 갖다가 짊어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저 달나라에 갈 만큼 그냥 차근차근 쟁여서는 무겁게 짊어지곤 살아갑니다. 그 습을 한 번도 떼어 놓지 않고, 그것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노비 문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무거운 체도 안 하고 좋다고 웃으니 말입니다. 그게 사는 거래요. 왜 자유권을 갖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하나하나 끄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앞에 창살이 없는 것 같습니까? 창살이 있고 문지방이 높고 천야만야한 산봉우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기가 막힐 때가 있고 불이 일어날 때가 있고 건너가지 못할 때가 있고, 이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문서를, 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던 습에 의한 낙관, 습에 의한 종문서. 그 문서는 자기가 지어 놓고 자기가 그 문서를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것만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억겁 천년서부터 그 살던 습, 즉 종으로 살던 그 습의 종문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여기서 친다면은 우주 가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것을 몰락 다 그것을 불태워 버릴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쭉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모조리 주인공에다 모두, 만법은 일심으로 들고 일심에서 만법이 나가는 데서, 그 모든 종문서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한생각 나는 것도 공이거늘, 공에서 나오는 거 일체 그 공으로 돌아가는 걸 다 놓고 가면은, 그 하나하나 놓고 가는 게 종문서를 놓고 가는 겁니다. 거리가 천 리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요 눈썹 아래예요. 그러니 멀다 가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어휴, 저 산꼭대기 다리 아파서 어떻게 올라가나.' 한다면은 못 올라가요. 그러나 요 내 한 발자국 떼는 것만 생각하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사이 없이, 그 모두가 한데 합쳐서 떡을 만들어서 고냥 한꺼번에 삼킨다면은 그 얼마나 편안하겠소마는, 우리가 그러한 공부를 하는 데서는 무조건 들어야 하고, 무조건 믿어야 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석존으로부터 죽 내려오면서 시간과 공간을 두지 않고 참 그, 참선을 했죠? 그랬는데 그 후부터 화두다 좌선이다 이런 거, 간화선이다 묵조선이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게 되니까 습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차곡차곡 쟁여 있는 습의 종문서를 태워버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또 그놈의 걸로 붙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방의 그 모든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 습에 또 걸려 가지고는 아예 나의 문은 도대체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뒤죽박죽이 된 것 같지만 본래 진리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뒤죽박죽 된 사이에서 우리는 한 생각에 그대로 여여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만 가지 능력을 가졌어요. 아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 가지다 하면 만 가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을 무수히 가지고 있으면서, 종의 문서를 만날 짊어지고 그렇게 허덕거려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 소식 얻은 사람도 많죠?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마는 한 소식 얻었다고 해서 한 소식 얻었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애가 성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애를 낳아 가지고도 애가 깡패로 될 수도 있고 성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해질 수가 있다. 내가 한 소식 얻었다고 해도 어린애가, 갓난 어린애가 뭐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돌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뭐든 처음에 공부할 땐 그 종문서를, 모든 걸 놓고 '아하! 이것이 바로, 성주의 뜻이 바로 나로구나.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서, 그때에 내가 홀연히 나왔다 하더라도 그 홀연히 나온 것을 다시 되집어넣고, 둘이 아니게 집어넣고 모든 것이 닥치는 대로, 또 체험하면서 돌아가면서 다시 보림을 하고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앨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도 많아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줄 알아야 하고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삼키다 보면은 몽땅 나중엔 다 삼키게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몰락 삼키겠어요?

살생하지 말라 하심은…

문)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서로 먹고 먹히고 하는 먹이사슬의 관계에 의해서 자연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이사슬이 끊어지면은 자연이 파괴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식물도 생명이 있는 건데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 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 좀 지혜롭고 풍부하게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먹지도 말아야 하고 안 먹지도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먹기도 해야 하고 안 먹기도 해야 하고. 양면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왜 그게 양면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요, 고기로 살던 건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고기로만 살아야죠. 또 사람도 못나게 산다 하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못나게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화해서 돌아가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잘살고 못살고 잘나고 못나고, 이렇게 서로서로 바꿔 가면서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한 분들이 먹으면은 그게 화해서 딴 모습으로 다 태어나게 되고 마음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저 먹기 위해서만 하는 사람이 먹을 때는 그게 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살생의 업이 된다. 그건 왜냐하면 생각을 그렇게 남한테 이익하게 하질 않고 그냥 먹고만 싶어서 그냥 먹었으니까 그것이 자기 자식들한테도 해롭고 자기한테도 해롭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무조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무조건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무조건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삼키다보면 나중엔 몽땅 다 삼키게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몰락 다 삼키겠어요?

그러니깐 마음공부 한 분이 잡수시게 되면 그건 약이 되고 그 영혼은 다시 화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저건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만 잡숫는 분들은, 생각이 없이 잡숫는 분들은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살생의 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생각을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 생각을 잘했다면은 저 생명하고도 나하고 생명은 둘이 아니죠.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둘이 아닌데, 그러면 둘이 아니면은 어째서 살생의 업이 되느냐. 둘이 아닌 까닭에 살생의 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사람으로 자기가 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생각 하기에 달려 있다. 한생각 하기에 달려 있고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한생각에 달려 있고 짜부러지게 만드는 것도 한생각에 달려 있고. 모두 생각들을 조금만 비틀어지게 하면 비틀어지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구하면서 이게 가는 것도 양면을 잘 딛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텐데, 만약에 양면을 다 잘 딛고 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극난을 받고 더 이상하게 쫓기고,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더 쫓기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쫓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좀 아주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서 그러는 분들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외려 더 반 이상이 밑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깐 그저 너무 잘 돌아가지도 말고 너무 못 돌아가지도 말고, 그저 평균하게 넘어지지 마시고, 그저 이 정신계의 나와 물질계의 내 모습과 둘이 아니게끔 항상 굴리시면서 관하시면서 가시면 해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죠.

병고액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문) 저는 요사이 탐 · 진 · 치로부터 내 자신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 자신에 잘못된 것이 있나 살펴보고 걸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고 다음에 관을 하고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만사가 여이하게 풀리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병고액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여러분을 보면 답답하게 사시는 현상이 비치는 게 많아요. 어느 사람이 법당에 올라가서 절을 삼배를 올리고 칠배를 올리고 팔정례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꼭 따라서 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마음에서는 일배를 하고도 팔배가 되느냐, 이러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쁠 때는 삼배 올릴 거를 일배를 올리고 일어나도 그건 삼배가 되느니라.

그건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라는 건 한 사이가 없죠. 걸음을 걸어도 디딘 사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바쁠 때는 일배를 올리되 삼배를 올리고, 또 이게 말씀을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요. 법당에 와서 절을 일배를 올리고서 일배를 올렸는데 삼배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삼배로 하고 올리셨으면 삼배가 되죠, 급하면은. 지금 저 바깥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이거 절은 해야겠고, 그런데 삼배를 하려면 늦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배를 삼배로 올린 거죠. 그러고 나가니깐 시간이 딱 맞아서 아주 그 사람도 이익을 보고 자기도 이익을 봤다는 소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급해서 그냥 허덕거릴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깐 항상 이렇게 해도 그 값어치가 되고 저렇게 해도 그 값어치가 되게끔 생각을 느긋하게 그냥 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그냥 요거를 요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요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이건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내 정성이, 마음의 정성이 지극해서 일배를, 삼배를 일배로 그냥 올려도 그게 정당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급할 때는 급할 때대로 피하고 괜찮을 때는 괜찮은 대로 그냥 느긋하게 운동하는 셈으로 하셔도 되고. 다 그렇게 모두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관하는 거는 변소에 가서도 관할 수 있고요. 이게 더러운데 왜 변소에서 관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양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관해 준다 이러는 것도 그것도 더딘 생각입니다. 더딘 생각이니까 빠르게 생각을 하시고 뛰십시오. 어떤 땐 댁에서 더뎌서 못 이루어 가지고 이익을 못 보는 수가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단번에 그냥 해 버리시고 치워 버리시면 아주 그릇이 활짝 비죠. 비는 그릇에는 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냥 많이 담아 놓은 그릇에는 새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항상 하루 한생각으로 다 치워 버리고 그릇을 비워라 이것입니다. 그릇이 비면은 뭐 길에 지나가다가도 무슨 저거 하면은 또 담을 수가 있고, 담아도 또 비우니까 그냥 넣으면은 비워지고 넣으면은 비워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사시기가 좀 빳빳했던 게 좀 누글누글해지지 않습니까.

그럭하시고 간단히 하세요. 피로하게 그렇게 하시면은 좀 몸에 지장도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피로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단번에 그냥 떼어 버리세요. 한마디로 한생각으로 그냥 떼어 버리시고 다 그냥 쓱싹 해 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지 그릇이 항상 빕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살기가 좀 편리하고요.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하기 싫다는 마음을 냈는데…

문) 생활 속에서 늘 마음을 살피면서 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하기 싫다는 마음을 내면 꼭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답) 그건 누가 주고 뺏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거기다 맡겨서, 즉 말하자면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해야만이 바퀴가 돌아가지 운전대를 쥐고만 있어도 아니 되듯이 자기를 이끄는 운전수에게 맡겨라 이겁니다. 내 몸뚱이를 운전하는 운전수 한테다 맡겨라. 맡기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냥.

그런데 사람에게는 악업 선업이 엄연히 몸뚱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자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공부 하는 것도, 이 세상을 다 내다보세요. 금은 금대로 모여 있고 무쇠는 무쇠대로 모여 있고, 넝마는 넝마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모두가 돼 있듯이, 사람도 차원대로 그렇게 서로서로 만나게 돼 있죠. 그래, 금은 금대로 금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금방으로. 아무리 떨어지고 헤졌어도 금은 금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다면은 각자 자기네 마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지 못하면은 계발이 되지 않고 발전이 되질 않아요. 마음을 내는 게 있어야만이 발전을 하기도 하고, 계발도 하고 창조력도 기르죠. 창조도 해내고. 이게 과학이에요. 이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생각난다고 그걸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생각이 자꾸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도 바로 자기의 수행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네 몸 네가 이끌어 가는 거 알아서 이끌어 가라.' 하고, 또는 네 마음이 그런 것도 네놈이 마음을 내게 했으니까 그대로 내는 거고, 또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일은 자기가 자기를 또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겠죠. 다스려서 놓고 해야죠. 이런 공부 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자기 몸뚱이로 모든 거를 실험하고 체험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화두를 잡아서 공부한다거나 경을 읽어서 공부한다거나 또는 선지식들이 간 뒷발자취를 따라간다거나 이래서 나를 발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자기를 실험하면서 바로 바깥의 일들을 전부 알게 되는 거고, 안의 일을 모르면 바깥의 일도 모르게 되는 거죠. 주인 없는 집이 집입니까, 그게? 집이 망가지고 말지. 주인이 있어야 집이 망가지지 않고 잘 윤택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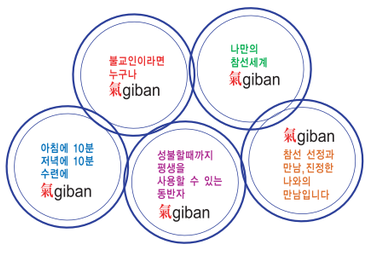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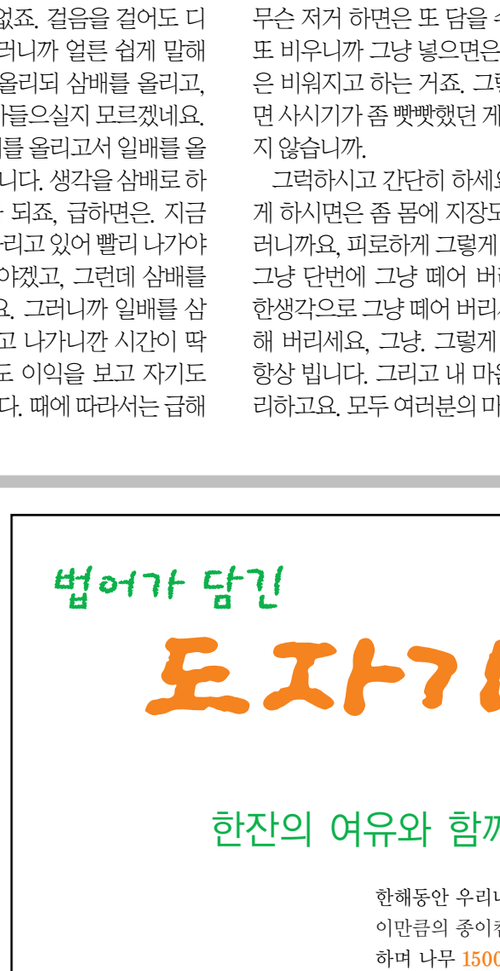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상우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고 2014년 청마(靑馬)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들은 이맘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 보통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볼 때 아쉬움을 느낀다.

그 허전한 감정 때문에서일까.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은 술자리로 대부분 진행된다.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지만 과할 시에는 그 관계마저 해치는 것이 된다. 특히 그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소홀해 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세류에 끌려 술잔만 비우는 것은 그 아쉬움을 털어버리기 보다 아쉬움을 더하는 일이 되곤 한다.

물론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 한 해를 정리하며 정을 쌓아 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인연을 지닌 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수행에 매진한다면 한층 더 그 인연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어떤 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까?"하고 묻자 "어제보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답하며 정진하는 삶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과 닮기를 서원한다. 하지만 그 서원을 얼마만큼 실천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듯싶다.

불자들이 진정으로 연말을 값지게 보내는 것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부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가 오고 짐을 떠나 '오계는 얼마나 착실하게 지켰는가?', '작은 보시라도 몇 번이나 했는가?', '얼마나 겸손 했는가?', '들뜨거나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등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또는 잘한 점은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인 점은 요즘 송년회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동안은 거창하게 송년회를 하는 것이 자랑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극이나 영화보기, 산행 또는 여행하기 등과 함께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동산불교대학에서는 최근 송년회 '동산인의 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어울려 한국춤 공연, 사물놀이, '사진과 미술' 전시회, 다도체험 등을 하며 보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신했지만 그 어느 해보다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힘입어 12월 31일에는 심야의 종소리를 동산불교대학 강당에서 함께 들으며 철야 염불정진을 진행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새해 아침에는 금강산 건봉사로 이동해 등공대를 참배하고 화진포에서 함께 불심을 다지며 인연을 더해갈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과 함께 새로운 서원을 다지는 것은 불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청색 말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한다. 청색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로 말의 성품과도 비슷하다. 우리 모두가 활발하고 진취적인 정진의 서원을 세운다면 2014년은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세월은 무시무종한데 우리는 어느 시점을 구분지어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온다고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해가 오감이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서원을 세우며 부처님을 조금씩 닮아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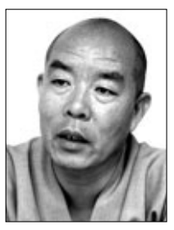
갑오년 새해를 앞두고 불자들이 수행에 매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길 간절히 바란다. 새해에는 현대불교 신문사와 독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발언대

종교인 정치 참여 논란

가톨릭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현재 정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종교인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대중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존재한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해야



보광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교인이 정치에 대해 무조건 담을 쌓고 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금지해야 하지만 사회현안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종교인 또한 국민의 일부이며, 국가 구성원 중 하나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과감히 나서야 한다. 종교인을 떠나 국민의 한명으로서 올바른 여론수렴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정국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여야 그리고 정부가 풀지 못하고 있기에 종교인들이 나선 것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한쪽에 치우쳐 행동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다. 개별사안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높은 안목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큰 물줄기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교는 종교답게, 정치는 정치답게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신라 충담 스님은 자신이 지은 향가인 '안민가'를 통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지면 나라는 평안해진다'고 노래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종교인은 종교인다운' 부분이 필요하다. 종교인의 본분은 중생 구제이다. 너무 깊은 정치적 발언은 자칫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은 종교인의 시국선언을 정략에 이용하면 안되며, 여당 역시 종교인들이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사를 다할 때 한국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반목보다는 화합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찬반

정치 · 종교 상호 견제 필요



박광서 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종교와 정치가 무 자르듯 분리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혹은 생명권을 침해한다면 종교가 정치를 혹은 정치가 종교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수혈을 거부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톨릭정의구현사제단은 아직까지 사실 여부가 판단이 안 된 문제를 사실이라 가정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치 개입은 특정 종교나 종교인의 이익을 위해 종교가 국가와 야합을 벌이는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자신의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견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안위가 우선돼야 종교인도 존재"



최용춘
한국교수불자협회 회장

천주교 전주교주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발언한 연평도 포격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본다. 또한 종교인들이 NLL발언 등을 하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모순을 느낀다. 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국가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였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 25전쟁 때를 생각해보라. 당시 종교인들 숙청당하고 학살됐다. 국가의 안위가 우선돼야 종교인도 존재할 수 있다.

종교인은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동행하며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정치적 편가름을 한다든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社說

불교유산 세계화 위해 역량 모으자

연등회와 발우공양, 전통 산사 7곳 등 한국불교의 전통 유 · 무형 유산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서울시는 연등회와 발우공양을 비롯해 한양도성, 용산 미군기지 등 총 8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올리기로 했으며, 문화재청도 한국의 전통산사' 도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 건의 불교문화유산은 한국불교의 특징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며, 발우공양은 평등, 절제, 공동체, 생명존중사상을 담고 있어 오늘날 인류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인 청빈, 소박함, 친환경 요소를 갖췄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전통산사'에 이름을 올린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총 7곳은 선교융합과 예불, 강학, 공동생활이 복합돼 불전, 강당, 승방이 공존하는 종합 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과거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며 보존돼 있는가' 라고 한다. 연등회와 발우공양, 전통 산사 모두 현재의 신앙과 의례 형태이자 수행 공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인류 정신문화의 보고인 것이다.

이제는 이런 전통문화유산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17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 이렇게 오롯이 남아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화는 종교도 국경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대해본다.

봉은사 운영백서에서 배우자

서울 강남 봉은사가 최근 운영백서를 발간했다. 사찰에선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운영백서에 실린 분야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포교 및 교육과 종무행정, 재정 등 중장기 계획 성과와 현황, 향후 계획 등이다.

봉은사는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봉은사 천일기도는 前 주지 명진 스님의 발원으로 2006년 12월 5일 동안거 결제와 함께 시작돼 2009년 8월 30일 회향됐다. 봉은사는 천일기도에 맞춰 중창불사 계획을 세워 차근히 진행해왔다. 바통을 이어받은 진화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며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를 위한 천수다라니 독송 3년 대정진' 을 진행했다.

봉은사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일요법회 활성화다. 2007년부터 봉은사는 '선종 수사찰' 이름에 걸맞게 수행중심의 법석을 마련했다. 2007년~2009년 평균인원이 1000명 이내였던 봉은사 일요법회는 선교율법회 실시 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

봉은사는 재정도 공개했다. 2006년부터 전체 세입 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2006년 봉은사 전체 세입예산은 총 119억 8000만원이었는게 특별수입 등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실제 수입액은 77억 5100만원이었다.

2012년에는 실제 수입액이 131억 1300만원으로 약 69.1%가 증가했다. 이런 재정증가는 봉은사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재정기여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백서 발간은 주지 스님의 임기가 끝나 교체되더라도 불사 및 사찰이 벌이는 사업을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봉은사를 계기로 전국 사찰에서도 신도들에게 자기절의 작은 역사가 될 수 있는 백서 발간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 부산광역시 불교승가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 호국안보 · 국가경제발전 · 국민화합기원

♥ 나눔과 기쁨의 동행 ♥
www.bsab.or.kr

전국 108 고승 불자 봉정 (拂子 奉呈)
사자후 청법대법회

일시 : 2013년 12월 11일 (수) 12:00 ~ 16:00
장소 : KBS 부산홀 (수영구 남천동)



청정하신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초동지제 (初冬之際)에 법체청안하심을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호국안보와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전국 108고승께 불자(拂子)를 봉정(奉呈)하고
법을 청해 듣는 청법대법회(聽法大法會)를 봉행합니다.

이 성스러운 법회에 큰스님들과 불교계 사부대중을 감히 모시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합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13년 11월 좋은 날

(사)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 이사장 석조연 회 장 석법민 합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베스트그린 B/D 4층 / 전화 051)557-1041~3 / 팩스 051)557-1045

(주)산사새아침 생약 발효 화장품이 당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산사새아침 생약 발효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은 기본재료를 1년이상 숙성 발효하여 옹기 소줏고리에서 12~13시간을 거쳐 증류로 받는 원료 그대로를 제품화 하였습니다. 주름개선에 좋은 화장품으로 식약청 인정 및 특허제품입니다. '산사새아침' 제품의 천연 원료는 우리나라 토종 지렁이인 참지렁이(red worms)를 직접 사육하여 1년이상 땅속에 묻어 숙성 과정을 거쳐 우리네 선조들의 전통 전례법제 공법인 옹기(소주고리)로 한 방울씩 모아 하루 약 12시간 증류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옹기 소줏고리에서 증류로 받는 원료들

효능 / 효과
- 건조(거친)피부, 윤기없는 피부를 산뜻한 피부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 세안 후 즉시 사용, 또는 메이크업 이후 가볍게 뿌려 주시면, 화장이 들뜨지 않고 밝은 피부톤을 유지시켜 줍니다.
- 피부건조 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입니다.

사용 방법
- 산사새아침 스킨케어는 기능성화장품으로써,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적당량 (1회 사용에 3~4번 분사)을 요구되는 부위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합니다.
- 산사새아침 스킨케어의 내용물은 50ml이며, 약 300회 분사 가능합니다.

※ 사용 전, 위 아래(3회)로 정도 흔들어 사용하십시요.

식약청인증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써
아데노신 0.04%를 함유하고 인공색소, 인공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자연친화적 화장품입니다.

1 산사사랑 스킨
천연 미네랄 성분이 피부 내부로부터 과도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적절한 보습 효과를 지속시킵니다.

2 산사사랑에센스
주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3 산사사랑 알로에 크림
천연 알로에베라젤이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있게 가꾸어 줍니다.





특허등록 : 아토피 피부염 완화를 위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제 10-1230922호)

(주)산사새아침 ■ 제조 판매원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청파로 178. 다동 구입문의 : 033)641-2598 / 010-3718-1866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